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
연구보고	2016-94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6. 12.

연구보고 2016-94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6.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건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한국형 성평등지수로 개발되어 매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이 지수는 성평등 수준 변화 분석과 더불어 분야별 성불평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분야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작성됨. 2016년 연구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를 영역, 분야, 지표별로 분석하고, 양성평등 정책간의 연계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 2016년(2015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한 정책 영역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지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 됨.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영역	분야	지표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 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 지표값은 성비로 분석. 단, 강력범죄(홍악법)피해자 비율은 수준과 격차를 함께 고려함.

□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과 산정방법

-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과(Outcome)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임.
 -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임.
 -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표와 함께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로 구성됨.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걸쳐 산정됨.
 - 1단계,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
 - 2단계,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
 - 3단계, 비율로 전환된 지표 값에 관련 가중치(Weight)로 보정
 - 4단계, 분야별 점수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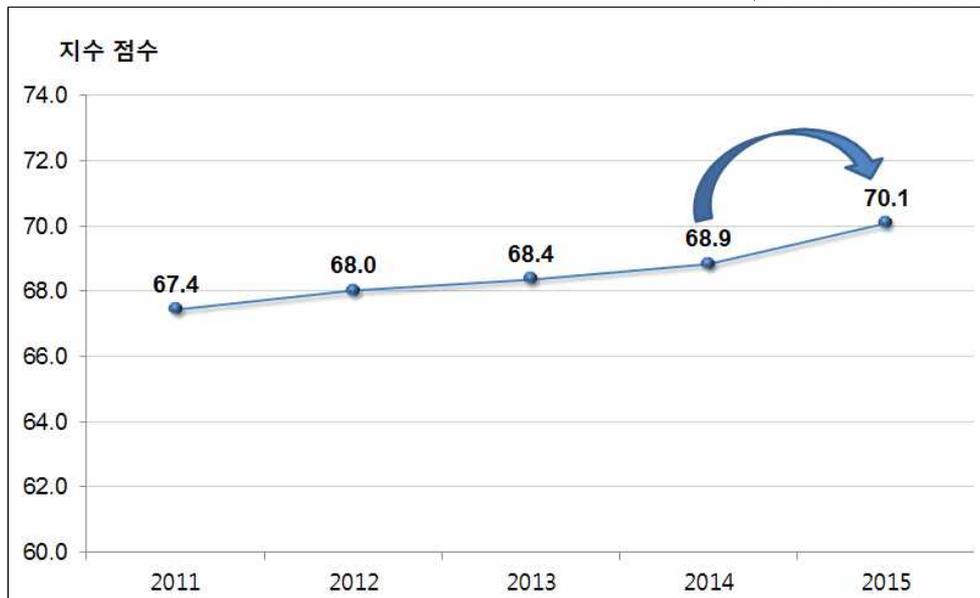
- 5단계, 각 분야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

□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는 통계생산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고 있고, 성평등지수의 값은 '0.0'(불평등)에서 시작해 평등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수의 값도 높아져 '100.0'(평등)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하고 있음. 2015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70.1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함.
-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1년 67.4에서, 2012년 68.0로 0.6p 상승했으며, 2013년에는 68.4로 전년대비 0.4p 증가함. 2014년에는 68.9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고, 2015년에는 2011년 대비 2.7p가 상승함.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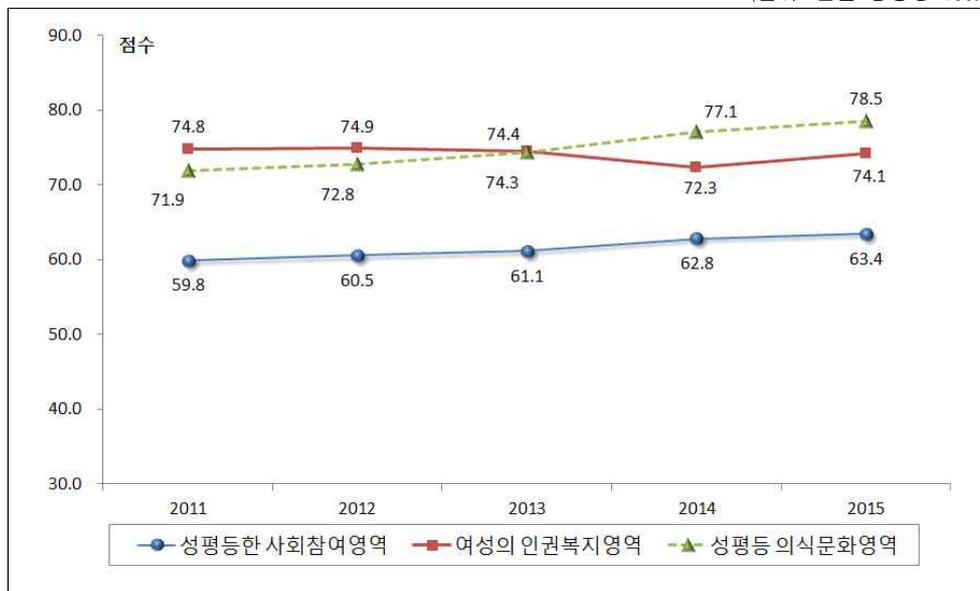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정책영역별로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순임.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며, 2011년 71.9에서 2015년 78.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 2015년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됨.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까지 세 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꾸준히 상승해 온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에 1위 자리를 내 줌.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구성되며, 의사결정분야가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 하지만 2011년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하여 2015년 63.4를 기록함.

<정책 영역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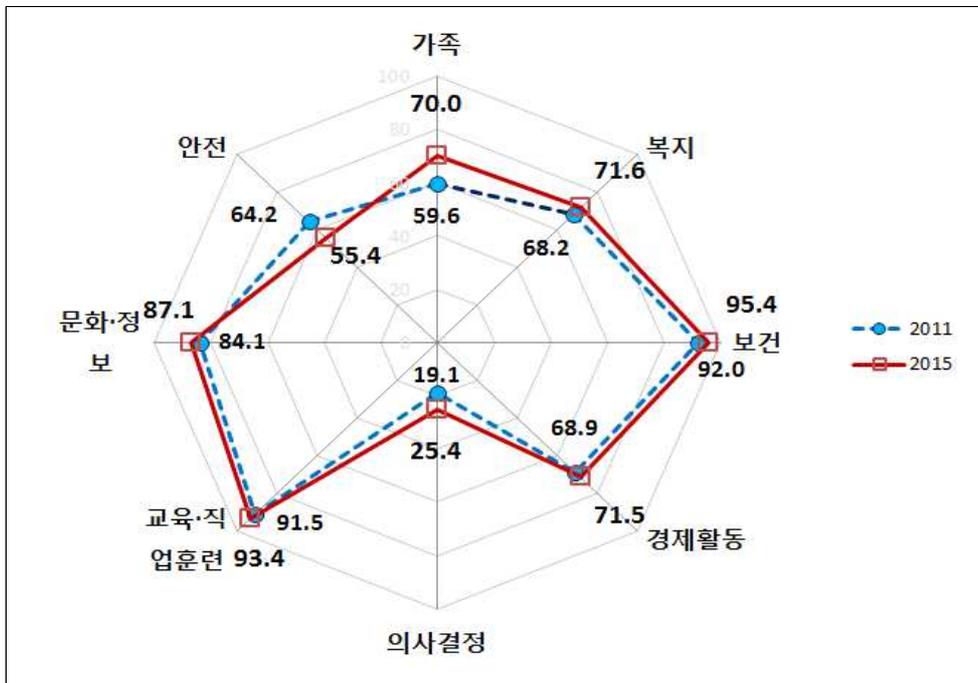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5년 보건 분야가 95.4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음.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복지 분야, 경제활동 분야, 가족 분야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이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임.

-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로 10.4p가 증가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8.8p 감소) 분야는 오히려 악화됨.

<분야별 성평등 수준(2011~2015년)>

(단위: 안전 성평등=100.0)



-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68.9에서 2015년 71.5로 2.6p 상승함.
- 의사결정 분야 역시 2011년 19.1에서 2015년 25.4으로 5년간 6.3p 증가하여 가족 분야 다음으로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임.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므로, 앞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5년 간 1.9p 상승하였음. 이는 교육기회에 있어 성평등이 달성됨과 동시에 직업훈련기회에 있어서도 성평등이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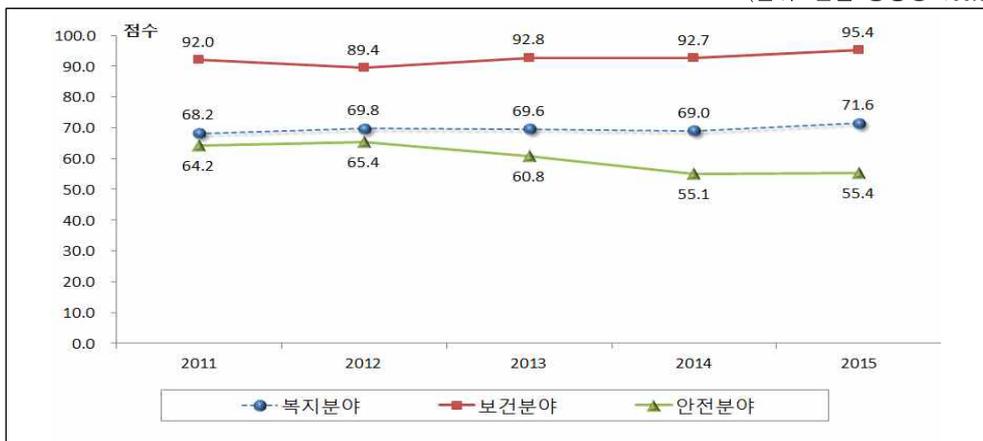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복지 분야는 2011년 68.2에서 2012년 69.8로 증가한 후 2014년에는 69.0으로 0.8p 하락하였지만, 2015년 다시 71.6으로 증가함.
-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 분야는 2011년 92.0에서 2015년 95.4에 이르기 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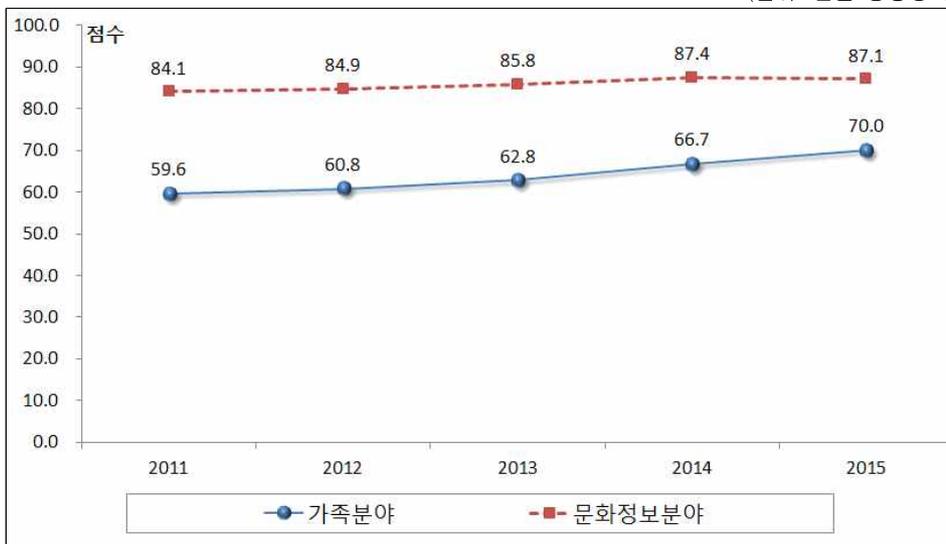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안전 분야는 2011년 64.2에서 2015년 55.4로 8.8p가 감소하여 5년 간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유일한 분야임.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과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가 모두 악화되었기 때문임.
- 가족 분야는 2011년 59.6에서 2015년 70.0으로 5년 동안 10.4p가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임. 육아휴직자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른 것임.
-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15년에 소폭 하락함. 8개 분야 중 3번째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며, 모든 세부 지표가 소폭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분야별 성평등지표 추이와 특징

- 경제활동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임.
 -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에서 2015년 57.9%로 상승하여,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2011년 54.9%, 2013년 55.6%, 2015년 57.9%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2011년 77.4%, 2013년 77.6%, 2015년 78.6%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비 : 2011년 70.9에서 2015년 73.7로 상승

- 남녀 임금수준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 임금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 성비는 점진적 개선을 보였으나 2015년 62.8%로 소폭 하락함.

※ 여성 월평균급여총액 : 2011년 1,548천 원, 2013년 1,705천 원, 2015년 1,781천 원
 ※ 남성 월평균급여총액 : 2011년 2,444천 원, 2013년 2,664천 원, 2015년 2,837천 원
 ※ 남녀 임금격차 : 2011년 63.3%, 2013년 64.0%로 상승, 2015년 62.8%로 하락

-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비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점차 상용근로자 중 여성 비중 높아져, 성평등 수준이 개선됨.

※ 여성 상용근로자 : 2011년 3,739천 명, 2013년 4,264천 명, 2015년 4,731천 명
 ※ 남성 상용근로자 : 2011년 6,922천 명, 2013년 7,449천 명, 2015년 7,857천 명
 ※ 상용근로자 중 여성비율 : 2011년 35.1%, 2013년 36.4%, 2015년 37.6%로 지속적으로 상승

○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 2011년 19.1에서 2015년 25.4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나, 타 분야에 비해 절대적 수준이 낮음.

-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최근에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함.

※ 17대 국회(2004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39명(13.0%)
 ※ 18대 국회(2008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41명(13.7%)
 ※ 19대 국회(2012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에서 여성이 47명(15.7%)
 ※ 19대 국회(2015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에서 여성이 49명(16.3%)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져, 공직부문 의사결정직의 성평등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전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4급 이상 공무원비율 : 2011년 8.4%, 2014년 11.1%, 2015년 12.1%).

※ 4급 이상 공무원(여성) : 2011년 684명, 2013년 840명, 2015년 1,067명
 ※ 4급 이상 공무원(남성) : 2011년 7,422명, 2013년 7,626명, 2015년 7,772명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비율을 보면, 여성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위원비율이 훨씬 낮은 특징을 보임.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비율 : 2011년 24.8%, 2013년 27.7%, 2014년 31.7%, 2015년 34.5%
 ※ 정부위원회 남성위원비율 : 2011년 75.2%, 2013년 72.3%, 2014년 68.3%, 2015년 65.5%

- 관리직 규모는 남녀 모두 감소 추이를 보임. 다만, 남성의 감소폭이 여성보다 훨씬 커서, 성비는 2011년 이래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악화됨.

※ 여성 관리직 : 2011년 기준 52천 명, 2012년 51천 명, 2014년 44천 명, 2015년 37천 명
 ※ 남성 관리직 : 2011년 기준 463천 명, 2012년 413천 명, 2014년 352천 명, 2015년 316천 명

○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평균교육년수는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의 증가율보다 높아 남녀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여성 평균교육년수 : 2000년 9.8년,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 2015년 11.3년
 ※ 남성 평균교육년수 : 2000년 11.5년, 2005년 12.1년, 2010년 12.4년 2015년 12.7년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1년 여성이 75.0%, 남성이 70.2%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이후 남녀 모두 하락 추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2011년 75.0%, 2013년 74.5%, 2015년 74.6%
 ※ 남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2011년 70.2%, 2013년 67.4%, 2015년 67.3%

- 직업교육훈련경험이 있는 여성비율은 2011년 32.6%에서 2015년 50.4%로 크게 상승하였음.

※ 직업교육훈련이수 근로자비율(여성) : 2011년 32.6%, 2013년 42.8%, 2015년 50.4%
 ※ 직업교육훈련이수 근로자비율(남성) : 2011년 37.7%, 2013년 49.9%, 2015년 55.3%

○ 복지 분야는 2011년 이후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2015년 가구주 빈곤율 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여성은 3.0%p 하락, 남성은 0.2%p 상승함.

※ 2011년 여성가구주 빈곤율: 21.8%,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7.8%
 ※ 2013년 여성가구주 빈곤율: 17.5%,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8.0%
 ※ 2015년 여성가구주 빈곤율: 18.8%,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8.0%
 - 2011년 대비 2015년 빈곤계층 가구주 가구의 하락: 여성 3.0%p ↓, 남성 0.2%p ↑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 비율의 성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됨. 특히, 국민연금 여성가입자가 남성가입자보다 증가 폭이 커서 공적연금분야 성평등 개선의 주된 요인이 됨.

※ 국민연금 가입자 : 2011~2015년 여성 1,384천 명 증가, 남성 686천 명 증가
 ※ 공무원연금 가입자 : 2011~2015년 여성 45천 명 증가, 남성 9.6천 명 감소
 ※ 사학연금 가입자 : 2011~2015년 여성 12천 명 증가, 남성 2천 명 감소

- 장애인의 고용률에서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1년 이후 하락추이를 보이다 2015년 다시 상승, 남성의 고용률은 2014년까지 상승한 후 2015년 다시 하락.

※ 여성장애인 고용률: 2011년 22.7%, 2013년 20.9%, 2014년 19.8%, 그리고 2015년 21.0%
 ※ 남성장애인 고용률: 2011년 44.8%, 2013년 46.9%, 2014년 49.4%, 그리고 2015년 44.7%

-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음. 2011년 92.0에서 소폭으로 등락하다가 2015년 95.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후 상승추이를 보이다 2013년 하락하였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함.

※ 여성 EQ-5D 지표 값: 2005년 0.926, 2011년 0.932, 2013년 0.929, 2015년 0.934
 ※ 남성 EQ-5D 지표 값: 2005년 0.953, 2011년 0.962, 2013년 0.962, 2015년 0.963

-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은 남성보다 낮으나, 전반적으로 수검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성평등 수준은 2015년 96.3으로 증가함.

※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 : 2005년 47.3%, 2011년 71.0%, 2013년 70.3%, 2015년 74.6%
 ※ 남성 건강검진 수검률 : 2005년 55.1%, 2011년 73.9%, 2013년 73.7%, 2015년 77.5%

-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1년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 증가함.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낮은 특징을 보임.

※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 : 2011년 31.2%, 2013년 26.0% 2014년 28.6%, 2015년 32.1%
 ※ 남성 스트레스 인지율 : 2011년 25.9%, 2013년 22.5% 2014년 24.4%, 2015년 29.8%

-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의 경우 2011년 이후 2012년 1.2p 상승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55.4까지 하락하였음.

-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는 2011년 대비 남성은 줄고 여성은 증가하여 성평등 수준이 악화됨.

※ 여성피해자 : 2005년 14,847명, 2011년 23,544명, 2015년 29,617명
 ※ 남성피해자 : 2005년 3,736명, 2011년 4,553명, 2015년 3,528명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2008년 이후로 안전인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지속적인 상승추이를 보였으나, 2013년과 2015년에 다소 하락함.

※ 여성 안전인식 비율 : 2008년 7.2%, 2011년 10.3%, 2013년 9.4%, 2015년 9.0%
 ※ 남성 안전인식 비율 : 2008년 9.3%, 2011년 14.8%, 2013년 14.0%, 2015년 13.8%

-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음. 하지만 가사노동 시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모두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가족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2011년 59.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70.0으로 증가함.

- 남녀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성불평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

※ 여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2시간 36분, 비취업자 4시간 53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2시간 34분, 비취업자 4시간 41분
 2015년 취업자 : 1일 평균 2시간 29분, 비취업자 4시간 31분

※ 남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31분, 비취업자 55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36분, 비취업자 1시간 4분
 2015년 취업자 : 1일 평균 42분, 비취업자 1시간 9분

-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소폭 하락한 뒤 2015년 다시 증가하는 등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정체상태를 보였음.

※ 여성 만족도 : 2011년 53.4%, 2013년 54.0%, 2014년 53.8%, 2015년 54.3%
 ※ 남성 만족도 : 2011년 57.2%, 2013년 57.4%, 2014년 56.6%, 2015년 57.4%

- 첫째 아 출생성비는 이미 1994년에 자연출생성비인 106에 도달한 상태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05년에 128.5에서 2015년 105.5로 크게 개선됨.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2005년 128.5, 2011년 109.5, 2014년 106.7, 2015년 105.5

-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매우 낮지만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여성 육아휴직자 : 2011년 56,735명, 2013년 67,323명, 2015년 82,467명
 ※ 남성 육아휴직자 : 2011년 1,402명, 2013년 2,293명, 2015년 4,872명
 ※ 여성대비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 2011년 2.4%, 2013년 3.3%, 2015년 5.6%

○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

- 남녀 여가시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짐.

※ 여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41분,	비취업자 6시간 17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23분,	비취업자 6시간 3분
2015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13분,	비취업자 5시간 33분

※ 남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4시간 25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
2009년 취업자 :	1일 평균 4시간 11분,	비취업자 8시간 23분
2015년 취업자 :	1일 평균 3시간 47분	비취업자 7시간 23분

- 여가 만족도는 2011년 대비 2013년도에 상승하였지만 2015년에 다시 하락, 성비는 상승추이를 유지하고 있음.

※ 여성 만족도 : 2011년 18.0%, 2013년 25.8%, 2015년 24.9%
 ※ 남성 만족도 : 2011년 20.7%, 2013년 28.4%, 2015년 27.1%

- 성별정보격차는 남녀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이를 보임.

- ※ 여성 정보화수준 : 2011년 94.4%, 2013년 94.4%, 2015년 95.3%
- ※ 남성 정보화수준 : 2011년 105.8%, 2013년 105.6%, 2015년 104.8%
- ※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일반국민대비 남성과 여성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제고방안

- GDI : 2015년 발표 2014년 기준 한국의 GDI는 161개국 중 3그룹(104위)으로 구분됨.
 - HDI 점수가 여성 0.861, 남성 0.926로 집계되어 GDI 점수는 0.930이 됨.
- GII : 2014년 기준 한국은 전체 155 국 중 23위(0.125)로 전년도 17위(0.101)대비 6계단 하락함.
 - 순위 하락요인은 모성사망비가 출생아 10만당 16명에서 27명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
- GGI : 한국의 2016년 순위는 전체 144국 중 116위로 2015년도 115위에 대비해 1계단 하락함.
 - 2015년도의 점수는 0.651점으로 2014년의 0.640점에 비해 0.011점 상승함.
- 한국의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 통계 집계 방식의 개선 : 첫째, WEF의 GGI지표의 하나인 고등교육 취학률 개선 등
 - 국제성평등 지수 관리 추진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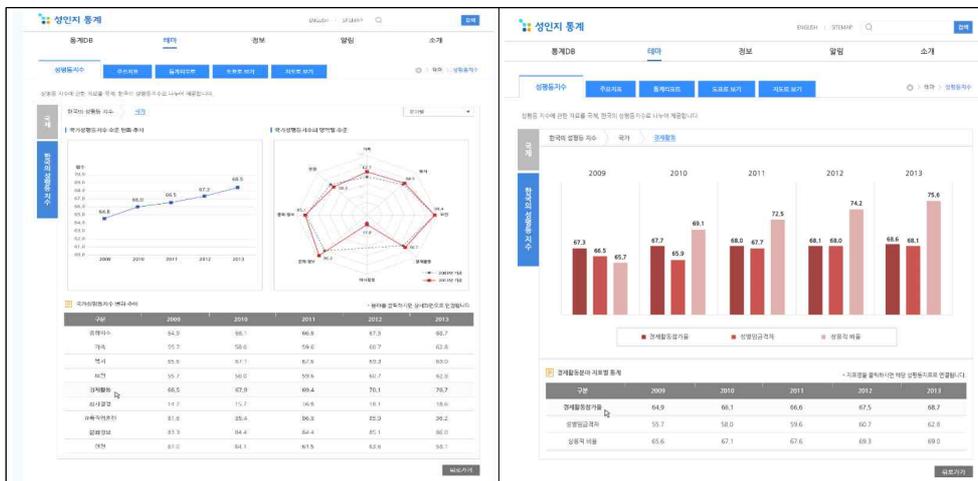
□ 성평등지수 관련 정책과제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주기를 같이해 정책 영역과 관심 분야별 지표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된 것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추진됨. 따라서 향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등을 2017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 둘째, 국가성평등지수 중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나 개선 정도가 높지 않은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집중 점검·관리해야 함.
- 셋째, 국가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는 웹 DB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함.

- 넷째, 국가성평등지수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성평등지표, 국내의 여성지위 향상 지표 등과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함
- 다섯째,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야 함.

<국가성평등지수 웹DB 구축 화면>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II. 국가 및 국제성평등지수 개요	9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11
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개발과 특징	11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12
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19
2. 국제 성평등지수 현황과 산정방법	25
가. 주요국의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25
나.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의 지표와 산정방법	27
다.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GII)의 지표와 산정방법	30
라. Social Watch 성형평성(GEI)의 지표와 산정방법	34
마. 유엔개발계획 남녀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36
바. 여성지위지수(The Status of Women Index)	39
사. 상대적 여성지위지수(The Relative Status of Women Index)	41
아. UNECA(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Gender Satus Index (GSI)	42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47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49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49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2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7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57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69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79
IV.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제고 정책	87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89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89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96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103
가. 성개발지수 소개	103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07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113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9
3. 국가성평등지수와 국제 성평등 지수의 비교	123
4. 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 정책	127
가. GII와 GGI의 개선 노력	127
나. 국제 성평등 지수 순위 제고 정책	134
V. 국가 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41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143
2.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 정책의 연계	151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62
■ 참고문헌	165
■ 부 록	167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69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99
■ Abstract	209

표 목 차

<표 I-1>	2015년 기준 성평등지수의 지표변화	6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 대표지표(2010년)	13
<표 II-2>	2016년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15
<표 II-3>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경 내용 및 자료원	17
<표 II-4>	2016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20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2016년)	23
<표 II-6>	기존 성평등지수와 개념적 프레임 워크	26
<표 II-7>	GGI 지표체계와 지표	29
<표 II-8>	GII의 영역과 지표	32
<표 II-9>	GEI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	36
<표 II-10>	GDI 영역과 지표	37
<표 II-11>	여성지위지수(SWI) 지표체계	40
<표 II-12>	상대적 여성지위 지표체계	42
<표 II-13>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젠더지위지수 지표체계	44
<표 III-1>	성별 EQ-5D 지수 추이	72
<표 III-2>	성별 강력범죄 피해자 구분	77
<표 IV-1>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지표	91
<표 IV-2>	GGI의 교육성취 영역 지표	91
<표 IV-3>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92
<표 IV-4>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93
<표 IV-5>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93
<표 IV-6>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95
<표 IV-7>	한국의 GGI 수준 추이	97
<표 IV-8>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8
<표 IV-9>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9
<표 IV-10>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99
<표 IV-11>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100

<표 IV-12>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	101
<표 IV-13>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16년)	102
<표 IV-14>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103
<표 IV-15> GDI 영역과 지표	104
<표 IV-16> GDI 지표별 자료원	105
<표 IV-17>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107
<표 IV-18> 한국의 GDI 수준	108
<표 IV-19> 연령별 교육년수(2010)	109
<표 IV-20> 성별 경제활동인구	109
<표 IV-21> 성별 월평균 임금	110
<표 IV-22> GDI 상위권 국가의 지표와 HDI, GNI 순위(2014년)	111
<표 IV-23>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4년)	112
<표 IV-24> GII의 영역과 지표	115
<표 IV-25> GII의 지표별 자료원	116
<표 IV-26> 한국의 GII 수준 추이	120
<표 IV-27>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4년 기준)	122
<표 IV-28> KGEL, GGI, GII 지표구성 비교	124
<표 IV-29> KGEL, GGI, GII의 지수 특성 비교	125
<표 IV-30> 세계인구전망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청소년(15~19세) 출산율	128
<표 IV-31> 출생성비 비교	129
<표 IV-32> 주요국의 취학률 통계 비교(2013년)	130
<표 IV-33>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 및 취학 적령인구 수 통계 비교(2013년 기준)	131
<표 IV-34>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분석 결과 비교(2013년 기준)	131
<표 IV-35> 임금성비 비교	132
<표 IV-36> WEF와 OECD의 임금성비 비교	133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양성평등 정책 목록	151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2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3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4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5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6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7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58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60

그림 목 차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5
[그림 III-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49
[그림 III-2] 2011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분석	50
[그림 III-3] 분야별 성평등지수 수준의 변화 추이	51
[그림 III-4] 2014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	52
[그림 III-5]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3
[그림 III-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4
[그림 III-7]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5
[그림 III-8]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57
[그림 III-9]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58
[그림 III-10] 연도별 성별 임금격차 추이	59
[그림 III-11]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60
[그림 III-12]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0
[그림 III-1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동 추이	61
[그림 III-14]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추이	62
[그림 III-15] 성별 관리자 수	63
[그림 III-16]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64
[그림 III-17]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5
[그림 III-18] 성별 평균 교육년수	66
[그림 III-19]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7
[그림 III-20] 성별 직업교육훈련경험자 비율	67
[그림 III-21]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8
[그림 III-22]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추이	69
[그림 III-23] 성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70
[그림 III-24] 성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71
[그림 III-25]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1
[그림 III-26]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73

[그림 III-27]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74
[그림 III-28]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5
[그림 III-29]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	76
[그림 III-30]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76
[그림 III-31]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8
[그림 III-32] 가사노동시간	79
[그림 III-33]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80
[그림 III-34]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81
[그림 III-35] 성별 육아휴직자 수	82
[그림 III-36]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3
[그림 III-37]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84
[그림 III-38] 성별 여가만족도	85
[그림 III-39] 성별 정보화격차	86
[그림 III-40]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6
[그림 IV-1] 부문별 GGI 비교	97
[그림 IV-2] GII의 영역과 지표 구성	115
[그림 IV-3] KGEL, GGI, GII의 우리나라 성평등점수 비교	126

부 표 목 차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69
<부표 1-2> 임금격차	169
<부표 1-3> 상용근로자	169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170
<부표 1-5> 고용률	170
<부표 1-6> 전문직 여성비율	170
<부표 1-7> 30대 고용률	170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171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171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171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171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72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172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172
<부표 2-1> 국회의원 비율	173
<부표 2-2> 5급 이상 공무원	173
<부표 2-3> 관리직 현황	173
<부표 2-4>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174
<부표 2-5>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74
<부표 2-6> 초·중·고등학교 교장	174
<부표 2-7> 대학 교수 현황	175
<부표 2-8> 공무원 수	175
<부표 2-9> 고위공무원단 여성 현황	176
<부표 2-10> 여성장관 현황	176
<부표 2-11>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76
<부표 2-12> 여성 사업체 대표자	176
<부표 3-1> 평균교육년수	177

<부표 3-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77
<부표 3-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77
<부표 3-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78
<부표 3-5>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178
<부표 3-6>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현황	178
<부표 3-7>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79
<부표 3-8>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80
<부표 3-9>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81
<부표 3-10>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181
<부표 3-11> 평생학습 참여비율	182
<부표 3-12> 기술사, 기능장 현황	182
<부표 3-13>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83
<부표 4-1> 빈곤 가구주	184
<부표 4-2> 공적연금 가입자	184
<부표 4-3> 장애인 고용률	185
<부표 4-4> 기초생활수급자	185
<부표 4-5> 장애인 교육수준	185
<부표 4-6> 장애인 등록자 수	186
<부표 4-7> 고용보험 가입자	186
<부표 5-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86
<부표 5-2> 건강검진 수검률	187
<부표 5-3>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87
<부표 5-4> 영양급여(청구)수급자	187
<부표 5-5>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187
<부표 5-6> 모성사망비	188
<부표 5-7> 청소년 출산율	188
<부표 5-8>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88
<부표 5-9> 주요 암 환자 수	189
<부표 5-10> 만성질환 유병률(2015)	189
<부표 5-11> 활동제한일수	189
<부표 5-12> 자살 생각률	190

<부표 6-1>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90
<부표 6-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191
<부표 6-3>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건수	191
<부표 6-4> 가정폭력 처리인원 및 기소율	192
<부표 6-5> 가정폭력 피해자	192
<부표 6-6>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92
<부표 6-7>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93
<부표 6-8>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193
<부표 7-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193
<부표 7-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94
<부표 7-3> 가족관계 만족도	194
<부표 7-4> 육아휴직자	194
<부표 7-5>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시간	194
<부표 7-6>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195
<부표 7-7>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195
<부표 7-8> 출산휴가 사용 건수	196
<부표 8-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96
<부표 8-2> 여가 만족도	196
<부표 8-3> 성별정보화격차	196
<부표 8-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97
<부표 8-5>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97
<부표 8-6> 생활체육 참여율	198
<부표 8-7>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98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경제성장률 저하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보고서(2008)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장기적인 경제, 인적 그리고 환경자본(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apital) 투자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인적 그리고 환경자본(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apital)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 동안 경제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왔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 투자 및 활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성 인적자원은 여전히 과소 평가, 과소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OECD 보고서(2008)에 의하면 사회 제반 분야의 성평등과 여성발전은 경제성장, 빈곤감소, 사회복지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지속적으로 촉진되고 여성발전이 이뤄져 왔다.¹⁾

그러나 성평등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도는 OECD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국제 성평등지수를 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의 경우 우리나라 순위는 2006년 전 세계 115개국 중에서 92위였고 2016년에는 전 세계 144개국 중에서 116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성격차지수와는 달리 남녀 간의 불평등을 파악하는 성불평등지수(GII)에서의 우리나라 순위는 2014년 전 세계 152개국 중에서 23위였다. 또한 2012년에 발표한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I) 순위도 154개국 중에서 100위로 낮았다.²⁾

우리 사회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하고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 분야별 성차별의 원인, 수준과 개선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8. Gend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ximis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ole of Women. Paris: OECD.

2) Social Watch(2012), Measuring Inequality: The 2012 Gender Equity Index.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 환경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성평등지수체계와 성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그 변화 추이와 원인을 파악하여 국가의 양성평등 전략에 반영하여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1995년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했다.³⁾ 이에 따라 동 법 제 19조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했고, 2016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 패러다임도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강화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지표를 점검하고 적절한 지표를 개발,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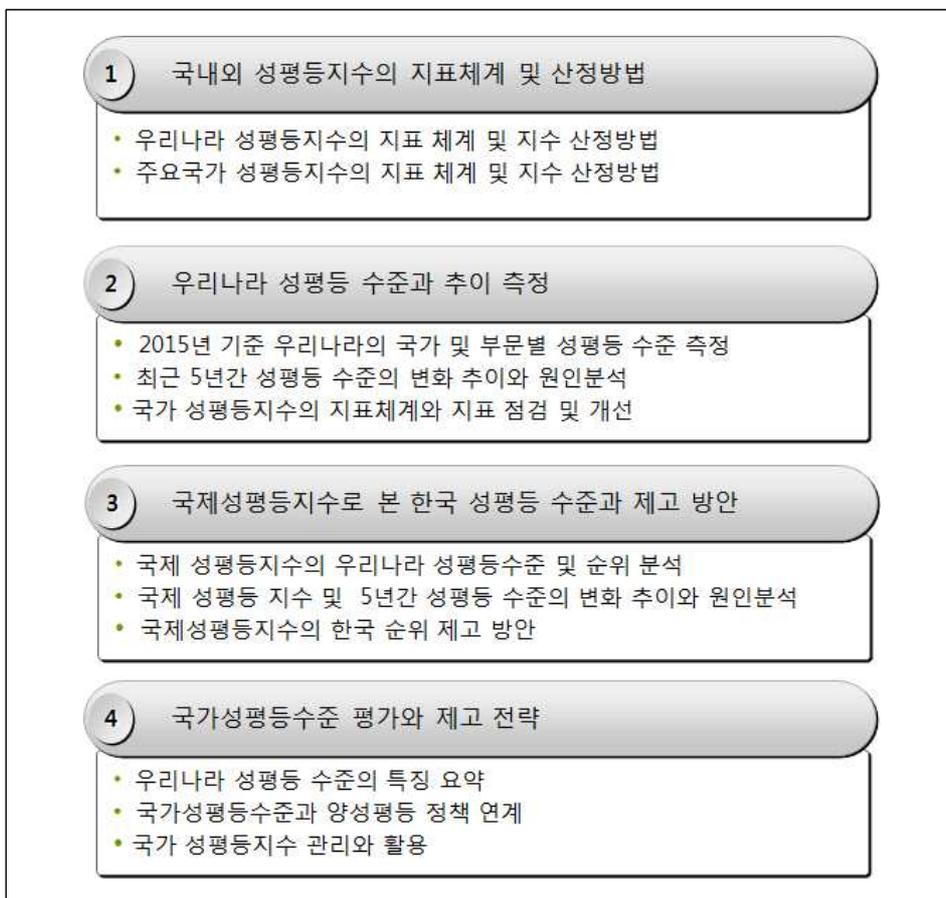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지표와 지수의 개발과 활용을 단순히 성평등 수준의 국제 및 지역별 비교에만 활용하지 않고,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의 파악과 함께 국가 성평등전략을 수립,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국가전체, 사회 분야별, 지역단위별 성평등지수와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측정,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성평등 수준 달성에 필요한 지표(indicators)와 관련된 조치(actions)와 정책(policies)의 추진 정도 및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평가를 기초로 성평등지표 및 지수와 연동하여 중장기 국가 성평등전략(National Strategy for Gender Equality)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3) 여성가족부(2016),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양성평등관련 법령의 변화 p. 21.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지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9년에 개발한 성평등지수와 측정방안을 기초로 하여 2010년부터 계속해서 수행해 온 연구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그림 I-1>과 같은 연구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이를 위해 먼저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성과 지표체계 및 산정방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9년에 개발되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된 지표체계와 구성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2015년부터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그리고 여성가족부 담당자들로 구성된 간담회 과정을 거쳤고, 2016년도에도 성평등지수의 지표의 추가 및 대체 그리고 삭제 등을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 지표는 의사결정과 보건분야의 정부위원회 위원비율, 스트레스 인지율이고, 대체된 지표는 의사결정직분야의 지표인 기존 ‘5급 이상 공무원비율’을 ‘4급 이상 공무원비율’로 그리고 교육·직업훈련분야 지표인 ‘재직자 직업훈련참여 근로자비율’에서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변경지표는 경제활동분야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에서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었다.

<표 I-1> 2015년 기준 성평등지수의 지표변화

정책 영역	분야	지표변화	2015년 기준 성평등지수의 지표 개편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 활동	기존	-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변경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의사 결정	기존	- 국회의원 비율, 관리직 비율,
		대체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신규	- 정부위원회 비율
	교육· 직업훈련	기존	-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대체		-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존	- 비 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보건	기존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신규	-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기존	-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기존	-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
	문화·정보	기존	-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이 외에도 주요국의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구축에 참조하고, 주요 성평등지표의 개발 목적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비교·검토를 하여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표의 향후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참조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 분석하였다. 즉,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와 분야별 지표를 활용하여 성평등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가 및 분야별 성평등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5년간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와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성평등 수준 및 분야별 성평등수준을 전망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이 성평등수준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GDI, GEM, 세계경제포럼(WEF)의 GGI, Social Watch의 GEI의 과거 및 현재 지수 값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성평등지수인 WEF의 GGI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을 요약하고,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 정책을 연계하였다.⁴⁾ 2015년 기준으로 연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6~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13~2017)’ 등의 정책을 활용하였다.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수집·분석
 - 국내외 성평등지수 관련된 문헌 연구
 - 성평등지수관련 방법론 비교 분석
 - 국제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 관련 통계 자료원 검토
 - 국가성평등지수 구성 지표에 대한 통계분석

4)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pp. 123-132. 참조.

8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 국가 성평등지수 산정
- 2016년 국제 성평등지수(GII, GGI 등)의 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
 - 2016년 성평등지수 및 추이분석결과 등 자문
 -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부처별 정책 개선과제, 국제기구 활용통계 점검 등에 대한 자문

II

국가 및 국제성평등지수 개요

- | | |
|----------------------|----|
|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 11 |
| 2. 국제 성평등지수 현황과 산정방법 | 25 |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개발과 특징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9년에 개발되어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제 19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에는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 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일반적으로 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성평등 정의와 지수생산 목적에 따라, 투입(Input or means)지표가 아닌 성과(Outcome)지표로 구축되었다. 투입지표로 구성된 지수의 경우는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쉬워서, 정책 원인 및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투입지표로 구성된 지수의 경우 지수값의 수준이 높더라도 실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⁶⁾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Gap)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차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이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차이(Difference) 혹은 비(Ratio)로서 측정할 수 있다. 주요 성평등지수 중에서 지표의 격차로 성평등 수준을 산정하는 지수로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I) 등이 있다. 그리고 지표의 격차와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성평등 수준을 산정하는 지수로는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 권한척도(GEM)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표의 격차와 수준(Level)을 함께 고려하여 성평등 수준을 산정하는 경우, 성평등 수준 개선이 지표수준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남녀격차의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

5)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3에서 일부 재인용.

6)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47-54 참조.

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남녀격차를 기준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는, 국가 전체와 각 분야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에 개발되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해 왔다. 이러한 국가성평등지수 영역을 구분한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8개 분야(Dimension)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분야로 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이 8개 분야로 구성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수준을 포괄할 수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선정과정은, 먼저 8개 분야별로 각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226개 성평등지표풀(pool)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1차 149개를 조사대상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8개 성평등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인 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149개 지표에 대해서 중요도(0~10점)와 우선순위(1~5순위), 해당 분야별로 개발이 필요한 신규 지표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중에서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표지표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⁷⁾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지수 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 그리고 각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지표와 관련된 각 행정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 연구에 의해서 선정된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관련 행정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지표조정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행정부처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표지표는 <표 II-1>의 8개

7)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 대표지표를 선정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홍 외(2009), pp. 159~196 참조.

분야, 21개 지표이다.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 대표지표(2010년)

분야 (지표 수)	분야별 대표지표
① 가족 (2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② 복지 (3개)	비 빈곤 가구주의 성비 /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③ 보건 (3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④ 경제활동 (3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성별 임금격차(성비) ¹⁾ / 상용근로자의 성비
⑤ 의사결정 (3개)	국회의원의 성비 /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⑥ 교육·직업훈련 (3개)	남녀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 ¹⁾ /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성비 /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⑦ 문화·정보 (2개)	여가시간의 성비 /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⑧ 안전 (2개)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 인식 성비 ²⁾ ,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의 성비

주: 1)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를 나타냄. 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남녀 상대비(Relative ratio)인 성비(Sex ratio)로 계산함.
 2) 2010년 통계청 조사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으로 지표를 변경함.

그리고 2009년 이후 이러한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체계와 구성이 지속적으로 개편되었다. 즉, 2009년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가 8개 분야 21개 대표지표로 구성된데 비해, 2010년에는 기존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를 ‘건강관련 삶의 질(EQ-5D)’로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의 성비’, ‘성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상용직 근로자 성비’로 대체하였고,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고 완전평등수준에 도달한 ‘성별 건강수명’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지표 수가 21개에서 20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에도 다른 지표로 대체, 새로운 지표 추가, 지표 명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각각 20개와 21개 지표로 개편하였다.⁸⁾

8)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5.

그리고 2015년에 발간한 2014년도 국가성평등보고서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발간하였다. 또한 2015년도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우 가족 분야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 그리고 문화·정보 분야에서 ‘성별정보화 격차’를 추가하였고,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삭제, 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를 삭제하여, 8개 분야 23개 지표로 지수를 산정하였다.⁹⁾

금년에 생산할 2016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성평등지수를 연계하여 지수 구성 지표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제2절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20조 적극적 조치,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속하는 조항으로는,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 양성평등주간,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제40조 국제협력,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속하는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그리고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속하는 조항들과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비교를 연계해서 보면, <표 II-2>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즉 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으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여성의 인권 및 복지 영역’ 그리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및 직업훈련의 3개 분야, ‘여성의 인권·복지영역’에는 복지, 보건, 안전 분야의 3개 분야,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에는 가족, 문화·정보 분야의 2개 분야로 구축하였다.¹¹⁾

9)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5.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11)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7. 일부 참조.

금년에 발간될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도 다른 연도와 마찬가지로 지표체계에서 소폭 변화가 이뤄져 성평등지수의 지표 추가 및 대체 그리고 삭제 등을 하였다. 즉, <표 II-2>에서와 같이 2015년과는 달리 의사결정 분야의 ‘정부위원회 비율 성비’, 보건 분야의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와 같은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표 II-2> 2016년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정책영역	2016년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분야	지표
① 성평등한 사회참여 -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 (양성평등 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② 여성의 인권·복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복지	비 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
	안전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③ 성평등 의식·문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주: (*)은 2016년 추가된 지표임.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을 국제 성평등지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동일하게 기존 ‘15세 이상’에서 ‘15~64세’로 변경하였고, 의사결정 분야에서 직급별 남녀 공무원을 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11년 3,239명에서 2015년 4,6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2011년 20,790명에서 2015년 20,938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즉,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2012년 9.3%에서 2015년 11.9%로 소폭 증가함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를 ‘4급 이상 공무원비율 성비’로 대체하였다.

교육·직업훈련분야의 경우는 ‘재직자 직업훈련참여 근로자비율의 성비’의 지표 값이 완전성평등 수준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경험 근로자 비율 성비’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는 3개 정책영역, 8개 분야 그리고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II-3>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경 내용 및 자료원

정책 영역	분야	2015년 지표	2016년 지표	자료원	비고 2015년 개편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변경)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근로자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대체
		관리직 비율	관리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정부위원회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신규
	교육·직업 훈련	평균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대체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 빈곤 가구주 비율	비 빈곤 가구주 비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8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정책 영역	분야	2015년 지표	2016년 지표	자료원	비고 2015년 개편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신규
	안전	전반적 안전의식	전반적 안전의식	통계청, 「사회조사」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주기
육아휴직			육아휴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주기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주기
		성별정보화격차	성별정보화격차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¹²⁾

국가성평등지수는 아래의 5단계를 거쳐 산정한다. 먼저 1단계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수준 자체보다 여성과 남성의 성취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지표 값을 남녀의 성비로 전환시킨다. 단, 대표지표 중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은 표준화를 통해 지표 값을 성비로 전환시키고 있다.

2단계는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성평등 최저점 '0'에서 최고점 '1'로 만드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지표는 남녀의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성평등 기준점 '1'을 만족하지만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가 1.06이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완전평균기준점이 '1'과 다를 경우에 표준화함수를 사용해 지표 값을 산정하는데, 지표 값이 클수록 성평등한 수준을 나타내는 식 (1)을 사용해 표준화한다. 하지만 출생성비와 같이 지표의 값이 작을수록 성평등한 수준이 되면 아래의 식 (2)와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한다.¹³⁾

$$I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quad (1)$$

$$I = [(\text{Max}(x) - x) / ((\text{Max}(x) - \text{Min}(x)))] \quad (2)$$

3단계는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에 관련 가중치(Weight)로 보정하는 단계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항 성평등지표의 지수 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지표의 대상이 되는 남녀인구로 조정한다.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면 <표 II-4>와 같았다. 그리고 2016년에는 신규로 추가한 지표 중에서 일부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II-4>에 의하면 경제활동분야의 지표 중에서 상용근로자와

12) 지수산정방법의 경우 김태홍 외(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55-65,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20-28에서 인용 및 재인용하여 요약함.

13) 지수의 표준화방법은 서열화 $I = \text{Rank}(x)$, 정규화 $I = (x - x_m) / \sigma$, 최소-최대 $I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참고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 크게 9가지가 있음. 표준화방법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pp. 27-30 참조.

관리자의 경우 각각 15세 이상 남성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와 남성취업자에 대한 여성취업자 비율의 역수 그리고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경험근로자는 각각 15세 이상 남성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했다.

<표 II-4> 2016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경제활동참가율	-	평균교육년수	-
성별 임금격차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가족 분야		의사결정 분야	
가사노동시간	취업률 고려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수의 성비 역수
가족관계 만족도	-	관리자 비율	취업자 성비 역수
육아휴직자	-	정부위원회 비율	-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비 빈곤 가구주 비율	전체 가구주의 성비 역수
건강검진 수검률	-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59세 인구 성비 역수
스트레스 인지율	-	장애인 고용률	-
문화·정보 분야		안전 분야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
여가만족도	-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전체인구의 성비
성별정보화격차	-		

주: 성비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성/남성」 비율을 나타냄.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는 지표를 2016년에 5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교체하였는데, 4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의 지표 값은 ‘(4급 이상 여성공무원)/(4급 이상 남성공무원)’에 대해 가중치 즉,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인 ‘(전체 남성공무원 수/전체 여성공무원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동 분야 지표인 국회의원 비율과 관련된 가중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이다.

복지 분야의 지표인 비 빈곤 가구주 비율과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각각 전체 가구주의 성비 역수와 18~59세 인구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나머지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인 여가시간의 가중치는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이고, 안전 분야의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성비를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2016년에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를 신규추가, 대체한 지표들은 이미 언급하였고, 1~3단계의 지표 산정단계를 통한 각 분야별 지표 값 계산 방식은 <표 II-5>와 같았다.

4단계는 분야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수 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제성평등지수 중 WEF의 GGI는 각 하위분야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한다. 가중치는 지표 값의 표준편차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낮은 지표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할 수 있으나 한국의 지수 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수 산정은 모든 지표 값의 개선 정도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단순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5단계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분야의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이다. 종합지수는 지수의 분야들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즉,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지를 선택해야 한다¹⁵⁾.

14) GGI의 교육분야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12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순이었음. WEF(2012), p. 5.

15) 종합지수산정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지수의 성격에 따라 계층적 분석법(AHP) 이외에 주성분분석 혹은 요인분석법, 여론분석법, 예산배분분석(Budget Allocation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 부여 방식은 계층 분석법(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산정했다. 계층적 분석법은 1970년대 초 사티(T. L. Saaty)에 의해 개발된 분석방법으로 의사결정 목표나 평가기준이 다수일 때 개별항목의 가중치 산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즉, 계층적 분석법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8개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 값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층 분석법을 이용하여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분야별 가중치의 일관성 비율(CR)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로 설정한 가중치는 경제활동 0.19, 의사결정 0.13,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 0.13, 보건 0.10, 안전 0.12, 가족 0.11, 문화·정보 0.08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 지수의 최종 지표 값은 개별 분야별 지표 값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Process), 자료포괄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등이 있음. OECD (2008), pp. 89-98.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2016년)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F / M]$	15세 이상에서 15-64세로 대체
성별 임금격차	남녀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 비율	대상 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F / M]$	
4급 이상 공무원비율	대상 남녀공무원 인원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5급이상 공무원에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대체
관리직 비율	대상 남녀취업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times [F / M]$	
정부위원회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	$X = [F / M]$	2016년 신규지표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의 성비	$X = [F / M]$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F / M]$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대상 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직업훈련참가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2016년 대체지표
복지			
비빈곤가구주 비율	대상 남녀가구주 가구비율로 조정된 비빈곤 가구주 가구 성비	$X = W_{m/f} \times [F / M]$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성비	$X = [F / M]$	

24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F / M]$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역수)	$X = [F / M]^{(-1)}$	2016년 신규지표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대상 인구비율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집단 성비	$X = W_m/f \times [(F / M)]$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강력범죄로 부터 안전한 남녀비율의 성비(역수) ³⁾	$X = [S_m / S_f]^{(-1)}$	
가족			
가사노동시간	남녀취업구조를 통제 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⁴⁾	$X = 1 / [(T_{Ef} + T_{Nf}) / (T_{Em} + T_{Nm})]$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⁵⁾	$X = [(Max - (NCHm / NCRf)) / [Max - Nsr]$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F / M]$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단, 완전평등 기준점을 남성 육아휴직자를 여성 10%로 봄	$X = [F / M]^{(-1)} \times 10$	
문화·정보			
여가시간	남녀취업구조를 통제 한 여가시간 성비 ⁶⁾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F / M]$	
성별정보화격차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성비	$X = [F / M]$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3) S_f, S_m 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 p_f, p_m :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나타냄.
 4) $T_{Em}, T_{Nm}, T_{Ef}, 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5) 출생성비의 최대값은 2.0(우리나라 1993~1994년 셋째 아 출생성비 2.029, 2.027 참고값), 최저값은 자연출생성비(UN의 1.06)를 기준으로 산정함. NCHm: 남아출생아 수, NCRf : 여아출생아 수, Nsr: UN이 설정한 자연출생아 성비.
 6) $LT_{Em}, LT_{Nm}, LT_{Ef}, L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2. 국제 성평등지수 현황과 산정방법

가. 주요국의 성평등지수 현황과 특징

성평등지수는 종합지표를 통해서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수들이 <표 II-6>에서와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수들은 유럽연합 수준에서 성평등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출발점을 나타낸다. 물론 지수를 통한 성평등 수준 측정에는 다양한 결점도 있다.

성평등지수는 인간개발, 여성권한 혹은 성평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개발되어 왔다. 남녀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인간개발 이슈로서 보는 약속을 지지했고, 이러한 이슈는 성불평등에 대한 정책 논의와 함께 더 나아가서 분석 및 정책을 위한 성별 분리 자료의 수집을 촉진시켰다. 이 외에도 여성권한 지위를 채택하는데 초점을 둔 또 다른 지수들이 구축되었다. 그러한 지수로는 남녀평등지수, 인간개발지수 등과 동일한 지표에 기반을 둔 여성 상대지위지수(RSWI) 등이 있다. 그리고 권한, 경제활동 그리고 재생산건강 영역에서의 여성 불이익(Gender Inequality Index)을 파악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여성 불평등지수도 있다. 유럽연합 성평등지수(European Union Gender Equality Index)는 여성의 권한 관점으로 출발하였고, 젠더접근을 포괄하고 있다.¹⁶⁾

성평등지수는 지수 특성에 따라 장점 및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성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평가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지표의 장점은 평가대상 국가가 많고, 지표의 이용 가능성이 높으며 인간개발지수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단점은 인간개발지수를 단순하게 젠더와 연계시키고, 특정 지표의 수준과 함께 남녀격차를 나타냄에 따라 실제 성평등지표로는 한계가 있다.

성형평성지수(GEI)는 평가대상 국가가 많고 성평등관련 지표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보건 등 주요한 성평등영역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특정한 남녀 지표 수준이 낮더라도 남녀 간의 격차만 없으면 지수의 점수가 높고, 특정한 남녀 지표 값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도 남녀 간의 격차가 크면 지수의 점

16)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3), Gender Equality Index Report, pp. 9-10.

수가 낮은 특징이 있다. 성격차지수(GGI)는 성평등지표와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국 위주이면서 지표의 가중치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IGI)는 남녀 간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제도와 법적 규범을 반영하는 사회제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 지수는 사회제도를 포함한 성평등의 원인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불평등이 심한 영역을 부각하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지표가 측정 상 문제가 있고 다른 성평등지표를 보완하는 성격이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표 II-6> 기존 성평등지수와 개념적 프레임 워크

성평등지수	개념적 프레임 워크	SOURCE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 노동시장 - 권한 - 재생산건강	UNDP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 경제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보건과 생존 - 정치적 권한	WEF
성형평성지수 Gender Equity Index	- 교육 - 경제참여 - 여성권한	SOCIAL WATCH
사회제도와 젠더지수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 차별적인 가족법규 - 신체적 안전 제약 - 아들선호 - 소유권 제약 - 시민자유권 제약	OECD
여성의 상대적 지위 Relative Status of Women	- 남녀 교육비율 지수 - 남녀 기대수명비율 지수 - 상대적 남녀 재취업	Dijkstra & Hanmer (2000)
여성지위지수 Status of Women Index	- 보건, 학교교육, 성인교육, - 경제활동참가, 고용조건, 가정생활 - 공공생활, 법적 보호	Yasmeen Mohiuddin (1996)
유럽연합 성평등지수 European Union Gender Equality Index	- 동일임금 - 임금(임금격차) - 의사결정권한(정치, 사회경제) - 무급노동(돌봄, 여가 시간)	Plantenga et al. (2009)

성평등지수	개념적 프레임 워크	SOURCE
유럽성평등지수 European Gender Equality Index	- 교육(교육수준, 생애교육) - 노동(참가, 직종격리 등) - 권한(정치적, 경영)	Bericat (2011)
젠더지위지수 Gender Status Index	- 사회적 권력(교육, 보건) - 경제적 권력(소득, 고용, 자원접근성) - 정치적 권력(공적영역, 사적영역)	UNECA
남녀평등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 (출생시) 기대수명 - 평균교육년수 - 기대교육년수 - 소득(추정)	UNDP
남녀평등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교육성취 수준 - 평균수명 - 소득	UNDP

자료: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2013), Gender Equality Index Report, p. 11.
Table 1.1. 그리고 기타 국제 성평등관련 지수 자료.

나.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의 지표와 산정방법¹⁷⁾

1)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의 특징

세계경제포럼은 사회발전이 없는 경제적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발전이 없는 사회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GGI의 성평등은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회발전단계, 즉 남녀가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한다(WEF, Women's Empowerment: Measuring the Global Gender Gap).

이에 GGI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관심을 두고 성평등 수준을 측정한다.¹⁸⁾ 첫째, '수준'보다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실제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둘째, 성과지표의 차이를 측정한다. GGI는 성과 지표에 관련된 기본적인

17)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47-54 참조.

18) WEF(200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pp.3~4.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10),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70-71.

권리 즉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 권한부여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지만,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권한보다 성별격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2) 성격차지수 영역과 지표¹⁹⁾

성격차지수(GGI)는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통해 여성의 개발과 기회정도를 측정한다. GGI 지표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정치 권한부여, 건강과 생존의 네 가지 영역의 총 1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선정 배경을 보면, ①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한 격차를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② 경제적 기회는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③ 정치적 참여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 대표의 정도를 파악, 국가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④ 교육적 달성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⑤ 건강과 복지는 기본적으로 남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면서도 근본적인 개인의 안전과 관련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각 영역별 세부 지표를 보면 경제참여 차원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추정 비율, 남성 대비 여성 관리직 비율을 측정지표로 활용한다. 교육성취도는 문해율과 초·중·고등학교 취학률을 사용하고, 건강과 생존은 건강기대수명과 출생성비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한 부여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여성비율과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반 재임기간이다.²⁰⁾

19)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47-54 참조와 김태홍 외(2009),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p. 208.

20) GGI의 경우 보조지표는 국가 순위의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각 국가의 상황을 설명할 때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지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지표, 교육 및 양성 부문, 고용 및 소득 부문, 사회제도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7> GGI 지표체계와 지표

영역 (4개)	지표 (14개)	
경제참여와 기회	-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 유사직종 성별 임금 격차 - 추정소득 성비	-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성비 - 전문·기술직 비율 성비
교육성취도	- 문자 해독률 성비 - 초등 취학률 성비	- 중등 취학률 성비 - 고등 취학률 성비
건강생존	- 건강수명 성비	- 출생성비
정치권한	- 국회의원 비율 성비 - 여성 장·차관 비율 성비	(최근 50년 이내) - 정부 수반의 재직 기간 성비

3) 성격차지수의 산정방법

GGI 지수는 아래와 같은 4단계를 거쳐서 성평등지수를 산정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자료를 여성/남성 비율(ratio)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지수는 수준 그 자체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달성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계산된 비율들을 “평등 기준점”(equality benchmark)에서 절삭시킨다. 즉, 각 변수의 평등기준점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할 경우, 여성이 남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평등기준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과한다. 즉, GGI 산정 방법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가를 측정하는 일방적인 척도이다. 따라서 반대방향으로 남녀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하거나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 한편 각 변수들을 평등 표준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절삭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을 넘어서는 나라들에 같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위영역 지수 점수를 산정한다. 하위영역의 지수 점수는 식 (2)와 같이 하위영역 지수에 속하는 지표를 가중평균해서, 하위영역 지수의 점수를 산정한다. 여러 지표를 가중 평균하는 것은, 표준편차가 큰 측정치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준편차를 동일하게 하여 지표점수를 표준화한다. 이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각 지표는 하위지수에 동일한 상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예컨대, 초등학교 취학률과 같은 낮은 변이 혹은 표준편차가 적은 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국가별 비교에서 초등학교 교육에서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보다 큰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4 단계에서는 최종 지수를 산정하는

데, 최종 지수는 아래와 같이 각 구성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SD는 표준편차의 역수이고, GGI_j는 영역별 성평등지표의 점수이다.

$$\text{영역별 성평등지수값} = \left[\frac{SD_1}{(SD_1 + \dots + SD_i)} \right] \times GGI_{-1} + \dots \quad (2)$$

$$\left[\frac{SD_j}{(SD_j + \dots + SD_i)} \right] \times GGI_{-j}$$

다.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GII)의 지표와 산정방법

1)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의 특징

성불평등지수(GII)는 GDI와 GEM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새로 개발·공포된 지수이다. UNDP는 기존 GDI와 GEM에 대한 문제점²¹⁾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를 발표 하였다. 이 지수는 세 개의 영역인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보여준다.

GII의 영역과 지표구성은 기존 성평등지수의 문제점 개선을 염두하고 선정되었다. 지표는 기본적으로 개념적 관계성²²⁾(Conceptual relevance), 명확성²³⁾(Non-ambiguity), 신뢰성²⁴⁾(Reliability), 부가가치²⁵⁾(Value added)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GII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21) 첫째, 척도가 절대적인 성취와 상대적인 성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한 국가가 완전한 성평등 수준에 있더라도,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으면 그 국가의 지수 값이 낮은 문제가 있음. 둘째, GDI는 종종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성평등측도로 오해되고 있음. GDI는 기본적인 인간개발에서 성불평등의 인간개발비용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회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님. 셋째,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법률가, 고위관리직'은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대신에 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넷째, GEM의 거의 모든 지표들은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향(Bias)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후진국에게 보다 적절한 몇 가지 지표들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음. 다섯째, 지수산정에 있어 각국의 결측 자료를 채우고자 광범위한 대체(Imputation)를 함.
- 22) 인간개발 정의와 이론과 강력한 관련성. 즉, 지표는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야함.
- 23) 해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지표 값 수준이 높을수록(혹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함.
- 24) 정의, 통계의 질, 생산과정 등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함.
- 25) 각 지표는 명확히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함.

첫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에서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GII는 성불평등 수준만으로 지수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지수 값 산정에 있어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값은 불평등이 없는 '0'에서 완전불평등인 '1'까지의 범위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지수 값이 더 높아진다. 즉,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영역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모성 사망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불이익은 성불평등에서 중요하며,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GII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방법은 GII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²⁶⁾

그럼에도 유엔개발계획(UNDP)은 성불평등지수(GII)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특정 국가의 성평등 수준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불평등지수는 지수 산정목적이 국가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에 기초한 5개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성평등 수준을 위한 정책목표를 성불평등지수 기준 국제적 순위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GII와 지표 영역 및 지표 수가 많은 GGI 등을 활용하여 국가순위를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성불평등지수 중에서 여성특화 지수 즉, 모성사망율, 청소년 출산율 등은 여성보건과 미래기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6) GII는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구축한 지수임. 기존의 국제 성평등지수의 경우 성불평등 해소 정책을 어떤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하여도, 성불평등 개선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GII의 경우 어떤 영역 혹은 지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음.

2) GII의 영역과 지표

성불평등지수(GII)는 세 개의 영역 즉,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의 영역에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생식보건 영역은 두 개의 지표 즉,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서,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는 출산기의 여성복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표로 선정되었다. 특히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으로 가끔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 지표는 여성의 건강 악화와 미래의 기회 제한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권한 영역은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인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비율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권한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핵심 지표이다.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권한 영역에서 교육부분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된 지표로,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 지표로 여성권한 영역의 여성의원 비율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표 II-8>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3개)	지표 (5개)	비고
생식건강	모성 사망률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여성권한	여성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시장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Lucia Szabova'(2010), Faculty of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Economics, Prague, p 5.

3) GII의 산정방법

GII 지수는 일부 앳킨슨(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한다. 또한 GII 측정은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의 연관관계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GII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epsilon=2$ 수준으로 설정하여, 개별 지표의 동등 분포된 젠더지수를 만든다.²⁷⁾ 구체적인 지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 (1)과 같이 기하평균을 통해 여성(G_F)과 남성(G_M) 각각에 대해 영역간 통합을 한다. 여기서 MMR=모성 사망률, AFR=청소년 출산율, PR=여성의원 비율, SE=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LFPR=경제활동 참가율이다. 둘째는 식 (2)와 같이 조화평균(harmonic mean)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셋째는 식 (3)과 같이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의 산술 평균값을 기하평균으로 계산한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F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quad G_M = \sqrt[3]{1 \cdot (PR_M \cdot SM_M)^{\frac{1}{2}} \cdot LFPR_M} \quad (1)$$

$$HARM(G_F, G_M) = \left[\frac{(G_F)^{-1} + (G_M)^{-1}}{2} \right] \quad (2)$$

$$G_{F, \bar{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owerment} \cdot \overline{LFPR}} \quad (3)$$

여기서, $\overline{Health} = (\sqrt{(10/MMR) \cdot (1/AFR)} + 1)/2$, $\overline{LFPR} = (LFPR_F + LFPR_M)/2$

$$\overline{Empowerment} = \frac{(\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2},$$

마지막 넷째, $HARM(G_F, G_M)$ 을 $G_{F, \bar{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그리고 위의 GII의 산정 식은 불평등에 대한 혐오 혹은 성평등에 대한 선호 수준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역간의 연관성(Association)이 감안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7) 이것은 GDI의 지수 값 산정과 유사함.

$$GII = 1 - \frac{HARM(G_F, G_M)}{G_{F,M}} \quad (4)$$

라. Social Watch 성형평성(GEI)의 지표와 산정방법

1) 성형평성 지수의 특징과 지표체계

GEI(Gender Equity Index)는 미국에 본부를 둔 민간 운동단체인 Social Watch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써, 경제적 수준보다 할당제 같은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거나, 지역별 특징 등을 분석하는 등 정책입안과 사회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지수에서 성평등이란 권리, 혜택, 의무, 기회에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남녀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 자원에 대한 통제와 접근,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에게 서로 다른 책임, 권리, 혜택, 기회를 부과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성평등 측정도구는 평가 목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설계하고, 일반적인 공공정책이 남녀 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EI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성별격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남녀의 지표 수준이 낮아도 남녀 간의 격차만 없으면 지수의 점수가 높다. 더불어 특정한 남녀 지표 값이 둘 다 높더라도, 남녀 간의 격차가 크면 지수의 점수가 낮다. GEI는 2009년까지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가공 지표들을 재인용하기 때문에,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지수(GEM)의 지표 구성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지수 산정을 수준이 아니라 성별격차(성비)를 활용함으로써 차별화되었고 2012년의 경제활동 영역에 비취약 고용(Non-vulnerable employment)을 추가하면서 GEI만의 차별성을 강화시켰다.

2) GEI의 지표체계와 지수 산정방법

성형평성지수(GEI)는 3개 영역에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활동 영역 3개, 여성권한 영역 4개, 그리고 교육 영역 4개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수는 비율(%)을 기준 단위로 수집한다.

지표영역 중에서 ① 경제활동 영역은 노동현장에서의 남녀 간 불평등을 파악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과 비취약 고용에 취업한 비율이 낮고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임금수준이 낮다. 이에 경제활동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비취약 고용격차, 남녀소득격차로서 불평등을 측정한다.

② 여성권한 영역은 정치적, 경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의 접근과 실행이 어떤 분야보다 남녀 불평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영역 지표는 4개로, 전문직, 입법·고위관리직, 의회의원, 여성 장·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은 읽고 쓰는 능력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 측정되고,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의 취학률을 비교한다. 교육 영역은 남녀 격차가 많이 줄어든 영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인적자원의 개발에서 성별 격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된 영역이다. 지표는 4개로 문자해독율과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취학률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원은 대부분 UNESCO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단, 여성의원비율은 IPU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지수산정은 영역별 하위지수 값들을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위지수는 지표의 성별격차에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인 지표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1단계는 남성 대비 여성의 성비를 구한다. ② 2단계는 1단계에서 구한 성비에 연령별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가중치는 남성인구비율의 대한 여성인구비율 즉 (여성인구비율)/(남성인구비율)의 역수로 부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중치 부여는 성격차를 과소대표하지(under-represent)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모든 지표는 최소 격차(성비) '0'에서 최대 격차(성비) '1'로 척도를 표준화 한다. 따라서 최대 격차가 1이상일 경우 1로 재부호화 하게 된다. 이와 같이 '1'로 부호화하는 이유는 지수목적에 의해서 제한된 기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③ 3단계는 영역별 표준화된 지표를 단순 평균하여 영역별 지수 값을 계산한다. 이때 지수계산은 영역별 구성 지표가 최소 2개 이상의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을 때만 산정된다. 따라서 영역에 지표가 2개 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는 GEI 값을 부여받지 못한다. ④ 마지막인 4단계에서는 GEI 값을 산정한다. 지수는 3가지 영역에서 구한 값의 단순평균으로 계산된다.

<표 II-9> GEI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

영역(3개)	지표 (11개)	단위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경제 활동	경제활동 참여율	지표산정방법 = 지표의 성별격차 X 인구가중치 ※ 지표의 성별격차 : = 여성비율/남성비율 ※ 인구가중치 : = 남성인구/여성인구	1/3, 1/3 1/3	(1/3+1/3+1/3)×(1/3)
	비취약 고용			
	추정소득			
여성 권한	전문직		1/4, 1/4 1/4, 1/4	(1/4+1/4+1/4+1/4)×(1/3)
	입법·고위관리직 여성비율			
	의회의원 비율			
	장·차관 비율			
교육	문자해독율		1/4, 1/4, 1/4, 1/4	(1/4+1/4+1/4+1/4)×(1/3)
	초등교육 취학률			
	중등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마. 유엔개발계획 남녀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²⁸⁾

1) 유엔개발계획 남녀평등지수 특징과 지표체계

유엔개발계획(UNDP)은 2014년부터 새롭게 개선한 남녀평등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를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 GDI는 인간개발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본 영역 즉, 건강, 교육, 생활수준에서의 성취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7). 이에 따라 GDI는 해당 국가의 HDI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집계방식에서 벗어나,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과거의 HDI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8)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91-95.

2) 남녀평등지수 부문과 지표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수명과 건강 영역으로는 출생시 기대여명, 교육 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 영역으로는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을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년수이다. 추정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 II-10> GDI 영역과 지표

영역	지표
수명과 건강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birth)
교육(지식접근성) Access to Knowledge	- 25세 이상 성인인구의 평균 교육년수(Mean years of schooling) - 기대 교육년수 (Expected years of schooling)
경제(생활수준) Decent standard of living	- 국민총소득 (GNI에 기반한 1인당 추정소득) (Estimated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자료: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s,

3) 남녀평등지수의 산정방법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을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Institute for Statistics)의 자료와 바로와 리(Barro & Lee, 201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기대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세계노동기구, 유엔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하고 있다(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Technical notes, p. 7)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계산된다.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추정된 여성의 1인당 소득추정은 식 (1)과 같이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그리고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식 (2)와 같이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S_f = \frac{W_f/W_m \cdot EA_f}{W_f/W_m \cdot EA_f + EA_m}, \quad S_m = 1 - S_f \quad (1)$$

여기서, S_f : 여성의 임금비율, S_m : 남성의 임금비율, W_f/W_m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EA_f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비중, EA_m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남성비중

$$GNI_{pcf} = GNI_{pc} \cdot S_f / P_f \quad (1-1), \quad GNI_{pcm} = GNI_{pc} \cdot S_m / P_m \quad (1-2)$$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최솟값과 최댓값을 이용하여, 하위영역지표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분야는 각 지표의 지수 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 값을 취한다. 셋째 단계는 남녀 인간개발지수(HDI) 값을 산정한다. 남녀 인간개발지수 값은 식 (3), 식 (4)와 같이 각각의 성별에 대해서 세 개 분야의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으로 산정할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부문 중에서 부진한 부문이 지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이전 시대수명, 교육, 소득 지수들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기하평균으로 산출하고 있다. 기하평균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 지표가 부진하면 전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식 (5)로 GDI를 산정하는 것이다. 즉, GDI는 남성 인간개발지수 대비 여성 인간개발지수 비율이다.

$$\text{영역지표} = \frac{[\text{실제값(actual value)} - \text{최소값(minimum value)}]}{[\text{최대값(maximum value)} - \text{최소값(minimum value)}]} \quad (2)$$

$$HDI_f = (I_{Healthf} \cdot I_{Educationf} \cdot I_{Incomef})^{1/3} \quad (3)$$

$$HDI_m = (I_{Healthm} \cdot I_{Educationm} \cdot I_{Comem})^{1/3} \quad (4)$$

$$GDI = HDI_f / HDI_m \quad (5)$$

바. 여성지위지수(The Status of Women Index)

1) 여성지위지수 개발 개요

여성지위지수는 인구위기위원회(Population Crisis Committee; PCC)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세계은행과 유엔이 사용하고 있는 지수인데, 동 지수는 보건, 교육, 고용, 혼인과 출산 그리고 사회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인구위기위원회의 지수는 개발도상국의 여성지위가 선진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에 기반을 두고, 선진국과 보다 관련성이 큰 지표만을 최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 스와니대학교의 야스민교수는 여성지위지수의 이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종합지수를 제시하였다.²⁹⁾ 즉, 야스민교수는 인구위기위원회가 개발한 이와 같은 여성지위지수를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종합 여성지위지수를 구축하고, 이 지수를 기반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서열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³⁰⁾ 동 지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여성문제를 모두 반영하는 지표들을 보다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통계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대체 여성지위지수에 기초한 국가와 지역의 순위가 인구위기위원회의 기존 여성지위지수와 상당히 달랐다.

2) 여성지위지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새로운 대체 여성지위지수의 지표체계는 <표 II-11>에서와 같이, 8개 영역과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 지수를 활용하여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긍정적 여성지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여성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8개 영역의 16개 지표는 단순 종합지수 형태로 사용하였다. 각 지표에 대한 개별 국가의 성과는 '1~100'척도로 평가된다. 여기서 '1'은 최저성과를 그리고 '100'은 최고성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대성비의 경우, 상한선인 100은 러시아가 달성한 9.2년에 할당하고, 하한선인 1은 네팔에서 발견한 -1.2년에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9) Yasmeen Mohiuddin는 동 지수를 대체 종합(Alternative Composite: AC) 지수라고 함.

30) Yasmeen Mohiuddin(1996), Country Rankings by the Status of Women Index, The 1996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1996.(The University of the South, Sewanee, Tennessee, U.S.A.)

그리고 개별 국가의 8개 영역 각각에 대한 성과는, 각 영역에 있는 두 개의 지표 순위(ranking)을 평균하여 산정하고, 특정 국가의 종합지수 계산은 8개 영역 지수 값을 산술평균한 결과로서 산정한다. 그러나 각 지표 및 영역별로 산술평균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첫 번째 방법으로 지표가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민총소득 혹은 인간개발지수와 같은 변수가 종속변수인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회귀함수에 있는 지표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기초하여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의 경우에도 종속변수의 선택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지수가 국민총소득 혹은 인간개발지수와 관련되었는지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문가 토론자의 주관적인 의견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밀턴 프리드먼, 더글러스 노스 등에 의해서 검토된 이러한 방법론은 자유지수(Freedom Index)구축에 따른 방식이다.

그리고 여성지위지수의 경우 전체적인 순위를 크게 7가지 즉, 탁월(점수:90~100점), 매우 우수(점수: 80~89.5점), 우수(점수:70~79.5점), 보통(점수: 60~69.5점), 부족(점수: 50~59.5점), 매우 부족(점수: 40~49.5점), 극히 부족(점수: 39.5이하)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표 II-11> 여성지위지수(SWI) 지표체계

영역(8개)	지표(16개)
① 보건 (2개)	기대수명 성비, 출생성비
② 학교교육 (2개)	초등학교 진학률 성비, 고등학교 진학률 성비
③ 성인교육 (2개)	성인문맹률 성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④ 경제활동참가 (2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전체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⑤ 고용조건 (2개)	고임금직종성비(행정 및 관리직의 고임금 직종범주에 종사하는 남성 100인당 여성근로자) 저임금직종성비(사무,판매,서비스직의 저임금 직종범주에 종사하는 남성 100인당 여성근로자)
⑥ 가정생활 (2개)	여성가구주 비율 (총 가구비율로 측정된) 이혼 여성비율 (현재 이혼상태인 25-44세 여성의 백분비인)
⑦ 공공생활과 리더십 (2개)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정부 의사결정직에 여성비율
⑧ 법적 보호 (2개)	투표권 성비(투표권을 가지는 남녀연령차이로 측정) 성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책무(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 / 가맹으로 나타남)

사. 상대적 여성지위지수(The Relative Status of Women Index)

성평등에 대한 국가별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모색한 지수로 남성 지위와 비교되는 여성지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디저크스트라와 한머는 인간개발지수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지수들을 용이 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인간개발지수 하위지표를 사용하면, 절대적인 복지수준으로부터 추출한 성평등지수로 아래와 같은 상대적 여성지위지수를 구축할 수 있다. 식 (3)에서 E_m , E_f 는 각각 남녀 교육성취지수이고, L_m , L_f 는 남녀 기대수명지수 그리고 w^*_f , w^*_m 는 남녀 노동시간 수익률이다.

식 (3)은 다시 식 (4)와 같이 쓸 수 있으며, Y_f 는 근로소득의 여성비율, P_f 는 여성 인구율을 나타낸다. 식 (4)의 등식에서 기대수명과 교육성취 지표들은 UNDP의 GDI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³¹⁾ 상대적 여성지위지수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그래서 만일 식 (5)와 같으면 남녀 간에 평등하다. 이에 비해 만일 $RSW < 1$ 이면, 여성이 차별받고 그렇지 않고 $RSW > 1$ 이면 남성이 차별받는 것을 나타낸다.

$$RSW = \frac{1}{3} \left\{ \frac{E_f}{E_m} + \frac{L_f}{L_m} + \frac{w^*_f}{w^*_m} \right\} \quad (3)$$

$$RSW = \frac{1}{3} \left\{ \frac{E_f}{E_m} + \frac{L_f}{L_m} + \frac{Y_f}{P_f} \right\} \quad (4)$$

$$RSW = \frac{E_f}{E_m} = \frac{L_f}{L_m} = \frac{w^*_f}{w^*_m} = 1 \quad (5)$$

본 연구에서 여성의 상대적 지위지수는 크게 3개의 성평등영역 및 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개발보고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36개 국가의 상대적 여성지위를 산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RSW 지수와 GDI 지수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표 값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상대적 여성지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자의 연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RSW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RSW

31) UNDP(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p. 132. GDI는 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임.

는 절대적인 발전 척도를 통해서 추출한 양질의 성평등지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지위 지수 점수가 해당 국가의 남녀평등수준이 이상적이거나 혹은 양성평등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혹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표 II-12> 상대적 여성지위 지표체계

지수 명	지표	
여성의 상대적 지위 Relative Status of Women	남녀 교육비율 지수	Dijkstra & Hanmer (2000)
	남녀 기대수명비율 지수	
	상대적 남녀 재취업 지수	

아. UNECA(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Gender Satus Index (GSI)

1) 젠더지위지수 개발 개요

아프리카 젠더개발지수는 두 가지 부문 즉, 젠더지위지수(Gender Status Index)와 아프리카 여성의 발전 스코어보드(AWPS)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젠더지위지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젠더관계 문제를 다룬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 여성의 진척 스코어보드는 아프리카 정부의 여성(젠더)정책의 성과와 관련된 정성적인 이슈를 표집한다. 발전 상태를 3점 척도(three-point scale)로 평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정성적인 이슈들은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스코어보드는 주요한 국제 및 아프리카 협약과 헌장(Charter)을 참조한다.

아프리카 젠더개발지수는 인간개발과 빈곤을 평가하는 다른 지수, 인간개발지수 혹은, 인간빈곤지수와 같은 개별 국가의 국민소득과 관련된 지수 등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개발기구(UNDP)는 이러한 지수들을 매년 산정하고 있고, 젠더지위지수와 여성의 발전 스코어보드는 모두 사용자 친화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2) 젠더지위지수 지표체계 및 지수 산정방법

아프리카의 젠더지위와 관련된 방법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지수를 검토하고, 젠더지위지수를 정의하기 위한 첫 발자국으로 그들의 강점과 한계를 식별하는 활동을 한다. 젠더지위지수는 세 가지 영역(Block) 즉, 사회적 권력, 경제적 권력 그리고 정치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 지수 개발과정에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센이 역량, 기회 그리고 기관(agency)으로 구분한 것을 따른 것이었다. 센에 의하면 개발과정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증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식이 있어야만 하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만 함과 동시에 개발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의견 혹은 정치권력(기관)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Sen, Amartya, 1985).³²⁾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해서 젠더지위지수의 지표체계를 <표 II-13>과 같이 구축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적 권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영역은 교육과 보건 부문에 대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경제적 권력으로 소득과 시간사용, 고용 그리고 자원접근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정치적 권력으로 사적 및 공적영역에 속하는 지표들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젠더지위지수는 크게 3개 블록, 7개 구성요소, 13개 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4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³³⁾

젠더지위지수의 각 지표 값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주어진 변수에서 남성 성취 대비 여성 성취를 비교해서 산정한다. 예컨대, 특정한 국가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진학률이 35% 그리고 남학생 진학률이 53%이면, 지표 값은 $35/53 = 66\%$ 혹은 0.66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표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성평등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44개 지표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8개 지표는 예외적으로 지표 값을 산정한다. 즉, 하위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보건의 경우 5세 미만 아동의 '저성장', '저체중', '사망률' 그리고 '15-24세 인구 중 HIV/AIDS 파

32) Sen, Amartya(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Lectures in Economic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2011), The African Gender and Development Index, p. 16 재인용.

33) 초기 지표체계는 42개 지표, 12개 하위 구성요소, 7개 구성요소로 구축되었다.

급률’, 소득의 경우 ‘빈곤선 이하의 여성비율’, 시간사용의 경우 ‘비시장경제활동’, ‘가사·돌봄·자원봉사 활동시간’, 고용의 경우 ‘청년실업률’이다. 전문가의 검토회의에서는 이들 8개 지표의 지표 값 산정을 식 (1)과 같이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여기서 I 는 개별 지표의 지표 값 그리고 r_w 과 r_m 는 각각 여성에 대한 비율과 남성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예컨대 청년실업률 지표의 경우 청년여성실업률이 14.1%, 청년남성실업률이 8.5%이면, 지표 값은 $(100-14.1)/(100-8.5) = 93.9\%$ 혹은 0.939가 된다.

$$I = \{ (1 - r_w) / (1 - r_m) \} \tag{1}$$

<표 II-13>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젠더지위지수 지표체계³⁴⁾

영역 (블록)	분야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지표)
사회적 권력 (역량)	교육	진학률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이수율 (초등 1학년 진학 학생 중 최종학년에 도달한 학생 비율)
		문해율 (15-24세 인구의 문해율)
	보건	아동건강(5세 미만 저성장, 저체중, 사망률) HIV/AIDS(15-24세 인구 중 HIV/AIDS 파급률, Anti-retroviral(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접근
경제적 권력	소득	임금(농업, 공공서비스, 공식, 공식부문 종사 임금)
		소득(비공식 기업, 소규모농가기업 종사 소득, 빈곤선 이하 여성비율)
	시간사용과 고용	시간사용(시장경제활동시간, 비시장경제활동시간, 가사·돌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
		고용(비농업부문의 임금고용 중 여성비율, 청년실업률)
	자원접근성	생산수단(시골 토지·농장, 도시 정원·주택, 축산 등의 소유권, 대부 접근성)
경영(고용주, 자영업자, 고위공무원, 전문적 기업연합 구성원)		
정치적 권력	공적영역	(국회의원, 국무위원, 고위공무원, 치안대 고용, 고등법원·하급법원, 전통 및 종교법원의 판사)
	사적영역	(지방의회의원, 전통적인 남녀 통치자 수) (정당, 노동조합, 경영자협회, 비정부기구의 기관장 혹은 관리자)

34)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2011), 『The African Gender and Development Index 2011 -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Africa』, pp. 17-18.

그리고 젠더지위지수의 산정에서 먼저 각 기본 지표들은 각각의 하위 구성 요소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각 하위 구성요소는 각 구성요소에 부여된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더 나아가서 각 구성요소는 각각의 블록(영역)에 부여된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젠더지위지수의 지표 값은 각 블록의 지표 값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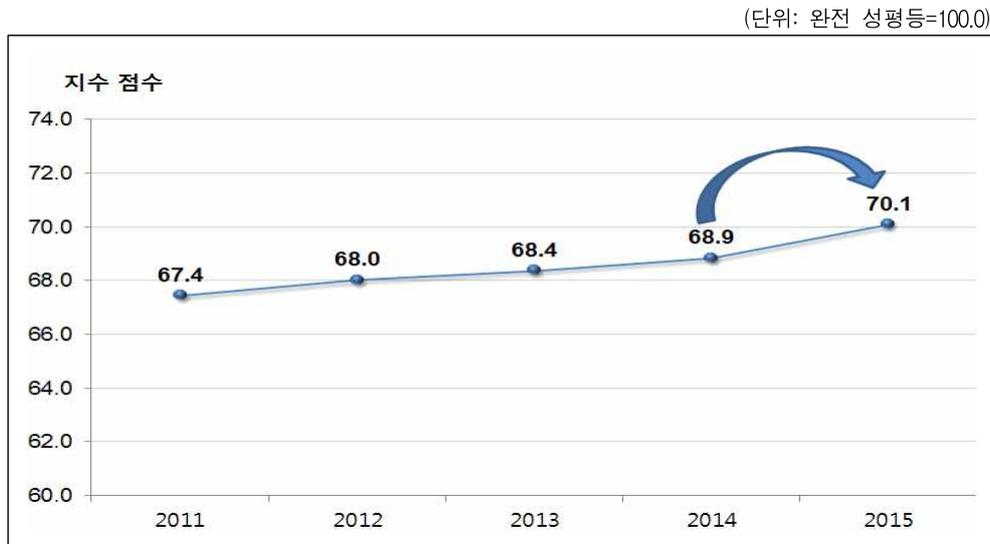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49
-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57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³⁵⁾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 수준은 2011년 67.4에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5년에는 성평등지수 값이 70.1로서 2011년 대비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이후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2014~2015년으로 1.2p 증가하였다.³⁶⁾

분야별로 국가 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5년 기준 보건 분야가 9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93.4), 문화·정보 분야(87.1), 복지 분야(71.6)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이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로 25.4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 55.4, 가족 분야 70.0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가 71.5를 나타내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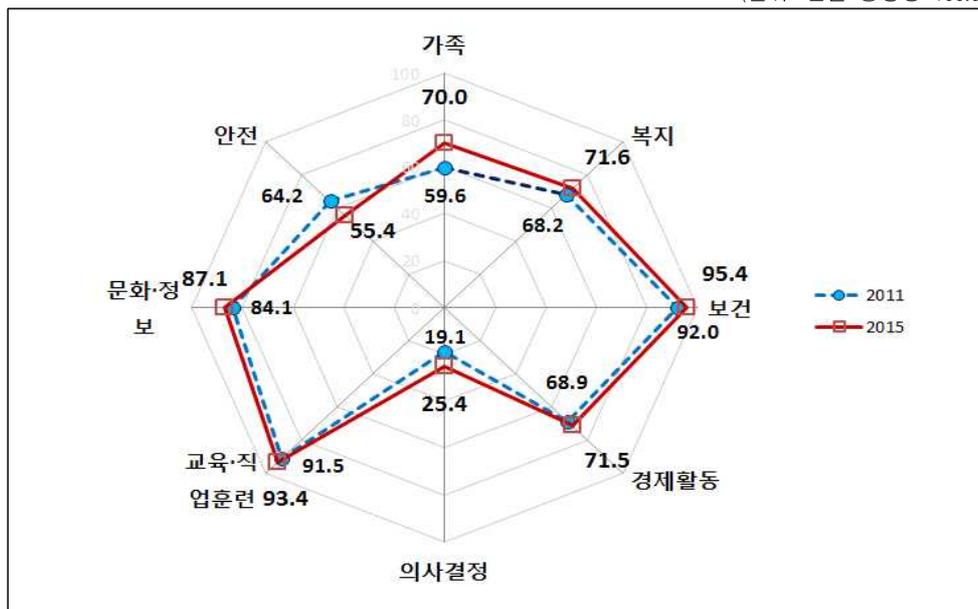
35)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혹은 추정)년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36) 국가성평등지수의 값은 0.0(완전 불평등)부터 100.0(완전 평등) 사이에 위치하며, 지수 값이 클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011년과 2015년의 국가 성평등지수의 분야별 현황과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III-2>와 같았다. 성평등 수준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성평등지수 값이 10.4p 증가한 가족 분야였고, 그 다음은 의사결정 분야로 동 기간에 지수 값이 6.3p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도 성평등지수 값이 각각 3.4p 증가하였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성평등 수준의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1년 이후 성평등 수준이 가장 작게 개선된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문화·정보 분야로 지수 값이 1.9p와 3.0p 증가하였다. 그리고 안전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분야로 지수 값이 8.8p 하락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개선속도가 낮은 것은, 이들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것은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는 증가하는데 비해 남성은 소폭 감소하는데 기인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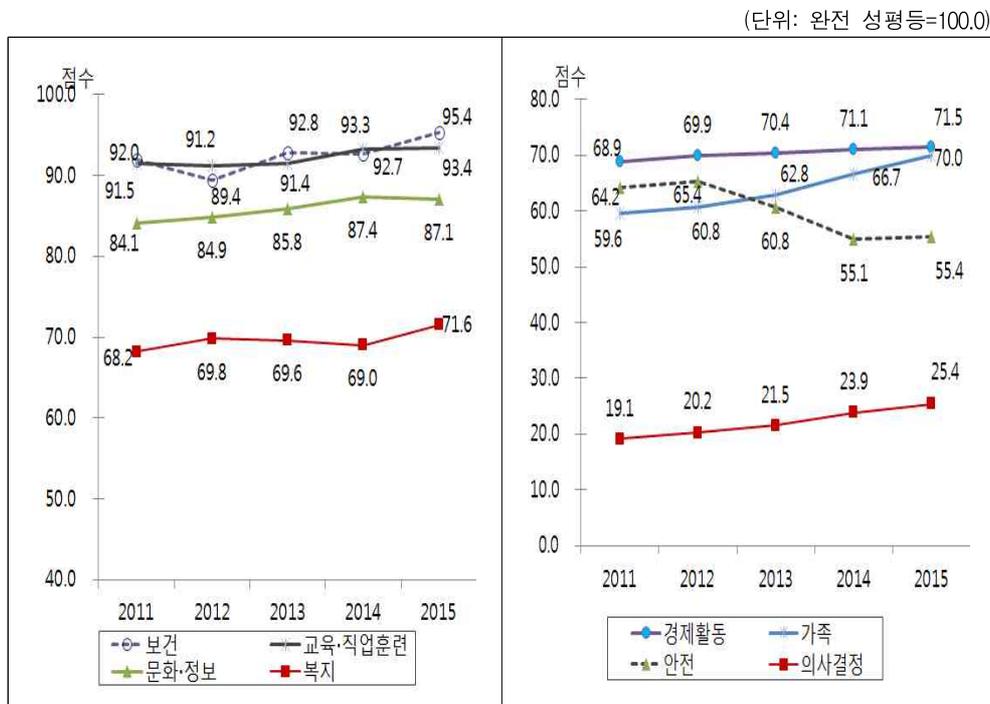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II-2] 2011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분석

37)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여성 2011년 23,544명에서 2015년 29,617명, 남성은 2011년 4,553명, 2015년 3,528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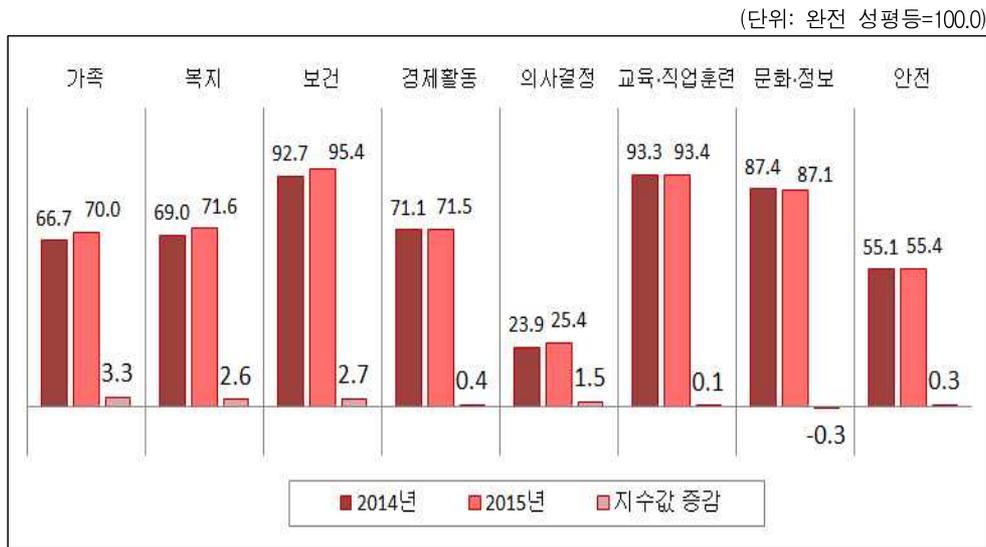
또한 2011~2015년 동안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그림 III-3>의 좌측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보건 분야와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2011년 이후 연도별로 다소 등락을 보이기는 하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평등 수준이 계속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에 소폭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도 성평등 수준이 2012~2014년 기간에는 소폭 악화되었으나 2015년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그림 III-3>의 우측을 보면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나머지 경제활동 분야, 가족 분야,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III-3] 분야별 성평등지수 수준의 변화 추이

그리고 성평등지수 분야별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여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분석하면, 2014년 이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3.3p 증가)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개선된 분야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로 각각 2.7p, 2.6p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문화·정보 분야는 지수 값이 오히려 0.3p 감소되었고, 교육 및 직업훈련, 안전, 경제활동 등의 분야는 지수 값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2014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

나. 정책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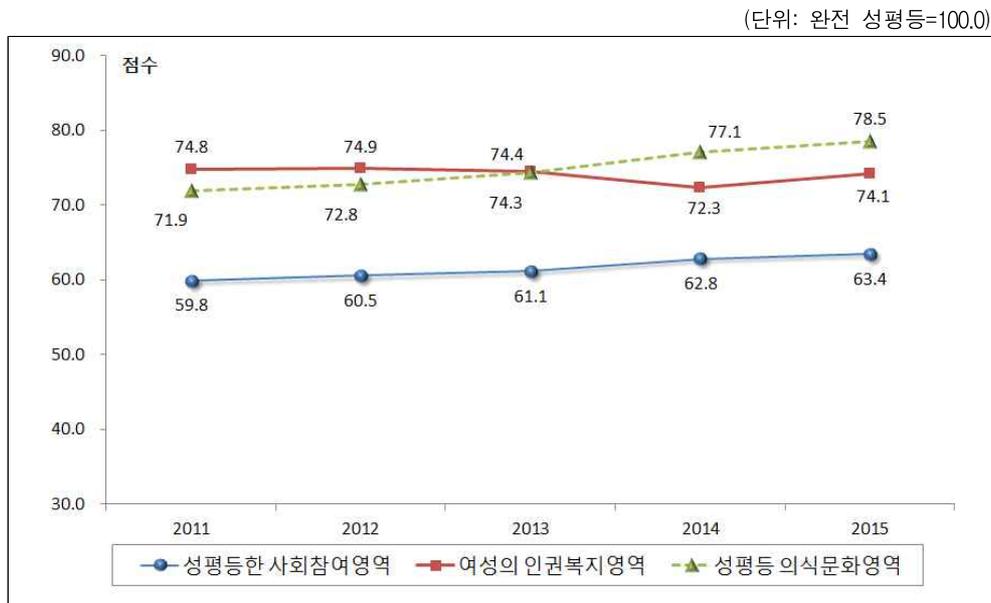
1)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78.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74.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3.4) 순이었다.

정책영역별로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71.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74.3 그리고 2015년 78.5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하위지표인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 값이 2011년 84.1에서 2015년 87.1로 3.0p가 증가하고, 가족 분야 지표 값도 2011년 59.6에서 2015년 70.0으로 10.4p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59.8에서 2015년 63.4로 증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의사결정 분야 지표 값이 2011년 19.1에서 2015년 25.4로 6.3p 증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74.8에서 2013년 74.4, 2014년 72.3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5년에는 지표 값이 74.1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 영역에 속하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지표 값이 2011년 각각 92.0, 68.2에서 2015년 각각 95.4, 71.6으로 높아진데 비해, 안전 분야 지표 값이 2011년 64.2에서 2015년 55.4로 8.8p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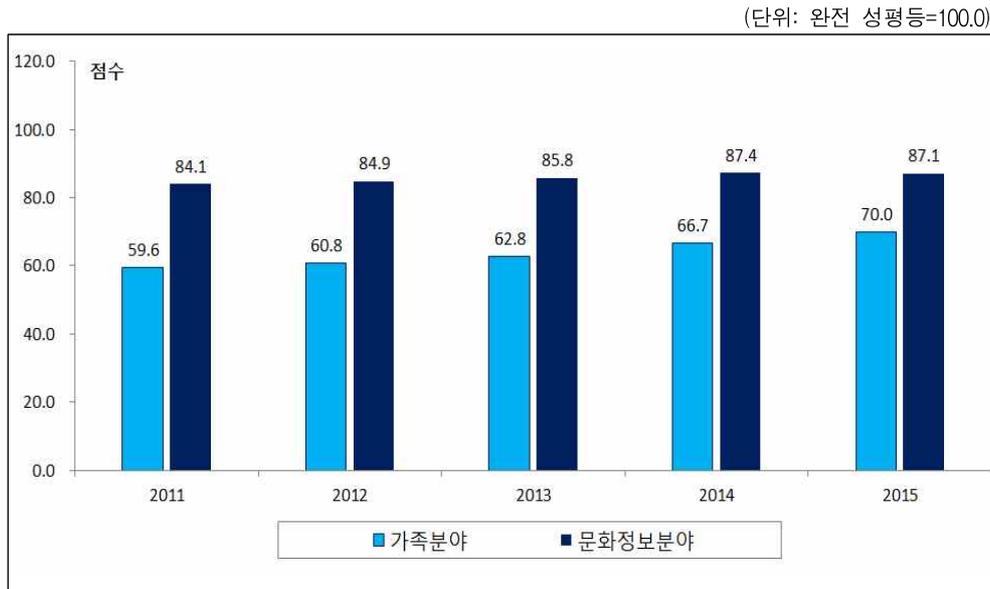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5]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기준으로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 값(87.1)이 가족 분야(70.0)보다 더 높았다. 또한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지표 값의 변화추이를 보면,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59.6에서 2013년 62.8 그리고 2015년에는 70.0으로 급증하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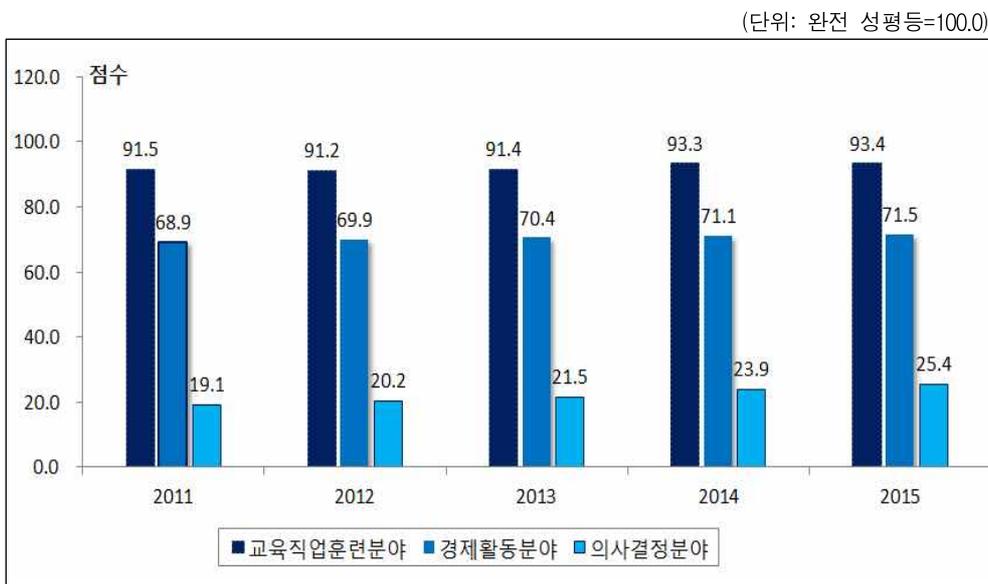
가족 분야의 이러한 성평등지수의 증가는 앞에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동 분야의 하위지표인 육아휴직 성비 지표 값이 2011년 24.7에서 2015년 59.1로 급증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지표 값도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육아휴직자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가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 값도 2011년 84.1에서 2013년 85.8 그리고 2015년에는 87.1로 급증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동 분야의 하위지표인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그리고 성별정보화 격차 지표 값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015년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큰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3.4이었고, 그 다음은 경제활동 분야로 71.5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 25.4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수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91.5에서 2013년 91.4 그리고 2015년에는 93.4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 분야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인 직업교육훈련경험자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86.5에서 2015년 91.1로 소폭 증가하였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성비의 지표 값은 거의 완전 성평등 수준에 도달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7]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도 지수 값이 2011년 68.9에서 2013년 70.4 그리고 2015년 71.5로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위지표인 성별 임금격차의 지표 값이 2012년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동 분야의 또 다른 하위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와 상용직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각각 70.9, 72.5에서 2015년 각각 73.7, 77.9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분야도 지수 값이 2011년 19.1에서 2013년 21.5 그리고 2015년 25.4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 분야의 하위지표인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33.0에서 2015년 52.7로 급증하였고, 또한 나머지 3개의 하위지표인

국회의원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그리고 관리자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평등 수준을 제고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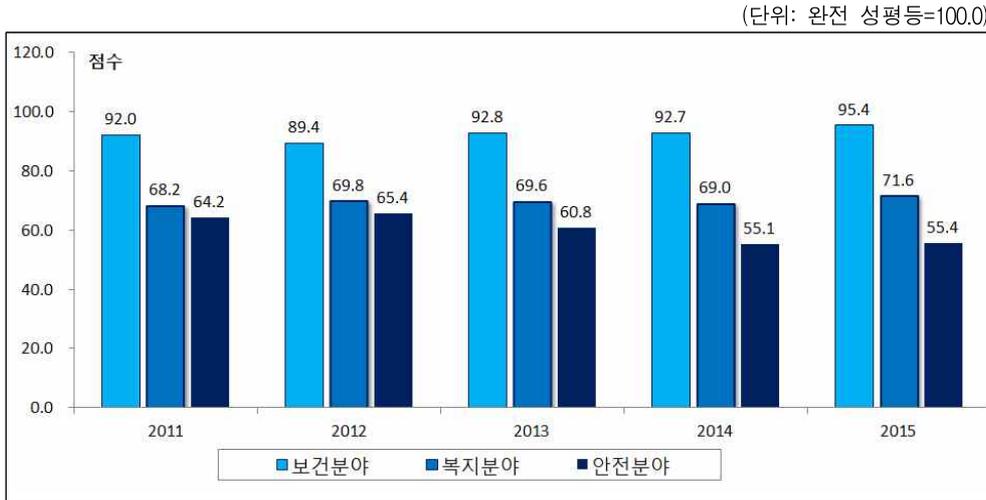
4)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성평등지수 값이 가장 큰 분야는 2015년 기준으로 보건 분야로 95.4이었고, 그 다음은 복지 분야로 71.6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는 55.4로 가장 낮았다.

동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과 그 변화 추이를 분야별로 보면, 먼저 보건 분야의 경우 하위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83.0에서 2015년 92.8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 성비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각각 2011년 96.9, 96.1에서 2015년 각각 97.0, 96.3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즉, 보건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 분야의 하위지표로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가구주 성비, 장애인 고용률 성비가 있다. 이들 하위지표의 동향을 보면 먼저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를 보면 전체 가입자 중 남성이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여성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서 동 지표 값이 2011년 69.2에서 2015년 79.4로 높아졌다. 그리고 비빈곤 가구주 성비의 경우 지표 값이 2011년 84.8에서 2015년 88.3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0.7에서 2014년에는 40.1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는 47.0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에 속하는 하위지표는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가 있는데, 이들 지표 값은 2011년 각각 69.6, 58.8에서 2015년 각각 65.2, 45.7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즉,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건수가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주: 분야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지표 값임.

[그림 III-8]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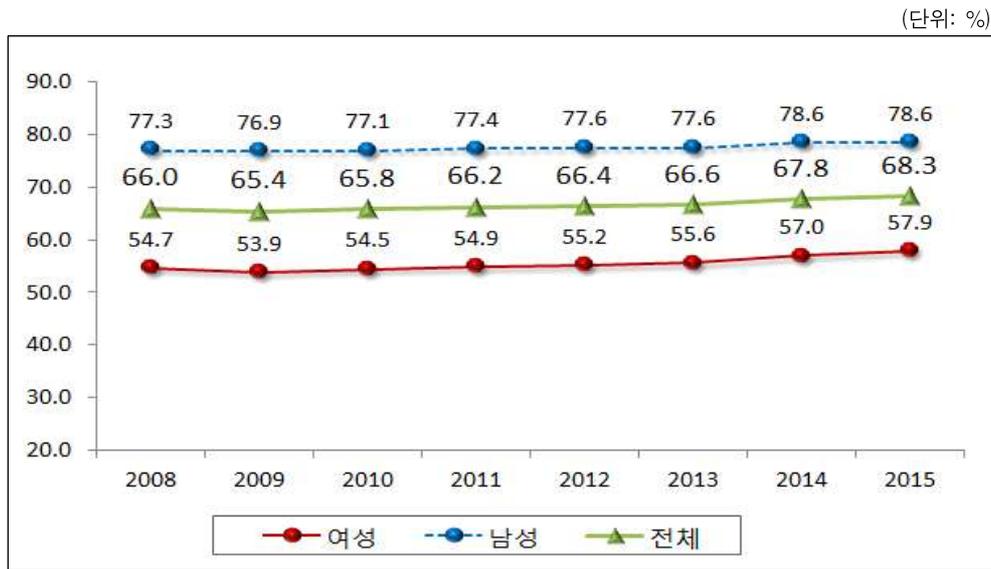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어 2011년 68.9에서 2014년 71.1, 2015년 71.5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8개 분야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경제활동 분야에 속하는 세부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상용직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66.0%에서 2009년 65.4%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보면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77.1%에서 2012년 77.6%로 증가하였고 또한 2013년 77.6%에서 2015년 78.6%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은 2010년 54.5%에서 2012년 55.2%로 증가하였고 또한 2013

년 55.6%에서 2015년 57.9%로 남성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 참가율 성비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70.9에서 2014년 72.5, 2015년 73.7로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9]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남성근로자 평균 월급 여충액은 2008년 2,265천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2,361천 원 그리고 2014년 2,761천 원, 2015년 2,837천 원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 월급여충액을 보면 2008년 1,413천 원으로 남성임금의 62.4%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2010년에는 1,477천 원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742천 원, 1,781천 원으로 임금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았다.³⁸⁾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2008년 62.4%에서 2009년 62.3%로 전년에 비해 미미하게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 임금격차가 상당히 개선되어 2012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64.4%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다시 성별 임금격차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여 2015년에는 62.8%를 나타내었다.

38)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인이상 사업체, 월급여충액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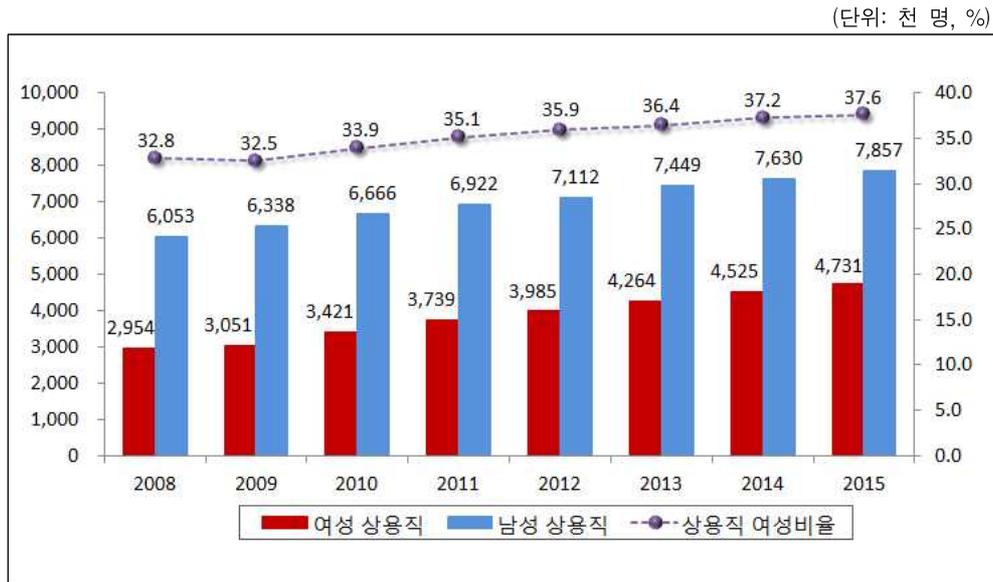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III-10] 연도별 성별 임금격차 추이

경제활동 분야의 마지막 세부지표인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상용직 근로자 지표를 보면, 여성 상용직 근로자는 2008년 2,954천 명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3,421천 명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525천 명, 4,731천 명이 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 상용직 근로자는 2008년 6,053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6,666천 명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7,630천 명과 7,85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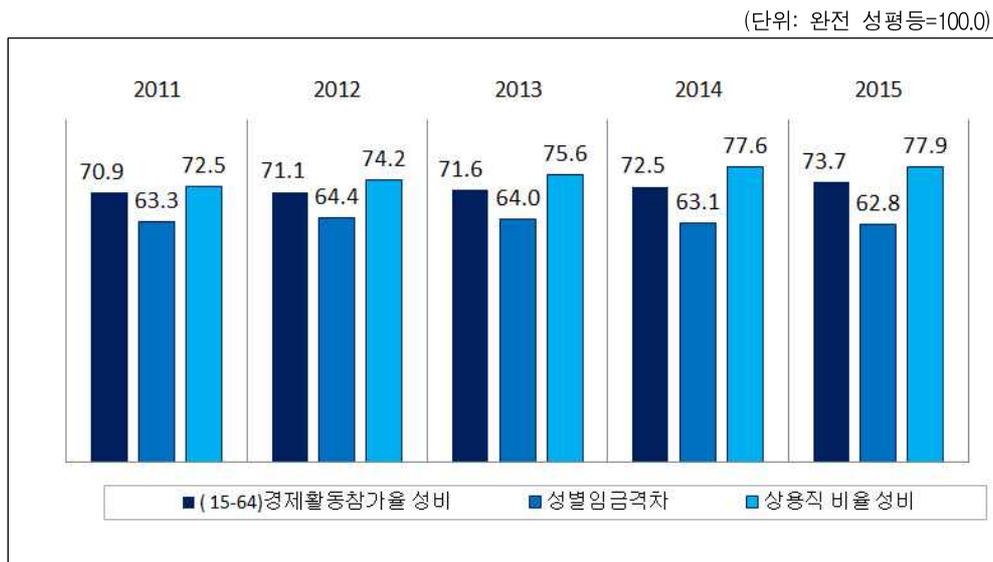
그리고 전체 상용직 근로자 중 여성 상용직 근로자 비율을 보면 2008년 32.8%에서 2010년 33.9%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7.2%, 37.6%로 증가하였다.³⁹⁾ 즉,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용직 중 여성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72.5에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7.6, 77.9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39) 전체 상용직 근로자 중 여성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 상용직/전체 상용직'을 나타내고, 여성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 상용직 근로자/여성 임금근로자'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11]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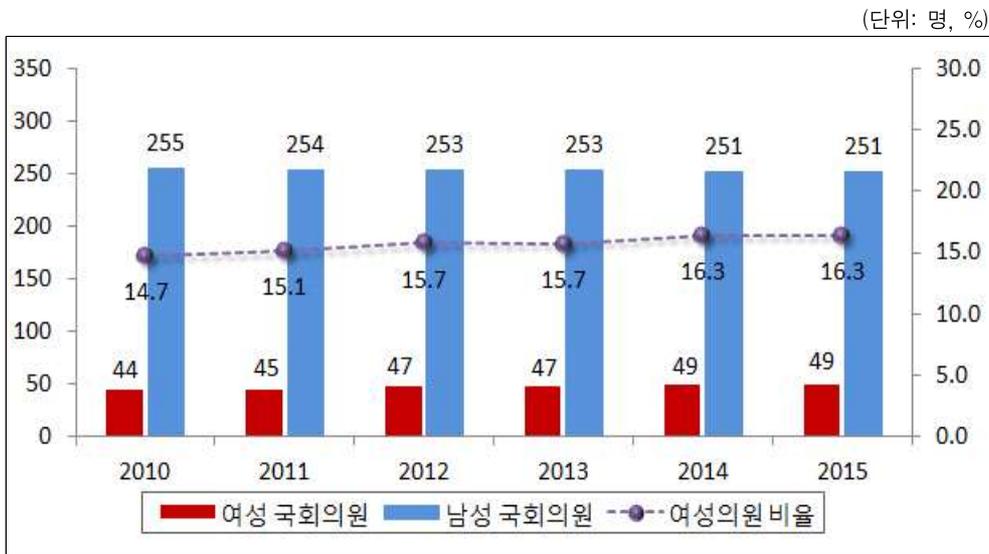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12]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를 통해서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상용직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72.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77.9로 5.4p 증가하여 성평등수준을 제고시켰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70.9에서 2015년 73.7로 2.8p 증가하여 성평등 수준을 개선시켰다. 이에 비해 성별 임금 격차의 지표 값은 2011년 63.3에서 2015년 62.8로 0.5p 감소되어, 성평등 수준을 소폭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의사결정 분야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IPU 통계.

[그림 III-1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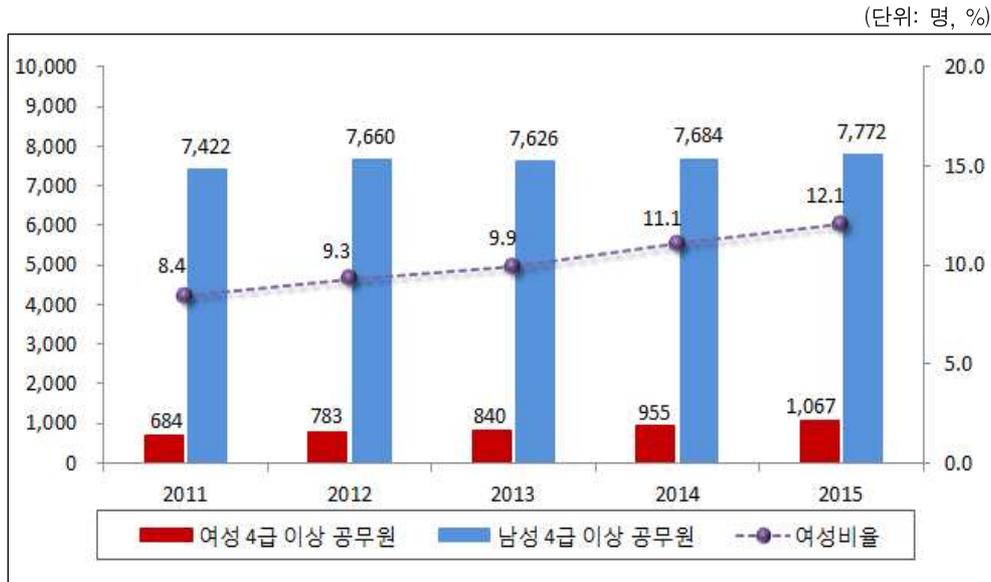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2011년 19.1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 20.2에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3.9, 25.4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은 8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를 보면 먼저 국회의원 성비 지표의 경우, 2010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 여성이 44명으로 여성의원비율은 14.7%이었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2008년 이후부터 보궐 선거 혹은 전국구 의원 승계 등으로 인해

여성비율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 여성 국회의원 수는 44명(14.7%)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7명(15.7%)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9명(16.3%)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17.1에서 2014년과 2015년에는 18.9로 미미하나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 지표인 4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11년 68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2년 783명, 2014년과 2015년 각각 955명, 1,067명이었다. 그리고 남성 4급 이상 공무원도 2011년 7,422명, 2013년 7,626명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7,684명과 7,772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2015년 동안에 남녀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를 보면 남성은 동 기간에 연평균 1.2% 증가하는데 비해, 여성은 연평균 11.8%로 급증(2011년 684명에서 2015년 1,06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011년 8.4%에서 2013년 9.9% 그리고 2015년은 12.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10.4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11.9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2.9와 14.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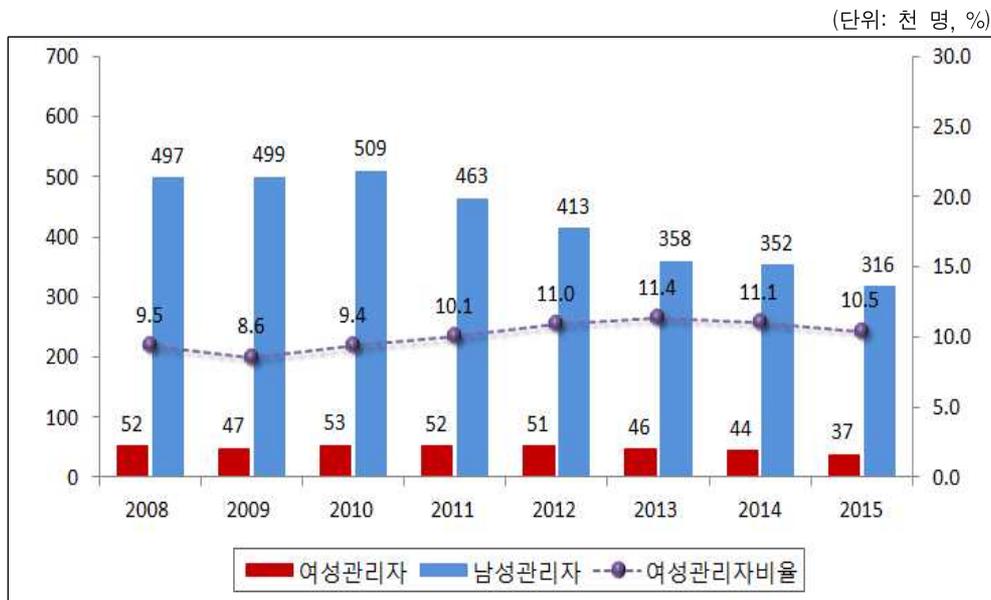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통계 인사통계」.

[그림 III-14]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인 관리직 수를 보면,⁴⁰⁾ 2008년 549천 명에서 2014년 397천 명 그리고 2015년 353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성별로 관리자 변화 추이를 보면 여성관리자 수는 2008년 52천 명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 2014년과 2015년 각각 44천 명, 37천 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관리자는 2008년 497천 명에서 2010년 509천 명까지 소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 2014년과 2015년 각각 352천 명, 316천 명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전체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 비율은 2008년 9.5%에서 2013년 1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는 소폭 감소하여 2015년에는 10.5% 수준이었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에 남성 관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관리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15.8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13년 17.8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여 2014년과 2015년 각각 17.2, 16.0이었다.⁴²⁾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15] 성별 관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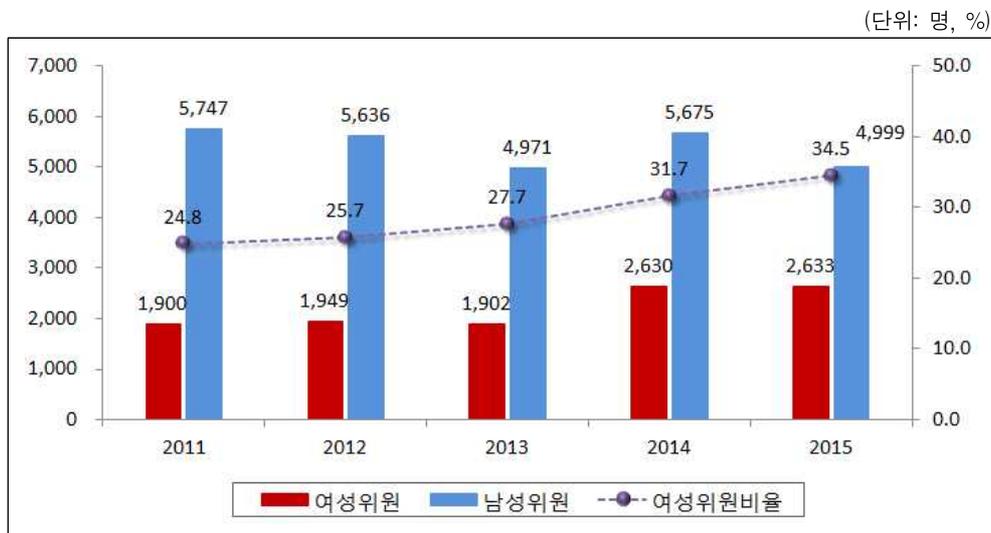
40) 통계청 제6차 표준직업분류체계는 2007년부터 시행됨.

41) 전체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 비율이란 '여성관리직 취업자/전체 관리직 취업자'x 100임.

42) 관리자 성비는 (여성관리자 취업자수/남성관리자 취업자수)x(15세 이상 남성취업자 수 / 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수)x100을 나타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인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비율을 보면, 여성위원은 2011년 1,900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과 2015년 각각 2,630명, 2,633명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위원은 2011년 5,747명에서 2013년 4,971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부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비율은 2011년 24.8%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5년 34.5%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33.0에서 2013년 38.3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6.4, 5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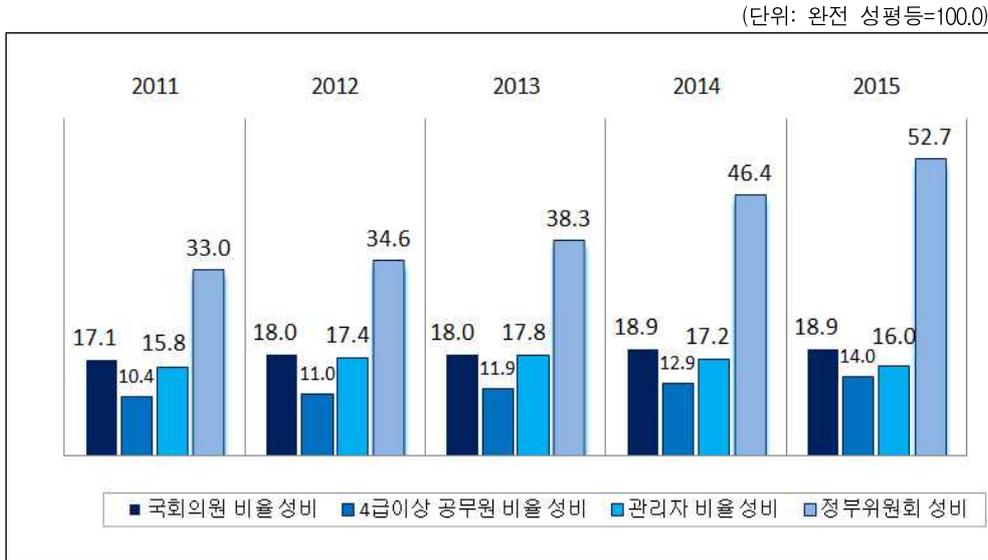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16]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이상과 같이 의사결정 분야의 지표 값과 그 변화를 보면,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수는 급증하는 반면에 남성위원은 등락은 보이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이후 급증하였고, 성평등 수준이 지난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지표 값의 경우 2011년 10.4로 상당히 낮았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2015년 14.0로 3.6p 증가하였고, 국회의원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17.1에서 2015년 18.9로 1.8p 그리고 관리자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15.8에서 2015년 16.0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 분야의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8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았으나, 4개의 세부지표 값이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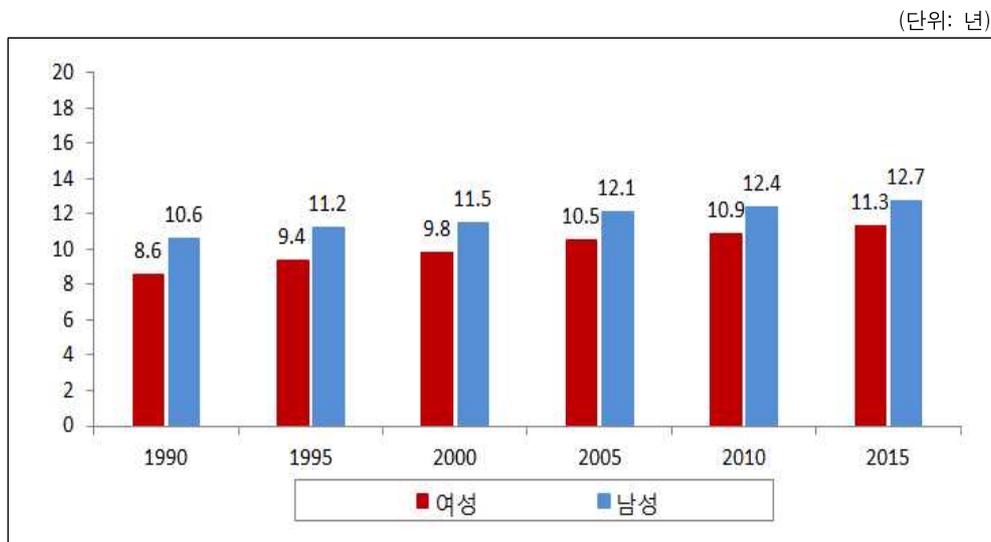
[그림 III-17]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5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11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91.5에서 2012년의 91.2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2년부터 소폭 증가하여 2014년 93.3에서 2015년은 93.4로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먼저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여성은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 그리고 2015년 11.3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05년 12.1년, 2010년 12.4년 그리고 2015년 12.7년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년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여성은 0.8년, 남성은 0.6년 증가하여,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 증가기간이 남성보다 약간 더 길었다. 이로 인해 평균 교육년수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8.1에서 2014년 88.8 그리고 2015년 89.0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해당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율로 측정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은 <그림 III-19>와 같이 최근 남녀 모두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남성 진학률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진학률은 2009년 82.4%에서 2010년 80.5% 그리고 2012년 74.3%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미미하게 상승하여 2015년 74.6%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 진학률은 2009년 81.6%에서 2010년 77.6% 그리고 2013년 67.4%로 하락했으나, 2014년 67.6%로 소폭 반등하였다가 2015년 다시 67.3%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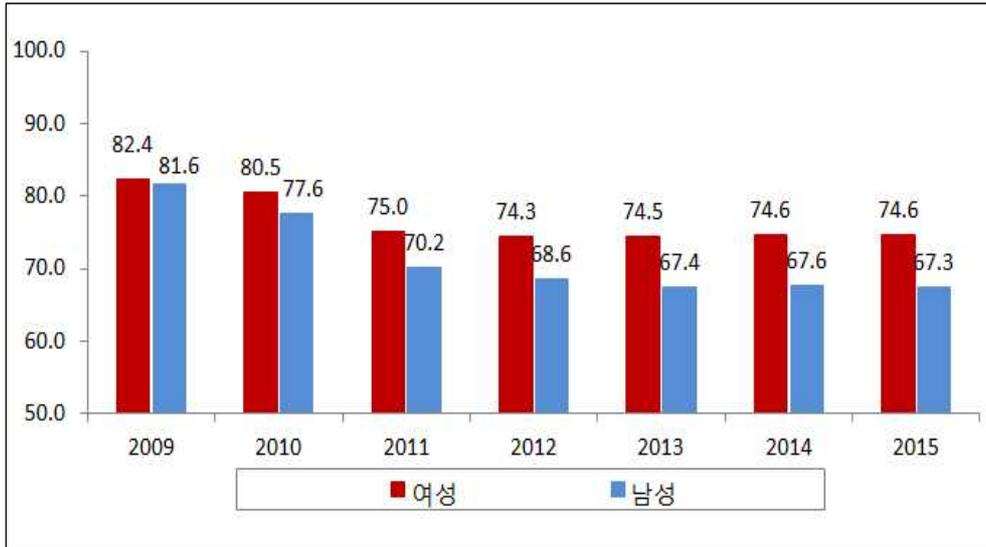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III-18] 성별 평균 교육년수

남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2010~2015년 동안에 연평균 1.5%p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에 남성은 2.8%p 감소하여, 고등교육기관 여성 진학률이 남성보다 더 높아졌다.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의 지표 값은 거의 완전평등수준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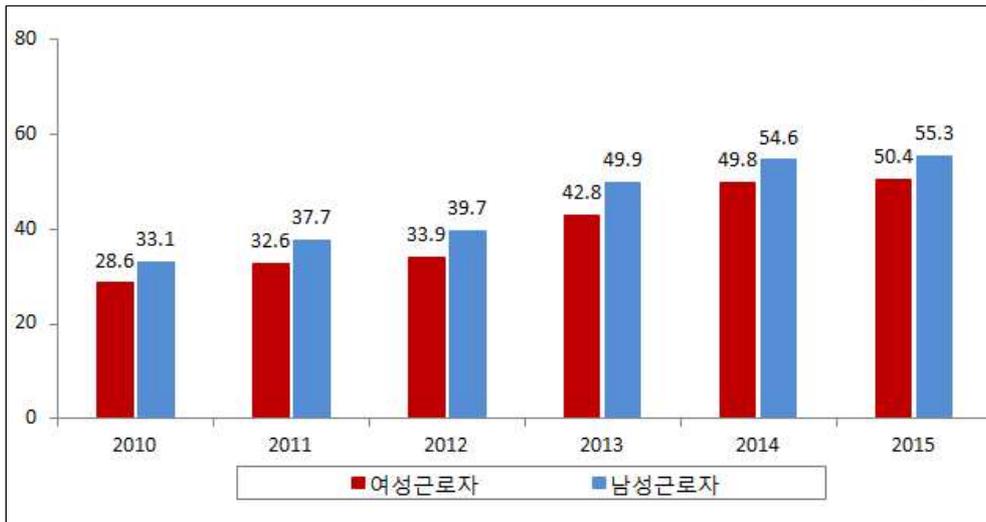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그림 III-19]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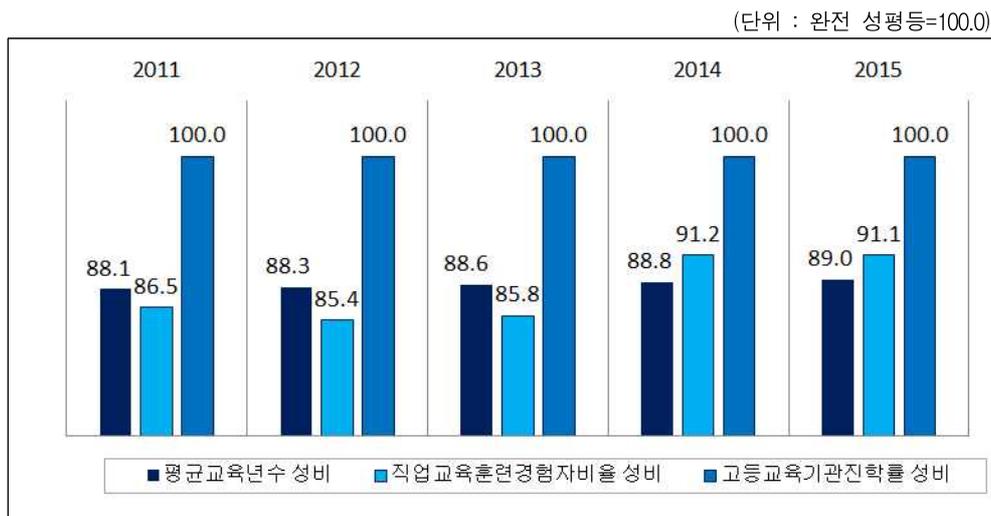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원자료 분석.

[그림 III-20] 성별 직업교육훈련경험자 비율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지표를 보면 남성근로자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2010년 33.1%이었는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49.9% 그리고 2014년 54.6%, 2015년에는 55.3%이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2010년 28.6%, 2013년 42.8%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49.8%, 5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낮았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의 남녀격차는 큰 차이가 없어서,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6.5에서 2013년 85.8 그리고 2015년 91.1로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지표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완전성평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가 2011년 91.5에서 2015년 93.4로 급증함에 따라 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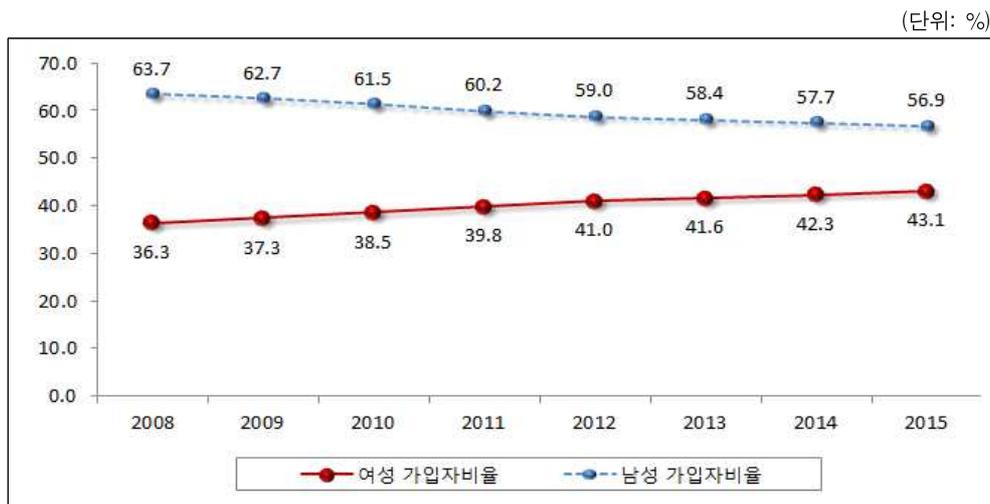
[그림 III-21]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네 번째로 중간 정도 수준에 속했다. 동 분야의 지수 값은 2011년 68.2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해서 상승추세를 보였다. 즉, 2012년에는 69.8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69.0, 71.6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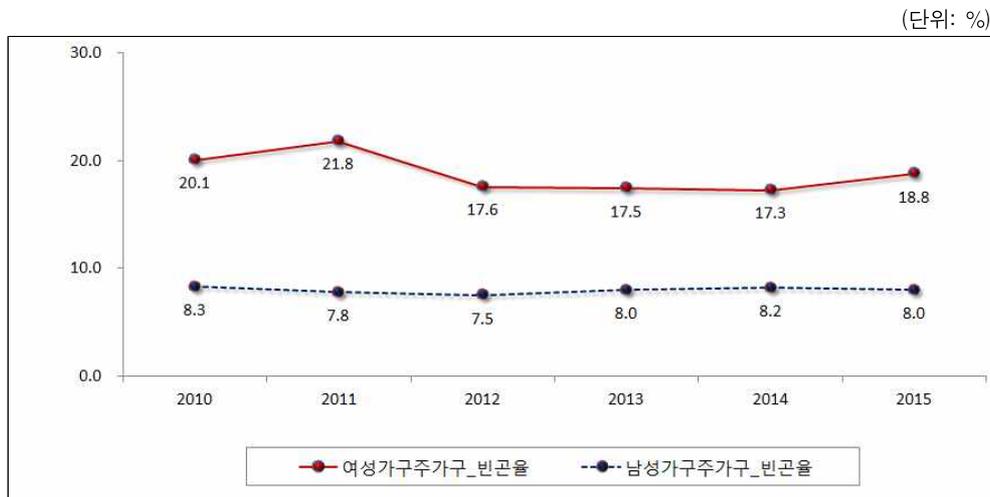
복지 분야 세부지표를 보면 먼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 추이를 성별로 보면,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 중 남성 가입자 비율은 2008년 6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61.5%, 2013년 58.4% 그리고 2015년에는 56.9%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전체 가입자 중 여성 가입자 비율을 보면 2008년 3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8.5%, 2013년 41.6% 그리고 2015년 43.1%을 나타내었다. 즉, 2010~2015년 동안에 성별 가입률 현황을 보면 남성가입자 비율은 연평균 1.5% 감소한데 비해서, 여성은 연평균 2.3%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가입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69.2에서 2013년 74.6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76.9, 79.4로 크게 높아졌다.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그림 III-22]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추이

남녀가구주의 빈곤율을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율⁴³⁾은 2010년 20.1%에서 2011년 21.8%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2년 17.6%, 2014년 17.3%이었고, 2015년에는 미미하게 증가하여 18.8%이었다. 한편,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2010년 8.3%에서 2012년 7.5%로 하락한 이후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8.2%, 8.0%로 여성가구주와 달리 정체상태를 보였다. 이에 비 빈곤 가구주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4.8, 2013년 89.7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90.1, 88.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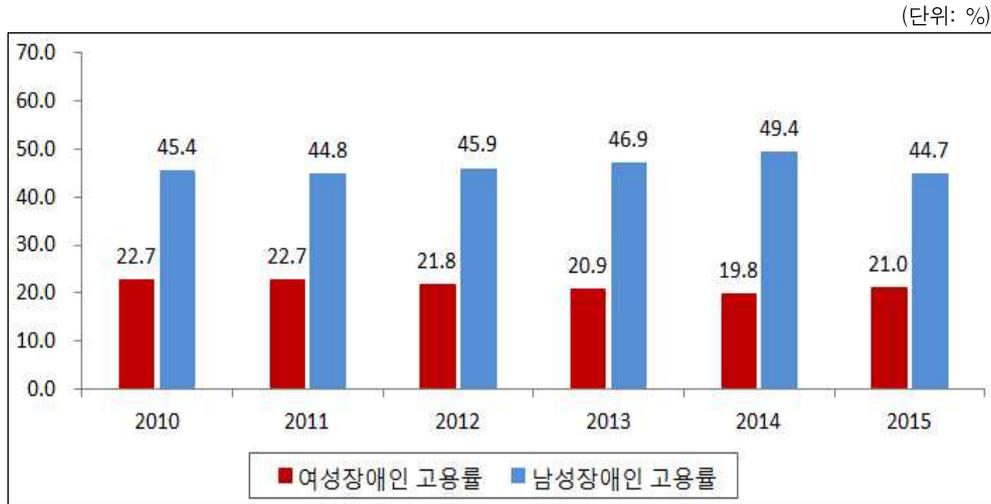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III-23] 성별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장애인 고용률 지표를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010년 22.7%에서 2012년 21.8% 그리고 2014년에는 19.8%로 점진적으로 하락한 뒤에, 2015년 21.0%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2010년 45.4%에서 2012년 45.9%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4년 49.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고용률이 44.7%로 전년대비 4.7%p 하락하였다. 이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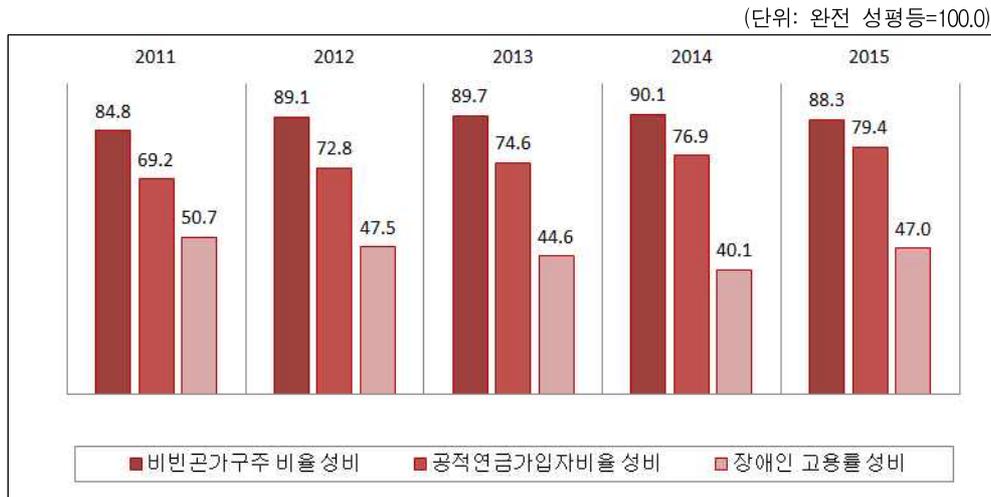
43) 본 연구에서 시장소득은 시장(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를 의미함. 그리고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을 의미함. 즉, 가구원을 고려하여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을 의미함.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48.

해서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0.7에서 2012년 47.5로 소폭 하락하고, 그 이후 2013년 44.6, 2014년 40.1으로 급감하였으나 2015년에는 47.0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그림 III-24] 성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25]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지금까지 분석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현황을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이 2011년 69.2에서 2013년 74.6, 2014년 76.9 그리고 2015년에는 79.4로,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비 빈곤가구주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4.8에서 2013년 89.7, 2014년 90.1로 증가한 이후, 2015년에는 88.3으로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0.7에서 2014년 40.1로 급감한 뒤, 2015년에 47.0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지표 값의 변동으로 인해서 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크게 개선되었다.

2) 보건 분야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95.4를 기록하여,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개별 성평등지표 값의 변화를 보면, 먼저 건강 관련 삶의 질(EQ-5D⁴⁴) 지표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0년 0.931이었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12년에는 0.934로 상승했으나 2013년 0.929로 소폭 감소했고 이후 2014년과 2015년에는 다시 반등해 각각 0.934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2010년 0.966을 보인 후, 2011년 0.962로 소폭 감소하였고,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0.96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96.9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97.0이었다.

<표 III-1> 성별 EQ-5D 지수 추이

(단위: 점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0.948	0.947	0.948	0.945	0.947	0.947
여성	0.931	0.932	0.934	0.929	0.934	0.934
남성	0.966	0.962	0.963	0.962	0.963	0.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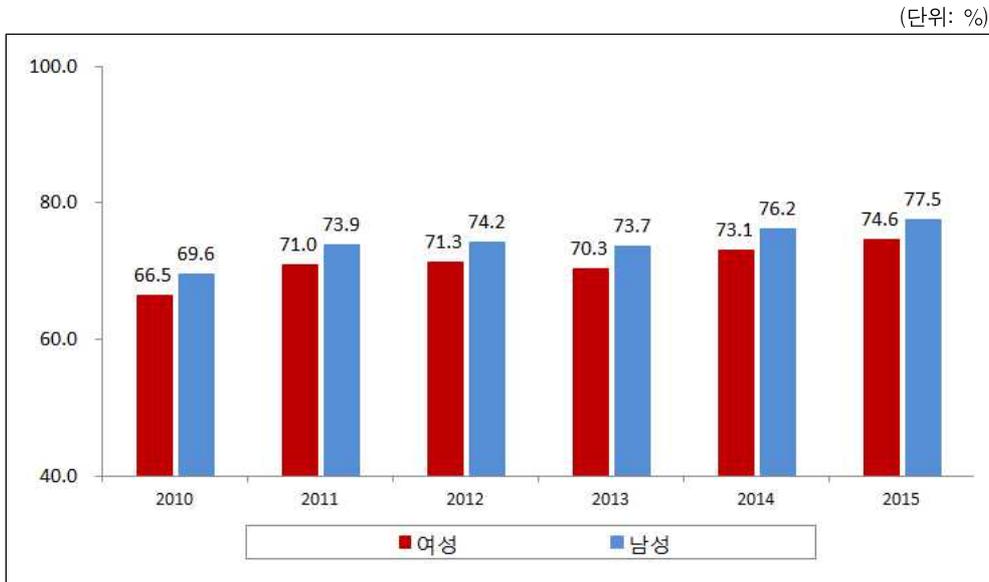
주: 2015년 남성과 여성의 EQ-5D 지수는 추정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44)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5가지 차원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5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현상을 3개 수준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함.

성별 건강검진수검률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1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수검 인원 비율은 2011년 71.0%이었고, 그 후 다소 증가하여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71.3%, 70.3%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4년 73.1%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여 2015년 74.6%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남성은 2011년 73.9%에서 2012년 74.2%로 소폭 증가하였고, 그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73.7%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76.2%, 77.5%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검진 수검률의 남녀격차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1년 96.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96.3을 기록하였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그림 III-26]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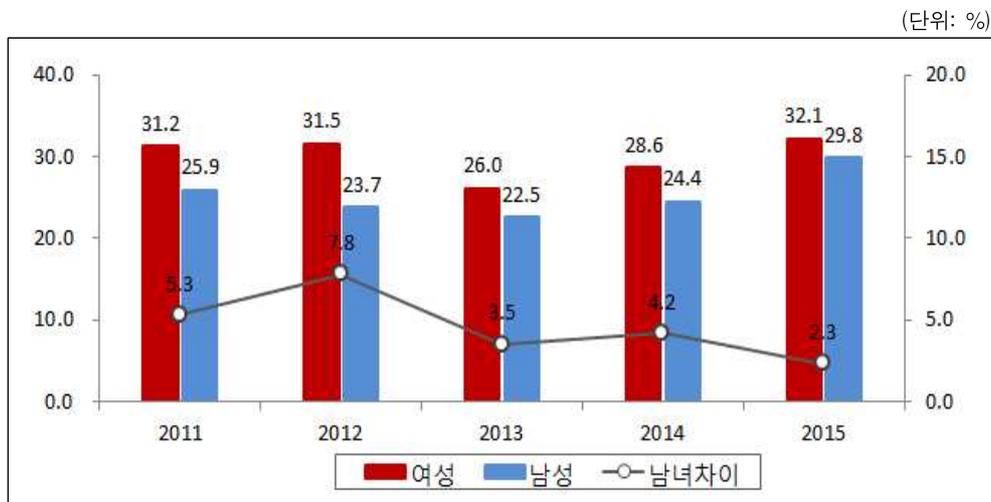
보건 분야의 마지막 세부 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⁴⁵⁾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여성 중에서 스트레

45)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19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19세 이상 표준화된 통계임.

46)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는 기존 ‘건강관련 삶의 질’와 ‘건강검진 수검률’ 지표 값이 양성 평등수준에 해당하는 ‘100’에 접근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5년 추가적으로

스를 많이 느끼는 여성비율이 2011~2012년에는 약 31% 정도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여 2013년 26.0%이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다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5년에는 32.1%에 달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남성비율은 여성보다 전체적으로 낮았다.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남성비율은 2011년 25.9%에서 2013년 22.5%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 증가하여 2015년에는 29.8%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의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83.0에서 2012년 75.2로 7.8p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2.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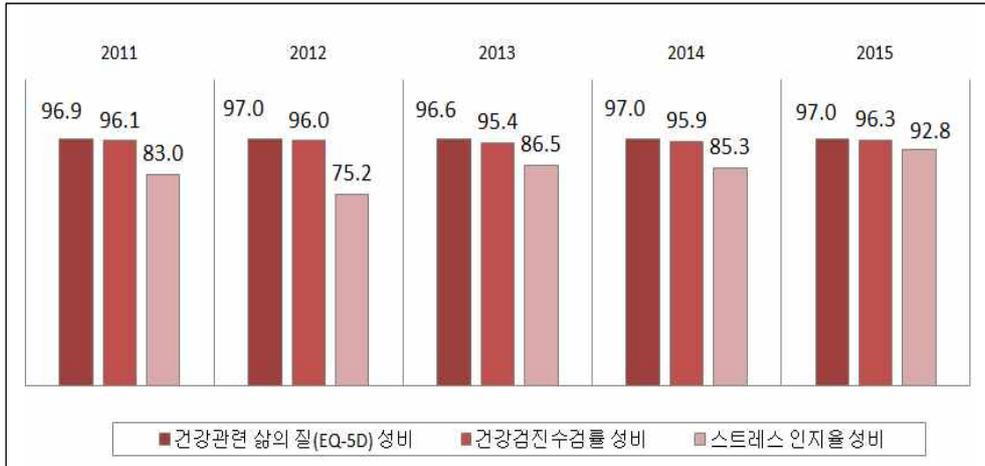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III-27]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지금까지 보건 분야의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보건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은 2011년에 92.0에서 2012년 89.4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95.4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 분야 세부지표들의 지표 값들이 대부분 80.0~90.0 이상이고,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지표 값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

포함시킨 지표임.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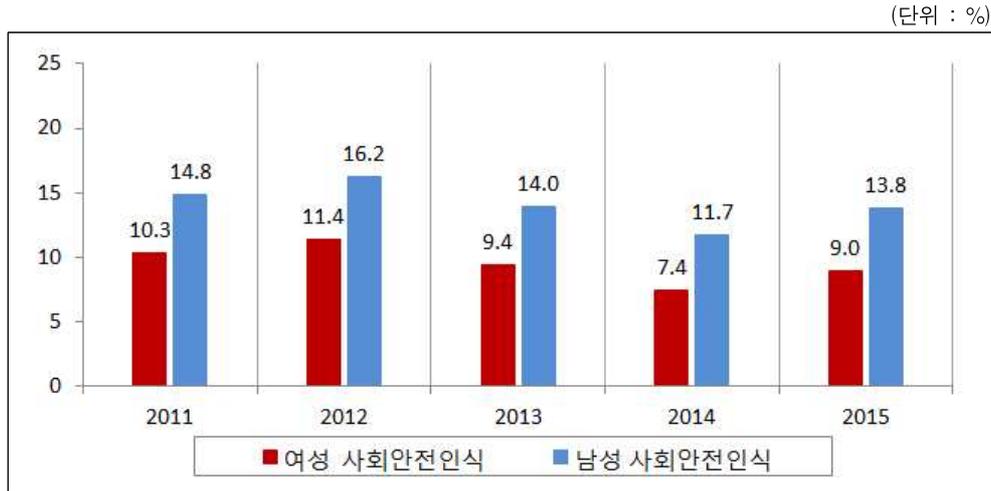
[그림 III-28]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 값은 2011년 64.2이었으나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수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지수 값이 2011년 64.2에서 2012년 65.4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60.8로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5.1과 55.4로 급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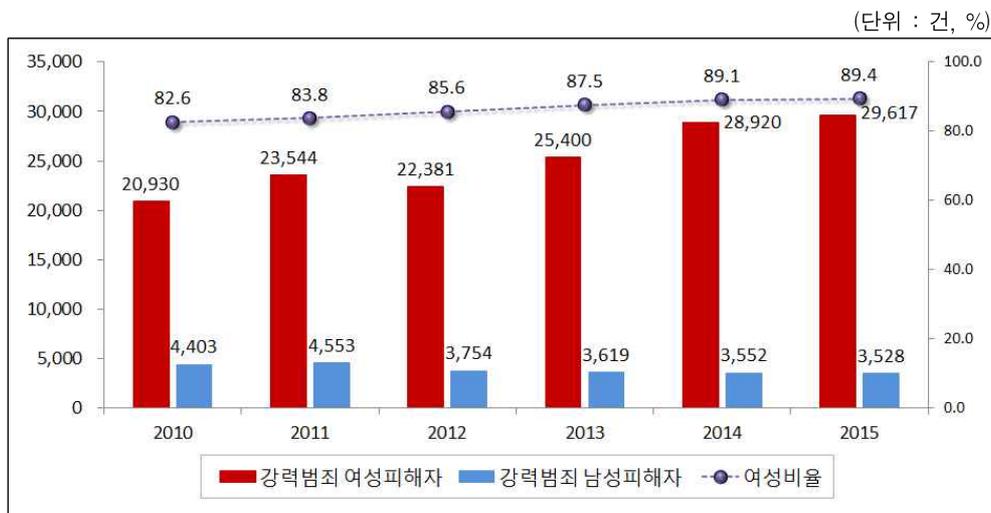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중의 하나인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인식을 보면 2011년 여성 중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0.3%이고, 남성은 14.8%로 나타났다.⁴⁷⁾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안전하다고 인식한 여성비율이 2012년 11.4%였으나 2014년에는 7.4%로 급감하였고, 그 이후 2015년에는 9.0%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게도 나타나서, 2012년 안전하다고 인식한 남성 비율이 16.2%에서 2014년 11.7%로 하락하였다. 2015년에는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13.8%, 여성 9.0%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47)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15세 이상과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여,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를 비율로 제시함.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응답자 중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에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주 : 13세 이상 인구대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 III-29] 전반적 사회 안전 인식



주: 1)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는 강도, 방화, 강간, 살인 피해자의 합임.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그림 III-30]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안전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자가 여성인 강력범죄 건수는 2010년 20,930

전에서 2011년 23,544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다시 22,381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범죄 피해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4년 28,920건, 2015년 29,617건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여성피해자보다 훨씬 적어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403건, 4,553건이었다. 2011년 이후 피해자가 남성인 강력범죄 피해건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3,552건, 2015년 3,528건이 되었다.

그리고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피해자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82.6%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12년 85.6%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9.1%, 89.4%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2015년 강력범죄(흉악범) 건수를 보면 여성피해자가 29,617건으로 전년에 비해 697건이 증가한 반면에, 남성 피해자는 24건이 감소되어 2015년에는 3,528건이었다. 즉, 여성피해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한데 비해 남성은 전년 대비 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성별 강력범죄 피해자 구분

(단위 : 건)

	남성 범죄피해자			여성 범죄피해자		
	2014년	2015년	증감규모	2014년	2015년	증감규모
살인	511	536	25	404	391	-13
강도	768	744	-24	789	674	-115
방화	898	800	-98	598	593	-5
성폭력	1,375	1,448	73	27,129	27,959	830
전체(강력범죄)	3,552	3,528	-24	28,920	29,617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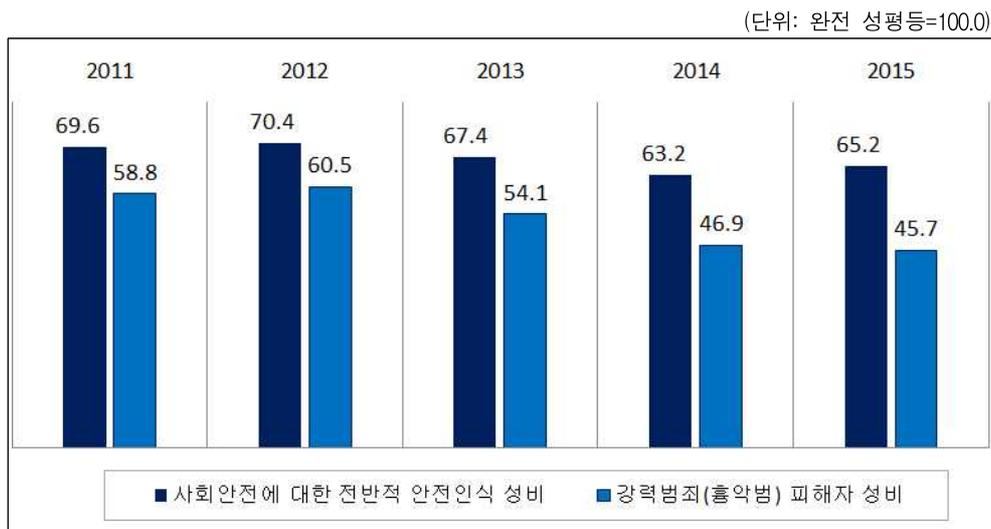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2016년 범죄분석」, 「2015년 범죄분석」.

또한 범죄유형별 남녀피해자를 보면 여성 피해자의 94.4%(27,959건)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그 다음은 강도 2.3%(674건), 방화 2.0%(593건), 살인 1.3%(391건)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 피해자는 성폭력 41.0%(1,448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 건수가 많은 범죄는 방화 22.7%(800건), 강도 21.1%(744건) 그리고 살인 15.2%(536건)이었다.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남녀 강력범죄(흉악범) 건수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우 2015년 전년대비 성폭력은 3.1% 증가하고, 나머지 강도 14.6%

감소, 살인 3.2% 감소 그리고 방화 0.8% 감소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이 성폭력이 전년대비 5.3% 증가한 반면에 살인은 여성과는 달리 4.9%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남성의 경우 방화는 10.9% 감소 그리고 강도는 3.1% 감소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안전 분야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먼저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인식 성비의 지표 값은 <그림 III-31>에서와 같이 2011년 69.6에서 2012년 70.4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15년에는 65.2이었다.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를 보면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 건수가 남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피해자 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 피해자 건수 비율이 2010년 82.6%에서 2015년 89.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8.8에서 등락을 거듭하여 2015년에는 45.7로 2011년 대비 13.1p 하락하였다. 이상과 같이 안전 분야의 경우 세부 지표 값의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인해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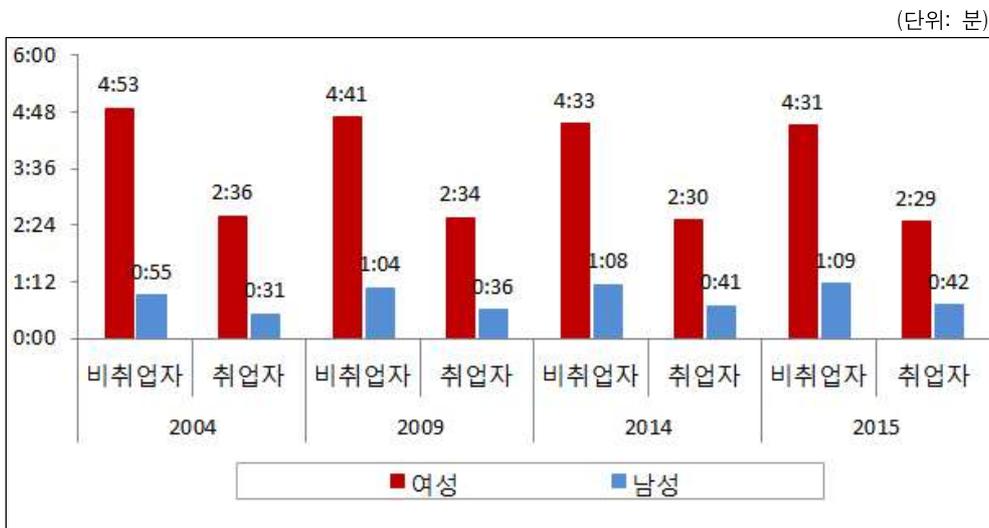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31]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1) 가족 분야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6번째로 낮은 분야이다. 동 분야의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2011년 59.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2.8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66.7과 70.0으로 증가하였다.⁴⁸⁾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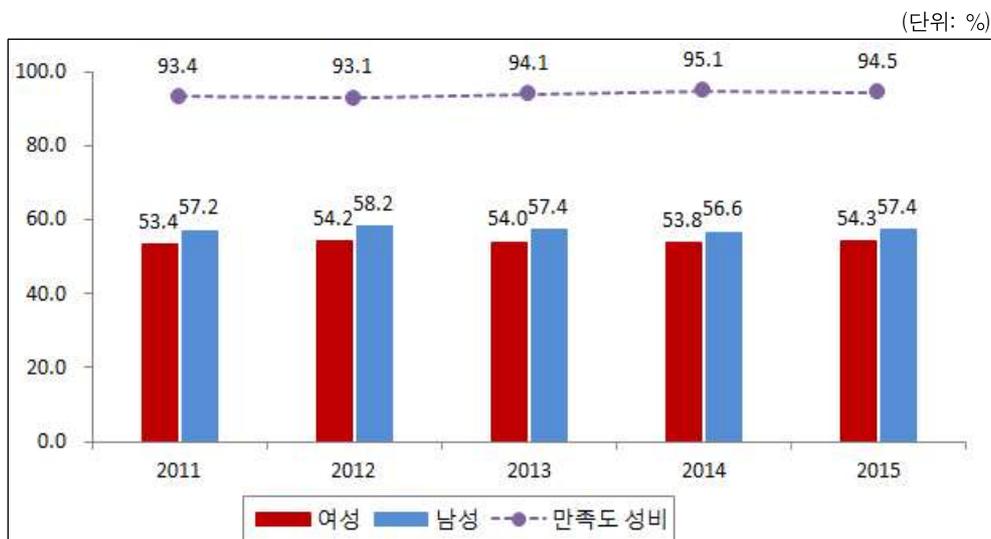
[그림 III-32] 가사노동시간

가족 분야 세부 지표인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남성의 경우 절대적인 시간은 적으나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남성 취업자는, 2004년 31분, 2009년 36분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41분, 42분으로 점진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했으며, 남성 비취업자의 경우 2004년에는 55분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시간 8분, 1시간 9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취업자의 경우 2004년 2시간 36분에서 2009년은 2시간 34분으로 2분정도 감소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2시간 30분, 2시

48)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2004년, 2009년, 2014년 등 5년 주기로 생산됨에 따라 2015년 통계는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를 활용하여 산정한 추정값임.

간 29분으로 미미하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여성 비취업자는 2004년 4시간 53분, 2009년 4시간 41분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4시간 33분, 4시간 31분으로 취업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의 감소하는 폭이 약간 더 크다. 즉, 여성은 절대적인 시간이 남성보다 많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남녀 가사노동의 변화 추이로 인해서 남녀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절대적 시간의 남녀 차이로 인해 성불평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Ⅲ-33]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가족 분야의 또 다른 지표로는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가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그 중 ‘만족한다(매우 만족, 약간 만족)’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산정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1년 53.4%, 2012년 54.2%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3.8%, 54.3%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7.2%에서 2012년 58.2%로 그리고 그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56.6%와 57.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93.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 95.1로 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94.5로 소폭 감소하였다.

(단위: 여아 출생자 수 대비 남아 출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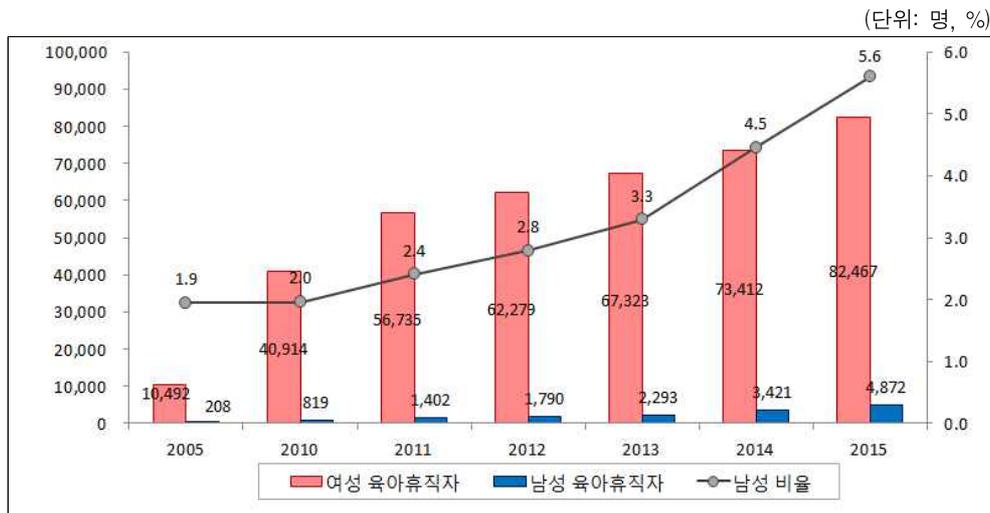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III-34]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또 다른 가족 분야 세부지표인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보면 첫째 아 출생성비는 이미 1994년에 자연출생 성비인 106.0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1994년 이후 첫째 아 출생성비는 104.5~106.5 수준에서 변동했다. 특히 2002년에 106.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07년에는 104.5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5.6과 105.9로 증가하여 자연출생 성비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그림 III-34>에서와 같이 1994년에 205.4로 최근 20년 이내에 최고치를 보인 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가 급감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40대의 수치가 유지되었으나 이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어 2007년 115.7로 처음으로 110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6.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여 2010년 110.9, 2011년 109.5, 2013년 108.0을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 추이는 2014년과 2015년까지 이어져 셋째 아 출생성비가 각각 106.7, 105.5로 자연출생성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이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짐에 따라,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96.3 그리고 2014년에 99.3이었고, 2015년에는 거의 완전성평등 수준에 접근했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 III-35] 성별 육아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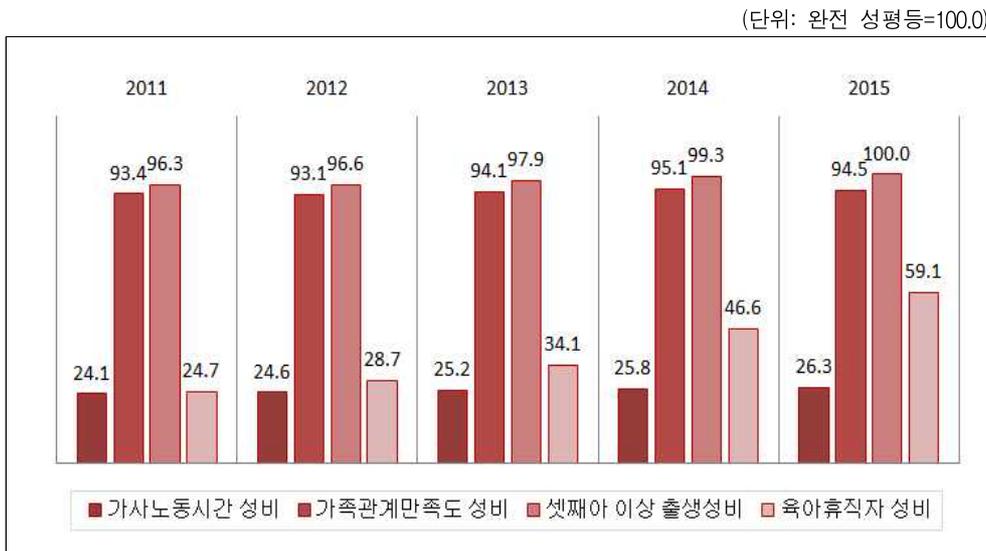
가족 분야의 마지막 세부지표인 육아휴직을 보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05년 10,492명에서 급증하여 2011년 56,735명 그리고 2013년 67,323명, 2015년에는 82,467명에 달했다.⁴⁹⁾ 2015년 출산전후 휴가자 수가 94,590명인 것과 비교하면,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 208명에서 2010년 819명 그리고 2013년 2,293명, 2015년 4,87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여전히 이용실적이 미미하였다. 즉,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휴직자 비율을 보면 2005년 1.9%에서 2013년 3.3% 그리고 2015년 5.6%로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49) 육아휴직자 지표는 2014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임.

50) 남성 휴직자가 여성 육아휴직자의 10%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완전평등상태로 측정함. 남녀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를 모니터링하면서 남성 휴직자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준을 상향조정함.

휴직자 성비의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24.7에서 2013년 34.1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6.6, 59.1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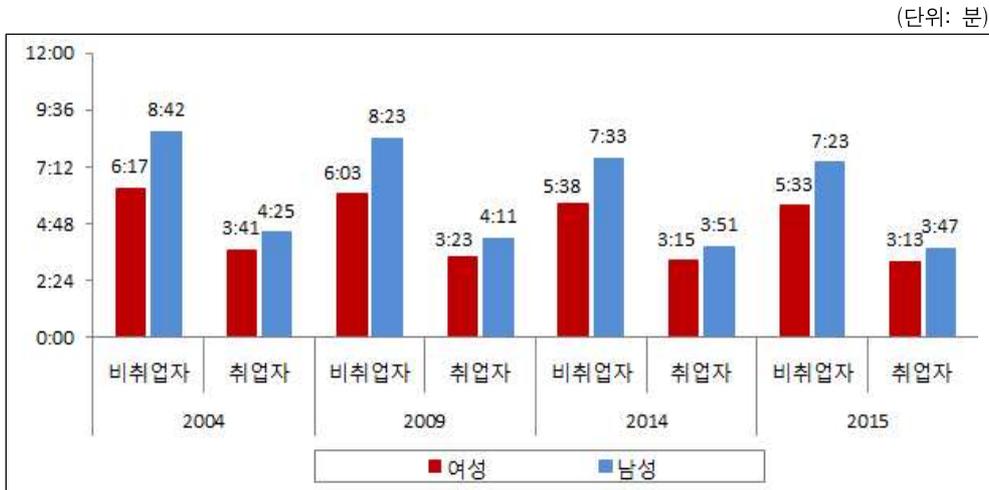
[그림 III-36]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이상과 같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보면 세부지표인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그리고 육아휴직의 성비들의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인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도 지표 값이 2015년에 94.5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2011년 93.4에서 2014년 9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2011년 59.6에서 2015년 70.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1년 84.1에서 2012년 84.9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7.4와 87.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먼저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인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III-37>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 여가시간이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남성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2004년 평균 4시간 25분, 2014년 3시간 51분 그리고 2015년 3시간 47분, 남성 비취업자는 2004년 8시간 42분, 2014년 7시간 33분, 2015년 7시간 23분으로 여가시간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2004년 3시간 41분, 2014년 3시간 15분, 2015년 3시간 13분이었고, 여성 비취업자는 2004년 6시간 17분, 2014년 5시간 38분, 2015년 5시간 33분으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취업여부와 성별에 관계없이 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은 취업자의 두 배 이상으로 길었다.⁵¹⁾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7]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이에 따라 여가시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76.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76.7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77.9, 78.5으로 높아졌다. 즉, 남녀 여가시간의 성평등 정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정보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여가만족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여가만족도가 2010~2013년에는 높아지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51) 여가시간을 조사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2004년, 2009년, 2014년 등 5년 주기로 생산됨에 따라 2015년 통계는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를 활용하여 산정한 추정값임.

보였다. 그리고 여가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만족도 성비의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87.0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91.4 그리고 2015년에는 91.9로, 2011년 대비 2015년에는 4.9p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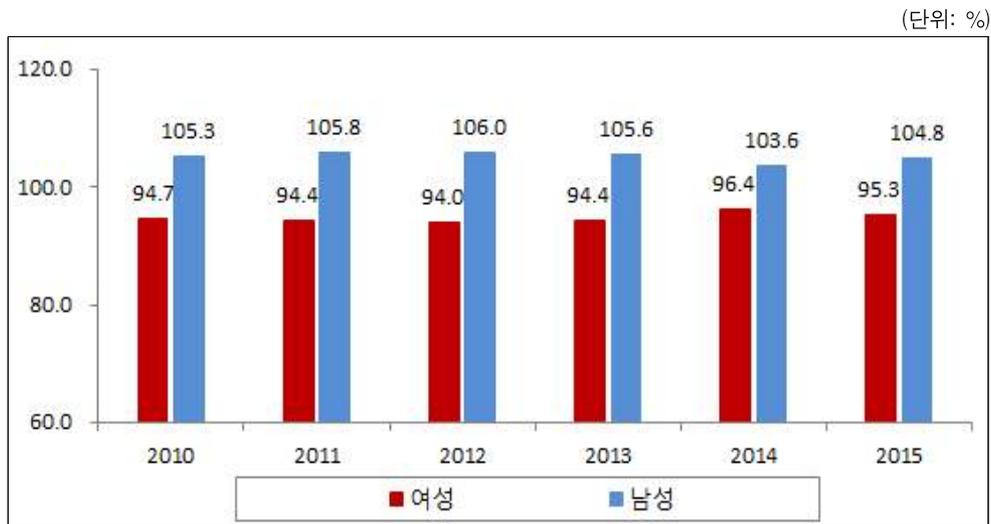
[그림 III-38] 성별 여가만족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인 성별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0년 105.3%에서 2012년 106.0%로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2014년 103.6%로 하락한 뒤에 2015년에 다시 104.8%로 소폭 상승하였다.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0년 94.7%에서 2012년 94.0%까지 하락하고, 2014년 96.4%로 소폭 상승하지만 2015년 95.3%로 다시 하락하였다.⁵²⁾

앞에서 살펴본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현황과 변화 추이를 보면, 여가만족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7.0에서 2015년 91.9로 4.9p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가시간 성비 지표 값도 동일한 기간에 76.1에서 78.5로 2.4p만큼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성별정보화격차도 89.2에서 90.9로 1.7p 증가하였다. 그 결과 문화·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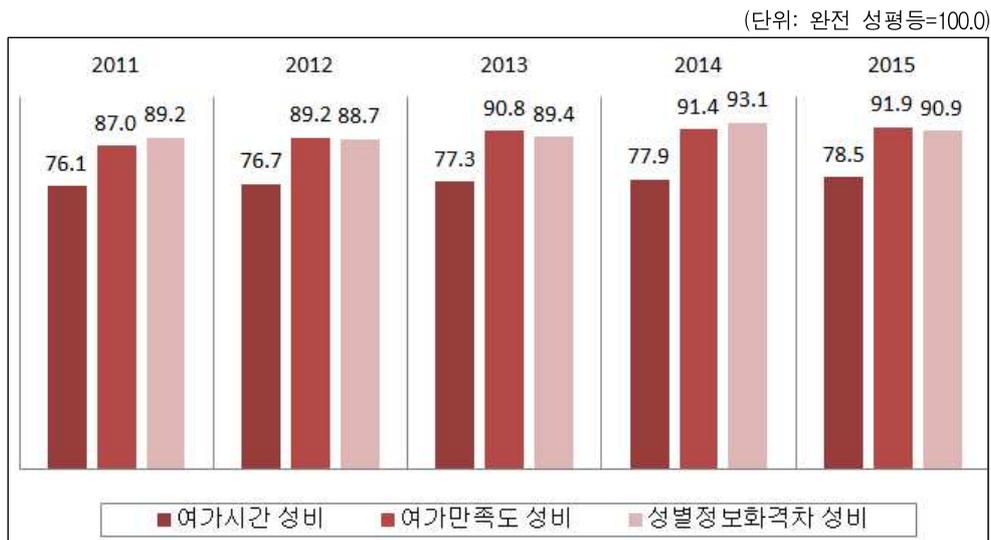
52) 정보화 수준은 정보격차지수로서 산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 때 일반국민 대비 남성 혹은 여성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또한 성평등 지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그림 III-39] 성별 정보화격차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III-40]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IV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제고 정책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89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103
3. 국가성평등지수와 국제 성평등 지수의 비교	123
4. 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 정책	127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1995년 UNDP가 GDI와 GEM을 발표한 이래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2016년 현재 한국정부에서 관심 있게 점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지수는 WEF의 GGI와 UNDP의 GII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두 지수는 지표의 구성과 측정방법이 달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매우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 GGI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2015년 한국의 GGI 순위는 145개국 중 108위로 첫 발표 이래 최하위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GII는 2010년 첫 발표에서 20위를 기록했고 2012년 27위로 약간 하락하지만 한국의 수준을 상위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두 지수의 서로 상반된 결과는 지표구성과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보도자료가 나올 때 마다 국내 언론은 물론 관련 공무원, 연구자, 여성관련 NGO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GI와 GII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한국의 순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⁵³⁾

1) 성격차지수의 특징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⁵⁴⁾이 각국의 성 격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를 통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등 4개의 부문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지수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GI는 ‘수준’보다 ‘격차’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실제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선진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

53) 주재선 외(2014), 「2014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79-85.

54) 세계경제포럼(WEF)은 스위스에 있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최고 경영자 등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임. 매년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CR)와 성평등보고서(GGGR)를 발표하고, 다보스 포럼을 개최함.

를 갖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 격차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GGI 지수는 자원의 접근에 있어 절대 수준보다 성별 차이를 주목하고,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에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GGI는 수단(means)에 따른 차이보다 성과(outcomes)에 따른 차이를 평가한다. GGI는 성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경제 참여, 교육, 건강, 정치 권한 부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GGI는 여성 권한(women's empowerment)보다 성평등(gender equality) 증진에 더 관심이 있다. GGI는 여성의 권한부여 수준이 아닌 성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의 목적은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GGI는 여성에 대한 성과와 남성에 대한 성과가 평등한 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2) 지표구성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GGI의 첫 번째 영역인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을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결과 관련되어 의미를 갖는다. 경제활동 영역은 참여(participation), 급여(remuneration), 승진(advancement)의 관점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의 5개 지표이다.

<표 IV-1>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지표

지표	측정 내용	산식
경제활동 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frac{15\sim64\text{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5\sim64\text{세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 경영자 의견조사*를 통해 측정	7점 척도의 설문조사(KDI 실시) (Executive Opinion Survey)
추정소득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비농촌 임금 성비, 성별인구의 결합으로 추정된 소득의 성비	$\frac{\text{여성 추정소득}}{\text{남성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성비	$\frac{\text{관리직 중 여성비율}}{\text{관리직 중 남성비율}}$
전문·기술직 비율	전문 및 기술직 비율 성비	$\frac{\text{전문직 중 여성비율}}{\text{전문직 중 남성비율}}$

주: 경영자 의견조사의 질문은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이며, 답항은 7점 척도로 아주 낮다 1점,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7점으로 되어 있음.

GGI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지표 구성은 크게 문해율과 취학률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해율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본적 언어 사용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가장 기초적 능력이다. 취학률은 대상연령 집단이 학교에 얼마나 재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로 구분하고 제시하고 있어 교육성취 영역은 4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표 IV-2> GGI의 교육성취 영역 지표

지표	측정 내용	산식
문해율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성비	$\frac{\text{여성 문해율}}{\text{남성 문해율}}$
초등교육 취학률	초등교육 취학률 성비	$\frac{\text{여성 초등학교 취학률}^*}{\text{남성 초등학교 취학률}}$ * $\frac{6\sim11\text{세 초등학교 재적학생수}}{6\sim11\text{세 인구}}$

지 표	측정 내용	산식
중등교육 취학률	중등교육 취학률 성비	$\frac{\text{여성 중등학교 취학률}^*}{\text{남성 중등학교 취학률}}$ * $\frac{12\sim 17\text{세 중등학교 재적학생수}}{12\sim 17\text{세 인구}}$
고등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성비	$\frac{\text{여성 고등교육 취학률}^*}{\text{남성 고등교육 취학률}}$ * $\frac{\text{고등교육 재적학생수}}{18\sim 22\text{세 인구}}$

주: 1) 고졸 직후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임.
 2) 초등, 중등 취학률은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로 산정하며, 대학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로 산정함.

GGI의 세 번째 영역은 건강과 생존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구성 지표는 출생아 성비와 건강기대수명 성비의 2개 지표이다. 출생아 성비는 남아 선호가 강한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낙태와 같은 여성실종(missing women) 현상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선정되었다. 건강기대수명은 폭력, 질병, 영양 결핍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실된 수명을 제외한 건강한 살 수 있는 삶의 기간을 말한다. 즉, 이 지표는 한 국가의 삶의 질을 반영한 기대수명을 측정할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표 IV-3>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지 표	측정 내용	산식
출생 성비	출생아 성비	$\frac{\text{여아출생아수}}{\text{남아출생아수}}$
건강기대수명	건강기대수명 성비	$\frac{\text{여성 건강기대수명}}{\text{남성 건강기대수명}}$

주: 여아를 기준으로 남아 출생비를 보는 일반적인 출생성비와 정의를 달리함.

GGI의 네 번째 영역인 정치권한 부여 영역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수장이란 총리 혹은 대통령의 직급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현재 시점에서 지난 50년간 남녀의 재직 기간으로 측정한다.

<표 IV-4>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지 표	내용 및 산정방법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여성비중/국회의원 남성비중	$\frac{\text{국회의원 중 여성비율}}{\text{국회의원 중 남성비율}}$
장관 비율	장관 여성비중/장관 남성비중	$\frac{\text{장관 중 여성비율}}{\text{장관 중 남성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여성 재직년수/남성 재직년수	지난 50년간 여성 국가수장 재직기간 지난 50년간 남성 국가수장 재직기간

3) 지표별 자료원

성격차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ILO와 UNDP 자료를, 교육 성취도 영역은 UNESCO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CIA의 World Factbook과 WHO 자료를, 정치 권한 부여 영역은 IPU와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수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ILO, UNESC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정량적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각국 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표 IV-5>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부문	지 표	자료원
경 제 참여와 기 회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ILO), 주요노동시장지표(KILM), 2015
	유사업무 임금수준	세계경제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2015~16
	추정소득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7/2008) 방법론에 기초하여 WEF에서 집계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ILO, LABORSTA DB 2015, 혹은 최근 입수가능한 자료
	전문·기술직 비율	ILO, LABORSTA DB 2015, 혹은 최근 입수가능한 자료

부문	지 표	자료원
교 육 성취도	문해율	UNESCO 교육통계지표,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2009년
	초등교육 취학률	UNESCO 교육통계지표 2015,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UNDP HDR 2009,
	중등교육 취학률	UNESCO 교육통계지표 2015,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고등교육 취학률	UNESCO 교육통계지표 2015,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건강과 생 존	출생 성비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orld Factbook 2016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2013
정 치 권 한 부 여	국회의원 비율	IPU, 정치영역의 여성(Women in Politics) 2016. 6.1.
	장관 비율	IPU, 정치영역의 여성(Women in Politics) 2015. 1.1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WEF에서 산정, 2016. 6. 30

자료: WEF(2016),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p. 4. 번역

4) 측정방법

GGI는 성과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 지수는 정량(hard data)적인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9,000명의 기업총수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soft data)인 척도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 지수는 다음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 1단계 :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성비)로 변환하고, 성비는 평등기준점 1에서 절삭한다. 단, 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이 평등기준점으로 표준화하여 성비를 산정한다.
- 2단계 :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지표별 표준편차의 변화(1%p 변화)를 이용한다.

- 3단계 : 각 영역별 지수(점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별 값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 4단계 : 종합지수는 각 영역별 평균값을 단순 평균해 산정한다.

* 산정된 지수 해석 시 유의사항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이다. 모든 점수들은 평등과 불평등, 0과 1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표별 가중치는 GGI 점수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각 차원의 점수 산정에만 활용된다. 또한 GGI 점수는 비율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된 점수를 해석하는데 있어 엄격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수는 단지 한 나라의 성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한 지표로만 의미를 두어야 한다.

<표 IV-6>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경제 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비율 (ratio)	0.199	(0.199+0.310 +0.221+0.149 +0.121) ×(1/4)
	유사업무 임금수준		0.310	
	추정소득		0.221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0.149	
	전문·기술직 비율		0.121	
교육 성취도	문해율	비율 (ratio)	0.191	(0.191+0.459 +0.230+0.121) ×(1/4)
	초등교육 취학률		0.459	
	중등교육 취학률		0.230	
	고등교육 취학률		0.121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비율 (ratio)	0.307	(0.307+0.693) ×(1/4)
	건강 기대 수명		0.693	
정치 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비율 (ratio)	0.310	(0.310+0.247 +0.443) ×(1/4)
	장관 비율		0.247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0.443	

주: 하위영역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임.
출처: 주재선 외(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81. 재인용.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GI 수준

한국의 2016년도 GGI점수는 0.649점으로 2015년의 0.651점에 비해 0.002점 낮아진다. 이로 인해 한국의 GGI 순위는 전체 144개국 중 116위로 2015년도 115위에 비해 1단계 하락한다. 분야별로 보면 4개의 분야 중 경제참여 및 기회,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분야의 순위는 상승하고 교육적 성취는 2015년과 동일하다. 경제참여 및 기회 분야는 2015년 125위에서 2016년 123위로, 건강과 생존 분야는 2015년 79위에서 2016년 76위로, 정치적 권한 분야는 2015년 101위에서 92위로 순위 상승을 나타낸다. 하지만 교육적 성취는 문해율 지표 성비의 하락으로 2015년 1위에서 2016년 66위로 내려오게 된다.

지표별로 증감을 살펴보면 2016년 14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순위 상승하고 6개 지표가 순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직, 고등교육 취학률, 국회의원, 국가수장 재직기간 등의 지표는 상승하며, 유사업무 임금격차, 추정소득, 문해율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한다. 전문직 지표는 2015년 통계활용 연도가 개선되면서 2016년에도 크게 개선된다. 즉, 전문직 성비는 2015년 86위(0.83점)에서 2016년 78위(0.93)로 개선된다. 국회의원 지표는 2014년 선거 이후 여성비율이 반영되면서 2015년과 2016년 연속 상승하며, 국가수장 재직 기간 지표 또한 현직 여성 대통령의 재직기간이 증가하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유사업무 임금 성비는 2015년 116위(0.55점)에서 2016년 125위(0.52점)로 하락하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정체로 인해 추정소득은 2015년 101위(0.56점)에서 2016년 120위(0.45점)로 하락한다. 단, 건강기대수명 성비가 1을 초과하여 완전 평등한 상태이며, 문해율, 초등 취학률과 중등 취학률은 순위와 상관없이 거의 완전 평등 상태에 접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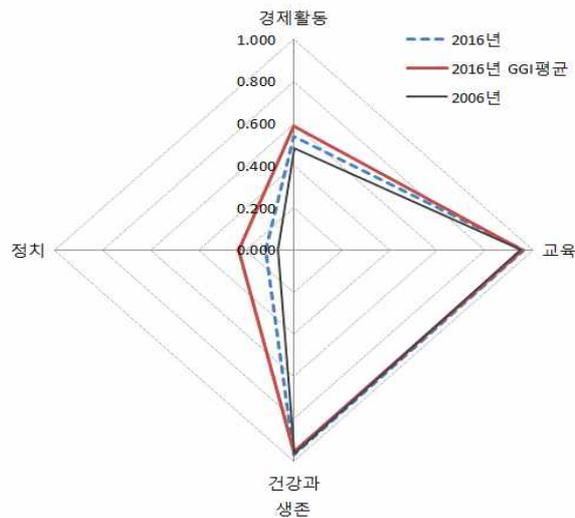
한편 지난 10여 년 간의 추이를 보면 점수는 2006년의 0.616점에 비해 2016년은 0.649점으로 0.033점 증가한다. 하지만 순위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의 92위에서 2016년도는 116위로 24단계가 하락한다. 영역별로 보면 건강과 생존 분야는 2006년에 비해 18단계 상승한 반면 다른 세 분야는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는 96위에서 123위로 27단계가 하락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 점수를 보면 경제참여

와 기회 분야의 점수가 0.056점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정치적 권한 분야는 0.053, 교육적 성취 분야는 0.016점, 건강과 생존 분야는 0.006점 상승하였다.

<표 IV-7> 한국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	104/134	0.634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2006-2016 점수변화		▲ 0.033	▲ 0.056	▲ 0.016	▲ 0.006	▲ 0.053



[그림 IV-1] 부문별 GGI 비교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는 2015년 90위에서 2016년 91위로 1단계 하락한다. 점수는 0.73으로 동일하고 GGI 해당 국가의 전체 평균인 0.67점에 비해서는 높다. 유사업무 임금성비 지표는 2015년에 비해서 0.03점 하락하여, 순위가 9단계 떨어진다. 해당 국가 전체 평균인 0.62에 비해서는 0.1점이 낮다. 지난 4년간의 변화를 보면 2013년에 0.52점이었다가 2014년과 2015년까지 등락하면서 2016년 0.52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보인다. 추정소득에 대한 성비는 0.56점에서 0.45점으로 0.11점 하락하여, 순위도 19단계 떨어진다.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지표는 점수는 변동이 없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한다. 우리나라 관리직 비율은 2016년 0.12점으로 전체 국가 평균 점수 0.3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직 비율은 2016년 0.83점에서 2016년의 0.93점으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며, 이로 인해 순위 또한 8단계 상승한다.

<표 IV-8>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순위	점수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 전체	123	0.537	0.586	125	0.557	124	0.512	118	0.504
경제활동참가율	91	0.731	0.665	90	0.73	86	0.72	87	0.72
유사업무 임금성비	125	0.524	0.622	116	0.55	125	0.51	120	0.52
추정소득(US \$)	120	0.450	0.502	101	0.56	109	0.48	108	0.44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114	0.117	0.358	113	0.12	113	0.12	105	0.11
전문·기술직 비율	78	0.928	0.862	86	0.83	98	0.69	90	0.69

교육적 성취 분야는 2016년 102위로 2015년과 동일하나, 점수는 0.001점 하락한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초등교육 취학률과 중등교육 취학률 성비가 0.99로 각각 79위, 99위로, 초등교육 취학률은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하나, 중등 취학률은 10단계 하락한다. 동일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나라의 성평등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0.75점으로 동일하나 순위는 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남학생들의 징병제로 인해 과대 집계되는 경향이 있어 순위가 100위권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 학사학위 수여자 중 여성 비율은 51.1%⁵⁵⁾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군입대한 남학생을 재학생에서 제외한다면 대학교에서의 취학률 성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9>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순위	점수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교육적 성취 분야 전체	102	0.964	0.955	102	0.965	103	0.965	100	0.959
문해율	66	0.993	0.897	1	1.00	1	1.00	1	1.00
초등교육 취학률(net)	79	0.994	0.980	83	0.99	83	0.99	86	0.99
중등교육 취학률(net)	99	0.991	0.970	89	0.99	85	0.99	82	0.99
고등교육 취학률(gross)	112	0.754	0.930	116	0.75	114	0.75	108	0.72

건강과 생존 분야는 2016년 76위로 2015년의 79위에 비해 3단계 상승하나, 점수는 0.973점으로 동일하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건강기대수명 성비는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출생성비의 성평등 점수는 0.935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했고 이로 인해 순위는 128위에서 125위로 3단계 상승한다.

<표 IV-10>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순위	점수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건강과 생존 분야 전체	76	0.973	0.957	79	0.973	74	0.973	75	0.973
출생 성비	125	0.935	0.918	128	0.93	122	0.93	119	0.93
건강기대수명	1	1.060	1.043	1	1.06	1	1.06	1	1.06

55) 주재선 외(2016),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p.196.

정치적 권한 분야는 2015년 101위에서 2016년 92위로 9단계 상승한다. 점수는 0.107점에서 0.120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국회의원 성비 점수는 2015년에 비해 0.005점 상승하고 순위는 94위에서 90위로 4단계 상승한다. 장관 성비는 2015년과 동일하나 순위는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성비는 여성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음에 따라 2015년 0.07점에서 2016년은 0.094점으로 상승하면서 순위도 31위에서 29위로 상승한다. 하지만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대상 국가 평균 0.204와 비교하면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1>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순위	점수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정치적 권한 분야 전체	92	0.120	0.233	101	0.107	93	0.112	86	0.105
국회의원 비율	90	0.205	0.269	94	0.20	91	0.19	85	0.19
장관 비율	128	0.063	0.238	130	0.06	94	0.13	79	0.14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총리 이상)의 재직기간	29	0.094	0.204	31	0.07	39	0.05	42	0.03

2) 주요 국가의 GGI 수준

OECD회원국의 GGI 수준을 보면 34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가 1위부터 5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16위로 비록 작년에 비해 1단계 상승하였지만 OECD회원국 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34개 국가 중 33번째로 터키 다음에 위치해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에서는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가 0.818점을 기록해 첫 번째 순위고, 아이슬란드가 2번째, 스웨덴이 3번째로 높다. 한국의 점수는 0.537점으로 1위인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0.281점의 차이를 보인다.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는 34개국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등 13개 국가가 완전 평등상태인 1.000점을 기록하여 한국의 0.964점보다

0.036점 높다.

건강과 생존 분야는 핀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멕시코, 터키의 6개 국가가 완전평등 상태이다. 한국은 0.973점으로 0.007점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아이슬란드가 1위로 점수는 0.719점으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점수를 한국과 비교하면 무려 0.599점이 높아 이 분야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2>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

구분	종합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영향력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영역별 1위 (a)	1	0.874	1	0.865	1	1.000	1	0.980	1	0.719
1위 국가 (b)	1	0.874	9	0.806	1	1.000	104	0.970	1	0.719
대한민국 (c)	116	0.649	123	0.537	102	0.964	76	0.973	92	0.120
점수격차 1(a-c)	-	0.225	-	0.328	-	0.036	-	0.007	-	0.599
점수격차 2(b-c)	-	0.225	-	0.269	-	0.036	-	-0.003	-	0.599

<표 IV-13>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16년)

국가명	종합점수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아이슬란드	1	0.874	9	0.806	1	1.000	104	0.970	1	0.719
핀란드	2	0.845	16	0.764	1	1.000	1	0.980	2	0.607
노르웨이	3	0.842	7	0.818	28	1.000	68	0.974	3	0.576
스웨덴	4	0.815	11	0.802	36	0.999	69	0.974	6	0.486
아일랜드	6	0.797	49	0.709	1	1.000	54	0.979	5	0.502
뉴질랜드	9	0.781	24	0.765	40	0.999	104	0.970	16	0.390
슬로베니아	8	0.786	19	0.784	25	1.000	76	0.973	18	0.385
스위스	11	0.776	30	0.745	61	0.993	72	0.974	15	0.391
독일	13	0.766	57	0.691	100	0.966	54	0.979	10	0.428
네델란드	16	0.756	76	0.659	60	0.994	103	0.970	14	0.401
프랑스	17	0.755	64	0.676	1	1.000	1	0.980	19	0.365
덴마크	19	0.754	34	0.735	1	1.000	106	0.970	29	0.309
영국	20	0.752	53	0.700	34	0.999	64	0.974	24	0.335
에스토니아	22	0.747	50	0.703	53	0.995	1	0.980	30	0.308
벨기에	24	0.745	37	0.731	1	1.000	64	0.974	35	0.275
스페인	29	0.738	72	0.668	43	0.998	91	0.972	26	0.316
포르투갈	31	0.737	46	0.713	63	0.993	76	0.973	36	0.268
룩셈부르크	34	0.734	27	0.750	1	1.000	69	0.974	55	0.212
캐나다	35	0.731	36	0.732	1	1.000	108	0.969	49	0.222
폴란드	38	0.727	58	0.690	31	1.000	40	0.979	44	0.238
미국	45	0.722	26	0.752	1	1.000	62	0.975	73	0.162
호주	46	0.721	42	0.719	1	1.000	72	0.974	61	0.193
이스라엘	49	0.719	62	0.678	1	1.000	67	0.974	48	0.224
이탈리아	50	0.719	117	0.574	56	0.995	72	0.974	25	0.331
오스트리아	52	0.716	84	0.650	86	0.987	1	0.980	41	0.246
멕시코	66	0.700	122	0.544	51	0.996	1	0.980	34	0.281
칠레	70	0.699	119	0.565	38	0.999	39	0.979	39	0.254
체코	77	0.690	89	0.647	1	1.000	40	0.979	85	0.134
그리스	92	0.680	85	0.649	85	0.987	54	0.979	101	0.104
슬로바키아	94	0.679	86	0.648	1	1.000	76	0.973	110	0.093
헝가리	101	0.669	67	0.672	67	0.992	40	0.979	138	0.035
일본	111	0.660	118	0.569	76	0.990	40	0.979	103	0.103
한국	116	0.649	123	0.537	102	0.964	76	0.973	92	0.120
터키	130	0.623	129	0.464	109	0.958	1	0.980	113	0.090

자료: WEF(2016),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pp. 10-11.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가. 성개발지수 소개

1) 성개발지수의 특징⁵⁶⁾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은 2014년부터 새롭게 개선한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를 발표하였다. GDI는 1995년에 처음 시작하여 2009년까지 매년 발표를 해왔다. 기존의 GDI가 HDI를 기준으로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HDI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개선된 GDI는 여성과 남성의 HDI를 개별로 계산함으로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HDI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의 HDI 수치에 절대 격차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 남녀 HDI의 절대수치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IV-14>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	기존 GDI	새로운 GDI
영문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 순위	2009년 155개국 중 25위	2014년 161개국 중 104위(3그룹)
발표기간	1995년-2009년	2014년(2013년 기준), 2015년(2014년 기준)
지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성인 문해율(15세 이상 인구) • 초중고 취학률 • 1인당 추정소득(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 • 기대 교육년수 • 1인당 추정소득(GNI)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성불평등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반영하여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HDI를 산정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 • 성별 격차를 이용하여 측정

새로 발표된 GDI는 인간개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인 건강, 교육, 경제에서의 성취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UNDP

56) GDI 지표구성은 작년과 변화가 없어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91-95을 인용함.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 7). 이에 따라 GDI는 해당 국가의 HDI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집계방식에서 벗어나,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과거의 HDI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 지표구성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영역으로는 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 국민총생산(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을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년수이다. 추정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 IV-15> GDI 영역과 지표

영역	지표	설명
건강한 삶	출생시 기대여명	0세의 평균 기대수명
교육(지식)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아동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 교육년수
적절한 표준 삶	GNI에 기반한 1인당 추정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을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Institute for

Statistics)의 자료와 바로와 리(Barro & Lee, 2015)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기대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 소득은 세계노동기구, 유엔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하고 있다.

<표 IV-16> GDI 지표별 자료원

지 표	자 료 원
출생시 기대여명	-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database. Extracted 9 July 2015.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2015. Data Centre. http://data.uis.unesco.org . Accessed 26 March 2015. - Barro, R.J., and J.-W. Lee.2014.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June 2014 revision. www.barrolee.com . Accessed 15 December 2014. -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 –. 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New York. www.unicef.org/statistics/index_24302.html . Accessed 15 April 2015. - ICF Macro. 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www.measuredhs.com . Accessed 15 March 2015.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학생)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2015. Data Centre. http://data.uis.unesco.org . Accessed 26 March 2015.
추정소득 (PPP\$)	- HDR 연구진이 세계노동기구(ILO, 2015), 유엔경제사회국(UNDESA, 2013), 세계은행(2015), IMF(2015)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5a. Key Indicators on the Labour Market:8th edition. Geneva. www.ilo.org/empelm/what/WCMS_114240/ . Accessed 18 May 2015. - UNDESA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New York. http://esa.un.org/unpd/wpp/ . Accessed 15 April 2015. - World Bank. 201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ashington, DC. http://data.worldbank.org . Accessed 1 July 2015.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ashington, DC.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index.aspx . Accessed 15 April 2015.

4) 측정방법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산정된다.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S_f = \frac{W_f/W_m \cdot EA_f}{W_f/W_m \cdot EA_f + EA_m}$$

S_f : 여성의 임금비율

W_f/W_m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EA_f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비중

여성 1인당 소득추정은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f} = GNI_{pc} \cdot S_f / P_f$$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m} = GNI_{pc} \cdot S_m / P_m$$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GDI는 지표의 표준화를 위해 각 지표에 대한 최소값(Max(x))과 최대값(Min(x))을 설정하고 있다. 각 지표의 최대·최소값은 <표 IV-17>와 활용하고 있고 표준화는 다음과 같다.

$$\text{지표의 표준화} = \frac{x - \text{Min}(x)}{\text{Max}(x) - \text{Min}(x)}$$

한편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분야는 각 지표의 지수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하여 측정한다.

<표 IV-17>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지 표		최 소 값	최 대 값
기대 교육년수		0	18
평균 교육년수		0	18
추정소득		100	75,000
기대여명	여자	22.5	87.5
	남자	17.5	82.5

셋째 단계는 여성 HDI값과 남성 HDI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성 HDI와 남성 HDI는 세 분야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을 취한다.

$$HDI_f = (I_{Healthf} \cdot I_{Educationf} \cdot I_{Incomef})^{1/3}$$

$$HDI_m = (I_{Healthm} \cdot I_{Educationm} \cdot I_{Incomem})^{1/3}$$

넷째 단계는 GDI의 산정으로 여성 HDI와 남성 HDI의 비(ratio)로 산정한다.

$$GDI = \frac{HDI_f}{HDI_m}$$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DI 수준⁵⁷⁾

2014년 한국의 GDI 수준을 보면 전체 5그룹 중 3그룹에 속하며, 161개 국가 중 104위이다. 2015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각 국가의 GDI점수는 발표하되, 순위를 매기지 않고, 대신 5그룹으로 나누어 각 국가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발표하고 있다. 1그룹은 GDI 점수가 0.975이상인 국가이다. 다시 말해 남성과의 격차가 2.5% 이하인 국가를 1그룹으로 상정하였다. 2그룹은 격차가 5%이하(0.950~0.975미만), 3그룹은 7.5% 이하(0.925~0.950), 4그룹은 10% 이하(0.900~0.925미만), 5그룹은 10%를 초과(0.900미만)인 국가로 범주화하였다.

57)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pp. 220-4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국가별 순위대신 수준을 범주화한 이유는 이 GDI지표의 개발 의도가 국가별 비교보다는 남녀 개발지수의 절대 격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를 감소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총점수를 보면 여성 HDI가 0.861, 남성 HDI가 0.926으로 집계되고 있어 2013년에 비해 여성은 0.001p, 남성은 0.011p 증가하였다. 남성의 HDI가 여성에 비해 높게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HDI에 대한 여성의 HDI 즉 GDI는 2013년의 0.940에서 0.930으로 하락하였다.

<표 IV-18> 한국의 GDI 수준

연도	순위/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2011 PPP\$)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4	3그룹 (104/161)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2014)		(2014)		(2014)		(2014)		(2014)	
2013	85/148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2013)		(2013)		(2002~2012)		(2000~2012)		(2013)	

주: () 안은 통계 기준 연도이며, 2002년-2012년 동안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한국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여성은 85.0세, 남성은 78.5세이다. 전년대비 여성은 0.2세 증가한 반면 남성은 0.4세 증가하여 남녀의 격차는 2013년의 6.7년에서 6.5년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여성이 11.2년, 남성이 12.7년으로 1.5년의 격차가 있으며, 기대 교육년수 역시 여성이 16.0년 남성이 17.7년으로 1.7년의 격차가 있다. 2010년 한국 센서스자료에 의하면 여성 10.9년, 남성 12.4년으로 여자가 짧게 나타나지만, 20~29세 연령집단은 여성이 14.3년, 남자가 14.0년으로 여성이 앞지르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짧아지며 특히 50세 이상 집단은 2.9년의 격차가 생긴다. 젊은 집단의 성별 교육년수가 비슷하고, 노령 집단의 교육년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성별 교육년수의 격차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9> 연령별 교육년수(2010)

연령별	전체	여성	남성
평균	11.6	10.9	12.4
6~19세	4.8	4.5	5.0
20~29세	14.1	14.3	14.0
30~39세	14.0	13.9	14.1
40~49세	13.0	12.6	13.4
50세 이상	9.1	7.7	10.6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 「한국의 성인지 통계」

추정소득은 여성이 연 21,896달러인 반면 남성은 46,018달러이다. 추정소득을 위해 사용한 통계는 국민총소득,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 남성임금기준 여성임금비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5,936천 명 여성이 11,370천 명으로 0.438을 기록한다. 이는 지난 15여년간을 비교하면 2000년의 0.411에서 약 0.027p 상승한 것으로, 증가율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0>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전체	22,134	23,743	24,748	25,501	25,873	26,536	25,936
여성	9,101	9,860	10,256	10,609	10,802	11,149	11,370
남성	13,034	13,883	14,492	14,891	15,071	15,387	15,543
여자비중	0.411	0.415	0.414	0.416	0.418	0.420	0.438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홈페이지 <http://gsis.kwdi.re.kr>, 2016.12.3.

여성근로자의 2015년 월평균임금은 2,362천 원, 남성은 3,780천 원으로 여성임금이 남성의 62.5%이다. 2000년 이후 변화를 보면 2000년의 62.9%에서 2013년에 64.6%로 미미하게 증가해오고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하락하는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표 IV-21>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천 원, %)

구분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여 성	1,167	1,673	2,019	2,204	2,368	2,362
남 성	1,855	2,630	3,159	3,404	3,718	3,780
임 금 비	62.9	63.6	63.9	64.7	63.7	62.5

주 :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홈페이지 <http://gsis.kwdi.re.kr>(2016.12.1.)

2) 주요 국가의 GDI 수준

개정된 GDI는 이전의 GDI달리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전의 GDI는 추정소득이 높을수록 GDI 점수가 높게 나와 해당 국가의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새로 바뀐 GDI는 남성 HDI와 여성 HDI의 격차로만 측정하기 때문이다. 즉, 인적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격차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 등의 요인이 제거된다. 따라서 GDI가 높다는 의미는 한 국가의 성별 HDI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별 HDI의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이다.

GDI가 높은 국가 5개에 한하여 이들의 HDI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HDI순위가 상위 5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30위에서 90위까지 넓게 퍼져있다. 둘째, GNI순위와 HDI의 순위를 비교하면 한국은 GNI순위에 비해 HDI순위가 13단계나 높은 국가이다. 즉, 경제적 수준에 비해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국가이다. HDI전체 점수를 비교해도 GDI 점수가 가장 높은 5개국에 비해 HDI점수가 가장 높다. 그러나 GDI 즉 남성개발지수와 여성개발지수의 차이를 보면 한국이 0.930으로 상위 5개국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셋째, 상위 5개 국가가 모두 2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여성개발지수가 남성개발지수보다 너무 높기 때문이다. 즉 1.00이상 1.025미만인 국가는 1등급인데 비해 1.025이상인 국가는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남녀개발지수가 여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남녀의 격차를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세부지표를 보면 상위 5개 국가 중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는 에스토니아, 베네수엘라, 라트비아, 몽고 모두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기대 교육년수는 상위 5개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IV-22> GDI 상위권 국가의 지표와 HDI, GNI 순위(2014년)

국 가 명	HDI			GDI		출생시 기대여명 (년)		평균 교육년수 (년)		기대 교육년수 (년)		추정소득 (PPP US\$)			
	순위	GNI순위와의 차이 ^{a)}	전체	여성	남성	점수	등급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17	13	0.898	0.861	0.926	0.930	3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에스토니아	30	12	0.861	0.872	0.847	0.030	2	81.3	72.0	12.7	12.2	17.4	15.6	20,854	30,254
리투아니아	37	7	0.839	0.851	0.827	1.030	2	78.9	67.7	12.3	12.5	16.9	15.9	20,955	28,656
베네수엘라	71	-2	0.762	0.772	0.749	1.030	2	78.5	70.2	9.2	8.6	15.3	13.1	12,458	19,840
라트비아	46	4	0.819	0.829	0.825	1.028	2	78.9	69.1	11.7	11.2	15.9	14.6	18,437	26,845
몽고	90	4	0.727	0.737	0.716	1.028	2	73.9	65.3	9.5	9.0	15.3	13.9	9,029	12,462

주: a=GNI순위-HDI순위

OECD국가의 GDI현황을 보면 HDI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GDI 순위는 넓게 퍼져있다. 에스토니아의 점수가 1순위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34개국 중 33위, 터키가 34위로 최하위이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GDI 점수가 가장 높은 에스토니아는 2등급이며⁵⁸⁾ 폴란드부터 벨기에까지 17개 국가가 GDI가 1등급에 속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부터 스위스까지 11개 국가가 2등급이고, 한국과 네덜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가 3등급, 터키가 4등급이다.

지표별 차이를 보면 GDI 상위 5개국과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1등급의 국가 중 상당수가 평균 교육년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슬로바키아,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헝가리의 여성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길다. 2등급 국가의 경우 벨기에만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길다. 평균 기대교육년수 지표 역시 한국은 여성이 16.0년, 남성이 17.7년으로 1.7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등급 국가의 경우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여성보다 길다.

58) 1등급 범주인 0.975-1.000과 1.000-1.025의 범위를 벗어나서 2등급임. 즉 여성의 HDI가 남성이 비해 높은 경우에도 격차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

<표 IV-23>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4년)

국 가 명	등급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PPP US\$)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3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에스토니아	2	1.030	0.872	0.847	81.3	72.0	12.7	12.2	17.4	15.6	20,854	30,254
폴란드	1	1.007	0.844	0.839	81.4	73.4	11.7	11.9	16.3	14.7	18,423	28,271
슬로바키아	1	0.999	0.841	0.842	79.9	72.5	12.3	12.2	15.7	14.5	19,903	32,122
스웨덴	1	0.999	0.906	0.906	83.9	80.4	12.2	12.0	16.6	15.1	40,222	51,084
핀란드	1	0.996	0.879	0.882	83.6	78.0	10.2	10.2	17.7	16.5	31,644	45,994
노르웨이	1	0.996	0.940	0.944	83.6	79.5	12.7	12.5	18.2	16.8	57,140	72,825
슬로베니아	1	0.996	0.877	0.881	83.4	77.3	11.8	12.0	17.7	16.0	22,180	33,593
미국	1	0.995	0.911	0.916	81.4	76.7	13.0	12.9	17.2	15.7	43,054	63,158
프랑스	1	0.987	0.881	0.893	85.1	79.2	11.0	11.3	16.4	15.6	31,073	45,497
포르투갈	1	0.985	0.823	0.836	83.8	77.9	8.1	8.4	16.5	16.1	21,259	30,543
캐나다	1	0.982	0.904	0.921	84.0	80.0	13.1	13.0	16.3	15.5	33,587	50,853
체코	1	0.980	0.859	0.877	81.5	75.7	12.1	12.5	16.9	15.8	19,929	33,604
덴마크	1	0.977	0.912	0.934	82.2	78.3	12.8	12.7	19.3	18.1	36,439	51,727
헝가리	1	0.976	0.818	0.838	78.7	71.5	11.3	12.2	15.7	15.1	17,443	28,960
호주	1	0.976	0.922	0.945	84.5	80.3	13.1	12.9	20.7	19.7	33,688	50,914
스페인	1	0.975	0.863	0.885	85.3	79.8	9.4	9.8	17.7	17.0	24,059	40,221
아이슬란드	1	0.975	0.886	0.909	84.0	81.0	10.8	10.4	20.1	17.9	28,792	41,486
벨기에	1	0.975	0.872	0.895	83.2	78.3	10.6	11.1	16.7	16.0	31,879	50,845
아일랜드	2	0.973	0.901	0.926	83.0	78.8	12.3	12.0	18.5	18.7	30,104	49,166
이스라엘	2	0.971	0.879	0.905	84.1	80.5	12.5	12.6	16.5	15.5	22,451	39,064
룩셈부르크	2	0.971	0.877	0.903	83.9	79.3	11.3	12.1	14.0	13.7	47,723	69,800
칠레	2	0.967	0.815	0.843	84.5	78.6	9.7	9.9	15.5	15.0	14,732	27,992
영국	2	0.965	0.888	0.920	82.6	78.7	12.9	13.2	16.6	15.8	27,259	51,628
이탈리아	2	0.964	0.851	0.883	85.5	80.6	9.5	10.2	16.5	15.6	22,526	44,148
독일	2	0.963	0.901	0.936	83.3	78.5	12.9	13.8	16.3	16.6	34,886	53,290
일본	2	0.961	0.870	0.905	86.7	80.2	11.3	11.7	15.2	15.5	24,975	49,541
뉴질랜드	2	0.961	0.894	0.930	83.6	80.0	12.5	12.6	20.0	18.3	24,309	41,372
그리스	2	0.961	0.844	0.879	83.8	78.0	9.8	10.5	17.7	17.6	17,288	31,952
스위스	2	0.950	0.898	0.945	85.0	80.8	11.5	13.1	15.7	15.9	44,132	69,077
네덜란드	3	0.947	0.893	0.943	83.3	79.7	11.6	12.2	18.0	17.9	29,500	61,641
멕시코	3	0.943	0.731	0.775	79.2	74.4	8.2	8.8	13.2	12.9	10,233	22,252
오스트리아	3	0.943	0.856	0.909	83.8	78.8	9.9	11.9	16.1	15.4	29,598	58,826
터키	4	0.902	0.716	0.793	78.5	72.0	6.7	8.5	14.0	15.1	10,024	27,645
평균	-	0.973	0.867	0.892	83.1	77.9	11.3	11.6	16.9	16.1	27,741	44,864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⁵⁹⁾

1) 성불평등지수의 특징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영역에서 젠더에 기초하여 얼마나 불리한지를 측정한다. 이 지수는 세 영역간의 성취에 있어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개발의 잠정적인 손실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GI의 특징을 보면 첫째, 남녀비교 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G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오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하 GEM)가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인 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라는 보다 인간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둘째, G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설계됐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해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지수 값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면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사망비 증가 등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이나, GI는 불평등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GI는 다른 성불평등 지수와 달리 소득변수가 제외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지수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성불평등 격차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과 국가

59)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102-106을 인용함.

별 소득관련 통계가 종종 부재함에 따라 대체변수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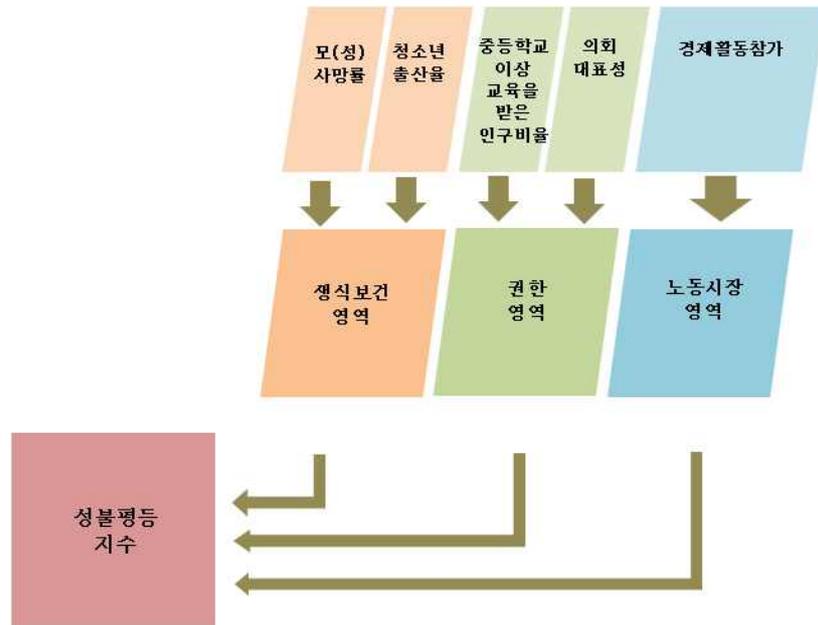
2) 지표구성

GII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여성특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여성의 건강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출산은 건강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산모의 미래의 인간개발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성권한 영역은 여성의원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로서 정치분야의 권한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영역에서 교육분야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이다.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GE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그림 면적은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나타냄.
 자료: 김태홍 외(2011), 「지역성평등지수표준안연구」, p.22

[그림 IV-2] GII의 영역과 지표 구성

<표 IV-24>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	지 표	내 용
생식보건 영역	모성 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UN의 출산율 전망치 활용)
권한 영역	여성의원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시장 영역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유엔 모성사망 추정 집단(2013),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2013), 국제의원연맹(IPU, 2013), Barro and Lee(2013),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13), 국제노동기구(ILO, 2013)이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유엔의 모성사망 추정집단의 결과(2013)를 활용하여, 청소년 출산율은 유엔 경제사회국(2013)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며,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13)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제노동기구(ILO, 2013)의 노동시장 지표에서 수집하였다.

<표 IV-25> GII의 지표별 자료원

지표	자료원
모성 사망비	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World Bank). 2014. Maternal mortality data. www.childinfo.org/maternal_mortality_ratio.php . Accessed 15 April 2015
청소년 출산율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New York. http://esa.un.org/unpd/wpp/ . Accessed 15 April 2015.
여성의원 비율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2015.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www.ipu.org/wmn-e/classif-arc.htm . Accessed 12 March 2015.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2015. Data Centre. http://data.uis.unesco.org . Accessed 26 March 2015
경제활동 참가율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5. Key Indicators on the Labour Market:8th edition. Geneva. www.ilo.org/empelm/what/WCMS_114240/ . Accessed 18 May 2015.

주: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p. 271.

4) 측정방법⁶⁰⁾

GII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⁶¹⁾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수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성별로 영역을 통합하는 과정

첫 번째 단계는 0과 극단 값을 처리하고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성별로 영역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즉, 첫 단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여성(G_F)과 남성(G_M)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0'과 극단적인 값의 처리이다. 왜냐하면 기하평균은 '0'의 값을 가질 수 없다. 이에 최소값은 구성 지표 값이 '0'일 경우 0.1%로 값을 설정하였다. 반면 모성사망비는 최소값 10, 최대값 1,000을 기준으로 절단하였다. 최대값 1,000의 경우 모성사망비가 1,000을 초과하는 국가는 모성보건과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규범적인 가정에 기초한다. 이와 유사하게 출산아 10만 명당 1~10명이 사망하는 국가는 동일한 보건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F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G_M = \sqrt[3]{1 \cdot (PR_M \cdot SE_M)^{\frac{1}{2}} \cdot LFPR_M}$$

여기서 MMR=모성 사망률, AFR=청소년 출산율, PR_F =여성의원비율, PR_M =남성의원비율, SE=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인구비율, LFPR=경제활동 참가율이다.

60) 김태홍 외(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110-111을 인용, 수정·보완함.

61)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함. 불평등혐오수준(ϵ)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epsilon=0$ 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ϵ 값을 높임.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ϵ)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silon=2$ 를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음.

②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성별 합산하는 과정

두 번째 단계는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기하평균의 조화평균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영역간 연관성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HARM(G_F, G_M) = \left[\frac{(G_F)^{-1} + (G_M)^{-1}}{2} \right]$$

③ 각 지수에 대해서 산술평균값의 기하평균을 산정하는 과정

세 번째 단계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여기서 참고수준은 영역내 지표를 산출평균한 후 영역간 동일가중치를 사용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G_{\overline{F, 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loyment} \cdot \overline{Labourmarket}}$$

$$\text{여기서, } \overline{Health} = (\sqrt{(10/MMR) \cdot (1/AFR)} + 1)/2,$$

$$\overline{Employment} = \frac{(\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2},$$

$$\overline{Labour market} = (LPFR_F + LPFR_M)/2.$$

④ 성불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과정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불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으로 $HARM(G_F, G_M)$ 을 $G_{\overline{F, 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이는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과 같다.

$$GII = 1 - \frac{HARM(G_F, G_M)}{G_{\overline{F, M}}}$$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⁶²⁾

1) 한국의 GII수준

2015년(2014년 기준) 공표된 GII에서 한국은 전체 155개국 중 23위(0.125)로 2013년의 17위(0.101)대비 6단계 하락하였다.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한 것이고, 1이면 완전 불평등한 것으로 작년에 비해 0.024p 증가하였으므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순위의 주된 하락요인은 모성사망비의 상승으로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임산부가 16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한 것이므로 볼 수 있다.

지표별로 보면 여성권한 부분의 여성의원 비율은 16.3%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고, 노동참여부분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에서 50.1%로, 남성은 72.0%에서 72.1%로 상승하였다. 모성사망비는 2014년의 10만 명당 16명(2010년 통계)에서 2015년 27명(2013년 통계)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실제 현실과 차이가 있다. 이는 통계청 조사 결과 모성사망비는 2010년 15.7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GII 산정 시에는 UNDP에서 추계한 수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 출산율은 추계치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동일한 통계 2.2명이 활용되고 있다. 중등이상 교육은 2014년과 동일한 통계를 활용하여서 여성은 77.0%, 남성은 89.1%이다.

지표를 2010년과 비교하면 모성사망비는 14명에서 27명으로 악화되었으며, 청소년 출산율은 5.5%에서 2.2%로 하락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의원 비율은 2010년의 13.7%에서 16.3%로 약 2.6%p증가하였다. 중등이상 교육인구를 보면 2010년은 여성은 79.4%, 남성은 91.7%로 12.3%p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5년은 남녀 모두 감소하여 각각 77.0%, 89.1%가 되어, 감소한 가운데, 비슷한 격차인 12.1%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순위 변화를 보면 2010년의 20위에서 2011년에 11위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2년은 27위, 2013년은 17위, 2014년 23위로 20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전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되었으나, 향후 지표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62) 본 내용은 2016년 12월 15일 현재 GII가 공표되지 않아,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107-110을 수정 보완함.

<표 IV-26> 한국의 GII 수준 추이

연도	순위/대상	점수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2014	23/152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2013)	(2010/2015)	(2014)	(2005-2014)		(2013)	
2013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2010)	(2010/2015)	(2013)	(2005~2012)		(2012)	
2012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0)	(2012)	(2012)	(2010)		(2011)	
2011	11/146	0.111	18	2.3	14.7	79.4	91.7	50.1	72.0
			(2008)	(2011)	(2011)	(2010)		(2009)	
2010	20/138	0.310	14	5.5	13.7	79.4	91.7	54.5	75.6
			(2008)	(2008)	(2008)	(2010)		(2008)	

주: () 안은 통계 기준 연도이며, 2005~2012년 동안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2) 주요 국가의 GII 수준

GII의 점수는 성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 값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것으로 읽는다. 2015년(2014년 기준) 공표한 GII의 순위를 보면, 슬로베니아(0.016), 스위스(0.028), 독일(0.041)은 작년과 동일하게 1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평등 또한 향상되었다. 4위는 2014년의 스웨덴에서 덴마크(4위, 0.048)로 바뀌었으나 5위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5위, 0.053)가 차지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23위, 0.125), 일본(26위, 0.133)로 비교적 상위권이 나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OECD 회원 34개국 중 우리나라 GII는 21번째로 20위인 아일랜드와 22위인 캐나다의 사이에 위치한다.

지표별로 보면, 1위인 슬로베니아의 모성사망비는 10만 명당 7명으로 우리나라

의 27명에 비해 20명이 적다. 청소년 출산율 역시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0.6명으로 우리나라의 2.2명에 비해 1.6명이 적었다.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27.7%로 우리나라에 비해 11.4%가 높으며,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가 여성은 95.8%, 남성은 98.0%로 거의 100%에 가까워, 우리나라의 여성 77.0%, 남성 89.1%에 비해 각각 18.8%p, 8.9%p가 높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슬로베니아는 여성이 52.3%로 우리나라의 50.1%에 비해 2.2% 높은 반면 남성은 각각 63.2%, 72.1%로 우리나라가 8.9%p 높았다.

OECD국가 전반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모성사망률은 우리나라가 27명으로 멕시코의 49명, 미국의 28명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4명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이다. 청소년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편으로 슬로베니아의 0.6명, 스위스의 1.9명 다음으로 낮다. 반면 멕시코는 64.9명, 칠레 55.3명, 터키 30.9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여성의원 비율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헝가리가 10.1%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국가는 일본 11.6%, 터키 14.4%, 칠레 15.8%이다. 우리나라는 16.3%로 34개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30위이다.

여성 중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77.0%로 OECD 회원국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터키가 39.0%로 가장 낮고, 포르투갈이 47.7%, 멕시코가 55.7%이고, 한국이 31위이다. 남성과의 격차를 보면 터키가 21.0%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며, 한국이 12.1%로 그 다음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반면 노르웨이, 체코, 아일랜드, 일본, 미국은 여성의 중등이상 교육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성이 50.1%, 남성이 72.1%로 22.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회원국 중 20%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터키(41.4%p), 멕시코(34.8%p), 칠레(25.6%p), 일본(21.6%p)으로 우리나라는 31위이다.

<표 IV-27>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4년 기준)

국 가 명	순 위	점 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대한민국	23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슬로베니아	1	0.016	7	0.6	27.7	95.8	98.0	52.3	63.2
스위스	2	0.028	6	1.9	28.5	95.0	96.6	61.8	74.9
독일	3	0.041	7	3.8	36.9	96.3	97.0	53.6	66.4
덴마크	4	0.048	5	5.1	38.0	95.5	96.6	58.7	66.4
오스트리아	5	0.053	4	4.1	30.3	100.0	100.0	54.6	67.7
스웨덴	6	0.055	4	6.5	43.6	86.5	87.3	60.3	67.9
네덜란드	7	0.062	6	6.2	36.9	87.7	90.5	58.5	70.6
벨기에	8	0.063	6	6.7	42.4	77.5	82.9	47.5	59.3
노르웨이	9	0.067	4	7.8	39.6	97.4	96.7	61.2	68.7
이탈리아	10	0.068	4	4.0	30.1	71.2	80.5	39.6	59.5
핀란드	11	0.075	4	9.2	42.5	100.0	100.0	55.7	64.0
아이슬란드	12	0.087	4	11.5	41.3	91.0	91.6	70.5	77.4
프랑스	13	0.088	12	5.7	25.7	78.0	83.2	50.7	61.6
체코	15	0.091	5	4.9	18.9	99.9	99.7	51.1	68.3
스페인	16	0.095	4	10.6	38.0	66.8	73.1	52.5	65.8
룩셈부르크	17	0.100	11	8.3	28.3	100.0	100.0	50.7	64.6
이스라엘	18	0.101	2	7.8	22.5	84.4	87.3	57.9	69.1
호주	19	0.110	6	12.1	30.5	94.3	94.6	58.8	71.8
포르투갈	20	0.111	8	12.6	31.3	47.7	48.2	54.9	66.2
아일랜드	21	0.113	9	8.2	19.9	80.5	78.6	53.1	68.1
캐나다	25	0.129	11	14.5	28.2	100.0	100.0	61.6	71.0
일본	26	0.133	6	5.4	11.6	87.0	85.8	48.8	70.4
폴란드	28	0.138	3	12.2	22.1	79.4	85.5	48.9	64.9
그리스	29	0.146	5	11.9	21.0	59.5	67.0	44.2	62.5
뉴질랜드	32	0.157	8	25.3	31.4	95.0	95.3	62.0	73.8
에스토니아	33	0.164	11	16.8	19.8	100.0	100.0	56.2	68.9
슬로바키아	33	0.164	7	15.9	18.7	99.1	99.5	51.1	68.6
영국	39	0.177	8	25.8	23.5	99.8	99.9	55.7	68.7
헝가리	42	0.209	14	12.1	10.1	97.9	98.7	44.8	60.0
미국	55	0.280	28	31.0	19.4	95.1	94.8	56.3	68.9
칠레	65	0.338	22	55.3	15.8	73.3	76.4	49.2	74.8
터키	71	0.359	20	30.9	14.4	39.0	60.0	29.4	70.8
멕시코	74	0.373	49	63.4	37.1	55.7	60.6	45.1	79.9
평균	23	0.128	10	13.5	27.7	85.4	88.1	53.2	68.1

3. 국가성평등지수와 국제 성평등 지수의 비교

국가성평등지수(이하 KGEI)는 2009년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성평등지수를 제고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이에 앞서 언급한 국제성평등지수와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을 간략히 비교해 보면 <표 IV-28>과 같다.

먼저 지수의 생산년도를 비교해 보면, 첫 발표연도가 GGI는 2006년이고 KGEI가 2009년, GII가 2010년이다. 생산주기는 세 지수 모두가 1년으로 동일하다.

지수 측정은 GGI와 KGEI가 성과수준의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반면, GII는 성취수준의 불평등 정도에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지수를 산정한다. KGEI와 GGI는 성 격차를 좁히는데 더 관심을 두고 측정되며, GII는 수준과 격차 모두에 관심을 두고 측정된다. 구체적으로 GII는 성별 성과에 불평등 정도를 Atkinson 불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계산하고, KGEI와 GGI는 지표의 성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단, KGEI와 GGI가 측정방법에서 다른 점은 가중치부여 방법이다. KGEI는 지표가중치와 영역가중치를 모두 부여하는 반면, GGI는 지표 가중치만 활용한다.

지표구성은 GII가 3개 영역에 5개 지표로 가장 적고, GGI가 4개 영역에 14개 지표이며, KGEI가 8개 영역에 25개 지표로 가장 많은 영역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 지수의 지표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GII와 GGI는 KGEI 영역 중 안전, 복지, 문화·정보 영역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GII는 세 영역 외에도 가족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다. 단, GGI는 KGEI에 비해 취학을 지표를 세 개로 나누어 측정하고, 의사결정 영역에서 KGEI보다 많은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GII 구성지표의 특징은 여성특화지표인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을 보건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이는 KGEI와 GGI는 보건영역에서 일반적인 성별수준의 격차를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며 GII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성평등지수는 측정목적에 따라 지표를 구성하고 측정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평등지수는 그 목적에 의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GII의 가장 큰 한계는 제한된 지표 사용으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특화지표를 포함하고 이를 수준으로 측정함으로써, 지수 산정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는 것이다. 즉, 여성 특화 지표의 값이 매우 낮은 국가는 성불평등이 없는 국가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반면 KGEI와 GGI는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두 지수는 남녀의 수준과 관계없이 격차만으로 성평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성평등 수준에 대한 오해와 국가별 순위가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IV-28> KGEI, GGI, GII 지표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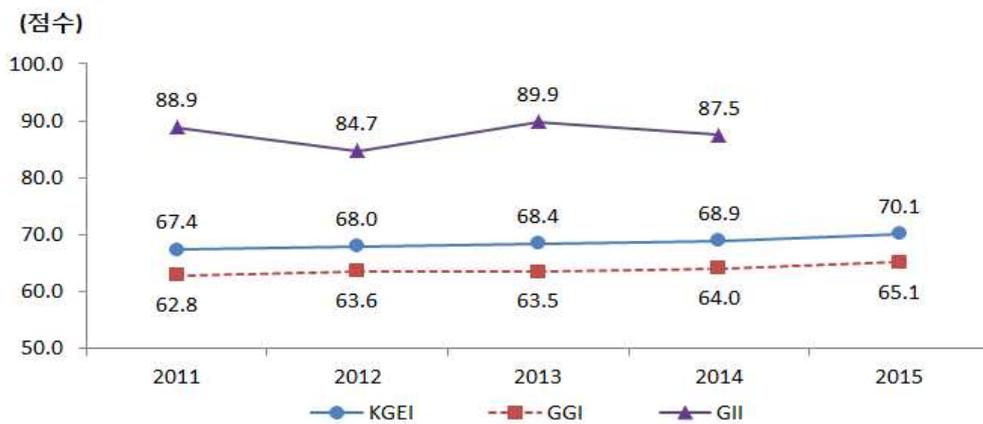
영역	KGEI 구성지표	GGI 구성지표	GIJ 구성지표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유사직종에 대한 임금에 대한 성비 -전문 및 기술직 비율에 대한 성비 -추정소득에 대한 성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비율성비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비율 성비 -장관급 성비 -지난 50년간 국가 수장(총리 이상) 재직기간 성비	-국회의원비율성비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출생성비	
복지	-비빈곤 여성가구주 비율 -공적연금가입률 -장애인 여성 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건강수명 성비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교육·직업 훈련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직업훈련 참여근로자 비율	-문해율 성비 -초등 취학률 성비 -중등 취학률 성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중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인구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표 IV-29> KGEI, GGI, GII의 지수 특성 비교

구분		성불평등지수(GII)	성격차지수(GGI)	국가성평등지수(KGEI)
생산기관		UNDP	WEF	대한민국
생산년도 및 주기		2010년 이후 매년 발표	2006년 이후 매년 발표	2009년 이후 매년 발표
지수 측정 관심		-성취수준의 성불평등 정도 (수준과 격차)	-성취수준의 성별격차	-성취수준의 성별격차 단, 일부지표는 수준과 격차를 동시에 측정
지표구성		-3개 영역에 5개 지표	-4개 영역에 14개 지표	-8개 영역에 21개 지표
측정 방법	측정기준	-성별 평균성취(average achievement)	-성비(Sex ratio)	-성비(Sex ratio)
	가중치	-지표 : 없음 -영역 : 없음	-지표 : 1%p 변화에 대한 표준편차의 변화 -영역 : 없음	-지표 : 해당지표 관련 통계의 성비 -영역 : 경제활동 및 소득 0.19, 교육 0.14, 복지와 의 사결정이 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문화·정보가 0.08
	지수산정	-Atkinson의 불평등지수 산정 방법	-단순평균	-가중평균
지수 특징		-영역과 영역내 지표들간 연관 민감 성 반영	-GDI와 GEM의 구성지표를 복합적으 로 활용 -국가의 발전수준과 관계없이 성평등 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 수 준 측정	-한국형 성평등지수 -성평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 지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관리지표 구성
지수 한계		-제한된 지표 사용으로 정책지표로 한계 -여성특화지표 포함 문제	-격차만으로 성평등 측정 -국가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음.	-격차만으로 성평등 측정

세 지수의 점수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점수를 모두 100점으로 재산정하였다. 또한 GII는 성불평등지수이기 때문에, KGEI와 GGI와의 비교를 위해 1-GII 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했다. <그림 IV-3>를 보면, 측정방법이 동일한 KGEI와 GGI는 지표구성이 약간 다름에도 변화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GII는 구성지표가 적고 측정방법이 두 지수와 다름에 따라 성평등 점수는 물론 연도별 변화추이도 약간 다르다.

성평등지수별로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성평등지수인 KGEI는 2011년 67.4점에서 2012년 68.0점, 2013년 68.4점, 2014년 68.9점, 2015년 70.1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단 상승 폭은 2012년은 전년대비 0.6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2013년은 0.4점, 2014년은 0.5점, 2015년은 0.2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GGI는 2011년 62.8점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추이를 보인다. 단, KGEI와 달리 2013년은 다소 하락하지만 2015년까지 상승흐름을 이어가서, 2015년은 65.1점으로 2011년 대비 2.3점 상승한다. KGEI가 동기간 2.7점 상승하고 있어 두 지수의 전반적 증감 추이는 비슷하다할 수 있다. 반면 GII 점수를 보면 2011년 88.9점으로 다른 두 지수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이는 앞서 언급했지만 GII의 지표구성과 측정방법이 두 지수와 다르고 보건 지표로 여성특화지표를 불평등의 지표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012년 GII가 크게 하락하는 데, 이는 한국의 청소년 출산율 통계 추계 문제 때문이었으며, 2013년 이를 개선한 후 점수의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2014년은 다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불평등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V-3] KGEI, GGI, GII의 우리나라 성평등점수 비교

4. 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 정책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경제, 의사결정, 교육, 복지, 안전 등 8개 분야를 포괄하여 측정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5년 간 꾸준히 상승추이를 보이며, 여성 고용률, 육아휴직 사용자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는 국제성평등지수의 측정방식의 문제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 등에서 여성지위가 취약하고 국제사회에 비해 지표의 개선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은 여성가족부가 국제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노력들을 정리하고 국제 성평등지수 순위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들을 소개하고 자 한다.

가. GII와 GGI의 개선 노력

1) 성불평등 지수(GII)의 개선 노력과 성과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청소년 출산율은 매우 낮고 2010년 이래 매년 하락하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GII 발표하는 청소년출산율은 매우 높게 제시
 - GII 청소년 출산율: 2010~2015년 5.8명
 - 한국 통계청이 조사한 청소년 출산율: 2010년 1.8명 → 2015년 1.4명

□ 원인

- UNDP가 발표하는 GII의 청소년출산율은 UNDP에서 세계인구전망을 통해 추계된 장기추계전망치를 활용함.
 - 하지만 이 전망치는 장기추계에 있어 청소년출산율이 증가할 것을 가정하고 추계되었기에 한국 통계청의 실제 통계와 일치하지 못함.

□ 개선제안

- 2012년 UNDP 추계담당자와 한국 청소년 출산율 추계의 문제점을 논의

- UNDP는 장기인구추계에서 한국의 문제점 제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추계치를 발표
 - ※ 2010-2015년 추계치 : 기존 5.8 → 개정 2.2
- 이를 통해 한국의 GII는 2012년 0.153(27위/148개국)에서 2013년 0.101(17위/152개국)로 순위 상승

<표 IV-30> 세계인구전망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청소년(15~19세) 출산율

연도	기존	개정
1995-2000	3.0	3.0
2000-2005	2.2	2.2
2005-2010	2.3	2.1
2010-2015	5.8	2.2
2015-2020	6.3	2.4
2020-2025	6.6	2.5
2025-2030	7.0	2.6

2) 성격차지수(GII)의 개선 노력과 성과

① 출생성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출생성비(여아/남아)는 2011년 이후 자연 출생성비(0.94)에 도달 하였음에도 GGI에서는 2012년부터 0.93으로 동일하게 측정
 - GGI 산정에서 한국의 출생성비(CIA 통계 활용): 2015년 0.93(128위 /145개국)
 - 한국 통계청이 조사한 출생성비: 2015년 0.95
 - ※ 참고로 출생성비는 여아 대비 남아 출생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GGI 산정에서는 남아 대비 여아 출생수로 전환하여 사용

□ 원인

- GGI 산정 시 활용하는 CIA(The CIA World Factbook) 자료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한국 통계청 조사 결과와 차이 존재)

- CIA는 통계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나, 한국의 2010년 통계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음

<표 IV-31> 출생성비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IA 통계 (GGI 산정 시 활용)	Male/Female	1.07	1.07	1.07	1.07	1.07	1.07
	Female/Male	0.93	0.94	0.93	0.93	0.93	0.93
한국 통계 (통계청 발표)	Male/Female	1.069	1.057	1.057	1.053	1.053	1.053
	Female/Male	0.935	0.946	0.946	0.950	0.950	0.950

주: CIA에서는 Male/Female 통계만 발표, Female/Male 통계는 WEF에서 산정

개선제안

- 국가별 공식통계를 활용해 출생성비를 발표하는 UN 통계 활용 요청
 - UN 통계는 한국의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
 - ※ 한국 통계청은 매년 출생아 수를 성별 구분하여 UN에 제출
 - ※ UN 통계DB의 한국 출생성비(남아/여아)
 - : 2010년 1.07 → 2011년 1.06 → 2012년 1.06 → 2013년 1.05

기존 자료원	변경 자료원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 The CIA World Factbook 2014, data updated weekly	UN, 통계DB - STATISTICAL DATABASES - Demographic Yearbook

2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성비

현황 및 문제점

- GGI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과 중등학교 취학률은 남성이 여성 보다 높게 측정
 - 한국의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중등학교 취학률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 취학률(2014년 기준): GGI(여성 97%, 남성 98%), 한국 통계 (여성 96.1%, 남성 96.6%)

※ 중등학교 취학률(2014년 기준): GGI(여성 97%, 남성 98%), 한국 통계 (여성 95.9%, 남성 95.4%)

□ 원인

- WEF는 GGI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산정 시 UNESCO 통계를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GGI와 UNESCO 통계 간 차이 존재
 -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표 IV-32> 주요국의 취학률 통계 비교(2013년)

(단위: %)

구 분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프랑스	
		여성	남성								
초등학교 취학률	GGI	97	98	99	99	100	99	97	97	99	98
	UNESCO	95.99	96.61	98.45	98.10	99.82	99.91	97.53	97.19	99.04	98.43
중등학교 취학률	GGI	97	98	99	98	96	94	86	85	98	96
	UNESCO	95.68	96.58	96.93	95.61	95.05	94.69	88.18	85.57	99.76	98.79

주: 통계 생산년도 기준이며,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 통계임

출처: WEF, Gender Gap Report, 각년도;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또한, UNESCO 통계도 한국의 실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UNESCO에서 취학률 산정 시 재적학생수는 한국이 제출 자료*를 활용하나, 학령인구수는 UN(Population Division)의 인구추계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임
 - ※ 한국은 UOE(UNESCO/OECD/Eurostat) 국제교육통계조사 자료로 초·중등학교 연령별 인구수(장래인구추계)와 학생수(교육통계연보)를 매년 OECD에 제출

<표 IV-33>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 및 취학 적령인구 수 통계 비교(201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한국이 OECD에 제출한 자료 (UOE 국제교육통계조사)		UN 인구추계		취학 적령인구 수 차이 (c-b)
	재적학생 수(a)	취학 적령인구 수(b)	취학 적령인구 수(c)		
초등학교 (6~11세)	여성	1,303,543	1,343,262	1,358,051	14,789
	남성	1,410,670	1,444,410	1,460,119	15,709
중등학교 (12~17세)	여성	1,743,096	1,795,179	1,821,709	26,530
	남성	1,916,988	1,974,977	1,984,818	9,841

출처: 한국이 OECD에 제출한 자료(재적학생 수: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학령인구 수: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
UN 인구추계(UN Population Division(<http://esa.un.org/unpd/Download/Standard/Interpolated>); UNESCO Statistical Institute(<http://data.unesco.org>))

- 즉, UN 인구추계에서 중등학교 취학 적령 여성인구가 과다하게 추계되어 현실과 다르게 여성보다 남성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높게 측정되는 문제 발생
- ※ 한국의 중등학교 재적학생 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으나, 이는 취학적 적령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중등학교 취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표 IV-34>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률 분석 결과 비교(2013년 기준)

구분	GGI			UNESCO			한국 통계		
	여성	남성	성비 (여/남)	여성	남성	성비 (여/남)	여성	남성	성비 (여/남)
초등학교 취학률	97%	98%	0.99	95.99%	96.61%	0.99	97.04%	97.66%	0.99
중등학교 취학률	97%	98%	0.99	95.68%	96.58%	0.99	97.10%	97.06%	1.00

주: 1) 초등학교취학률 = $\frac{6\sim 11\text{세 초등학교 재적학생수}}{6\sim 11\text{세 인구}}$,
중등학교취학률 = $\frac{12\sim 17\text{세 중등학교 재적학생수}}{12\sim 17\text{세 인구}}$
2) UNESCO Statistical Institute의 경우 2014년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오류임. 이에 이 부분에 대해 UNESCO와 협의 진행 중

□ 개선제안

- GGI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취학을 지표 산정 시 UNESCO 통계를 정확히 인용해 줄 것을 요청
- 취학 적령인구 추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UNESCO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

③ 유사업무 임금성비

□ 현황 및 문제점

- GGI에서 한국의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임금 수준은 2015년 0.55(116위/145개국)로 낮게 측정되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
 - 이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업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0.63보다 훨씬 낮은 수치
 - ※ 통상 ‘유사업무 임금성비’는 ‘임금성비’보다 크게 나타나야함

<표 IV-35> 임금성비 비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GI) 유사업무 임금성비 (WEF 산정, 설문조사)	0.51 (128위/135국)	0.54 (117위/135국)	0.52 (120위/135국)	0.51 (125위/142국)	0.55 (116위/145국)
(한국 통계) 임금성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0.633	0.644	0.640	0.631	0.628

주 : 임금성비=여성 월급여액/남성 월급여액,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 원인

- 유사업무에서 남녀 임금이 동등한가에 대해 한정된 집단(기업 CEO) 대상 주관적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로 측정하므로 실제 각국의 임금성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여성들의 임금은 유사업무를 하는 남성들의 임금과 동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가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동등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국가일수록 남녀 임금격차도 크다고 답변할 개연성이 높음

한국의 고위경영자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개요	
▶ (목적)	WEF가 세계 주요 국가의 경쟁력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
▶ (조사수행)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 (대상/규모/방법)	기업 최고 경영자(CEO), 'Top 3 manager'로 제한/100명/방문 조사
▶ (유사업무 임금성비 조사문항)	<p>귀국에서 여성들의 임금은 유사업무(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 정도, 작업조건 등의 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업무를 하는 남성들의 임금과 동등합니까?</p> <p>남성들의 임금에 비해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남여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아주 낮다</p>

-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헝가리 등에서 객관적 통계 조사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보다 GGI 산정을 위해 설문조사로 측정된 '유사업무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헝가리의 경우 OECD 통계 조사에서는 캐나다보다 성별 임금격차가 작게 나타났으나, GGI의 '유사업무에서 임금격차'는 캐나다보다 더 큰 것으로 측정

<표 IV-36> WEF와 OECD의 임금성비 비교

구분		2012	2013	2014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임금 동등 수준 (WEF, 국가별 설문조사)	한국	0.54	0.52	0.51
	캐나다	0.71	0.73	0.72
	헝가리	0.47	0.48	0.50
임금성비(중위값) (OECD, 국가별 통계 분석)	한국	0.637	0.634	0.633
	캐나다	0.805	0.807	0.808
	헝가리	0.887	0.913	0.962

□ 개선제안

- (1안) 유사업무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유지하되,
 - 응답자의 정확한 질문내용 이해를 돕고,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답변 경향을 완화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변경 요청

기준	귀국에서 여성들의 임금은 유사업무(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 정도, 작업조건 등의 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업무)를 하는 남성들의 임금과 동등합니까? 남성들의 임금이 비해 아주 낮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남성이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
↓	
변경	귀국에서는 <u>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규모, 직급, 근속연수, 근로시간, 학력 등이 유사할 때</u>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입니까? 남성들의 임금이 비해 아주 낮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u>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u>

- (2안)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국가별 객관적 통계 자료 활용 요청
 - ILO, OECD의 통계DB를 활용하거나, 국가별로 공식 발표하는 성별임금격차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

나. 국제 성평등 지수 순위 제고 정책

여성가족부는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현황이 낮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의 취약한 여성지위 때문으로 본다. 유리천장지수는 경제·의사결정 분야 지표 점수 비율이 62%로 매우 크며, GGI의 경우 우리나라는 두 분야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 격차로 측정되는 지수의 특성 때문으로 본다. 예를 들어 GII의 경우 수준과 격차를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순위가 2014년 155개국 중 23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지만, 격차만으로 측정하는 GGI는 매우 낮은 수준(145개국 중 115위)을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양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개선 속도 때문이다. 이는 GGI 점수 향상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하락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외 일부지표가 한국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즉, 출생성비, 초·중·고 취학률, 유사업무 임금성비 은 통계활용 문제 등으로 한국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순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대표적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관리직 비율, 여성 장관 비율로 보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와 중장기적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제성평등지수

순위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⁶³⁾

1) 단기과제

① 공공·민간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

- 민간부문 주요기업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 근거를 마련(양성평등기본법 개정)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민간의 자발적 노력 유도
 - ※ 2015년 기준 1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 조사·공표(2016.7.28.)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기업 명단 공표(2016년 말 공표)
- 공공부문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대표성 제고 목표제 수립 계획 2017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 4급이상 여성공무원(15%),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40%), 공공기관 여성관리자(18.8%) 등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2017년부터 도입
 - 금년 내에 Clean-eye 시스템(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에 직급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목표제 도입 기반 마련
 - ※ 2017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시범적용, 2020년부터 200인 이상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등
 - 과장급·고위공무원 직위에 여성공무원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명단 공표(2016.12.)
 - ※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 직위에 1명 이상 여성 임용되도록 독려, 개방형 직위 선정 시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여성 우선 임용 권고
 - 정부위원회 위원의 성별 참여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신설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 40% 확보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② 일·가정 양립 지원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 안내 및 사후 감독을

63) 국제성평등지수의 개선방안은 여성가족부가 GGI 개선을 위해 국무회의, 장관회의 등에 보고된 정책 혹은 계획을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강화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확대

- 스마트 근로감독,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위한 법령(남녀 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 횟수 확대(2 → 3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3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

-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우수기업 발굴·홍보

- 중소기업 비정규직 및 남성 육아휴직 시 사업주 지원금 인상(2017년)

※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 시행(2016년 1,800여 명)

-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중심으로 출산·육아휴직관련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2015년 1천 명 → 2017년 1만 명)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육아, 건강, 퇴직준비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확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현행 월 최대 40만 원) 인상

- 시간선택제 수요조사(2016.4~6) 결과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기관별 활용 목표를 수립토록 하고 활용실적 점검·공표 추진

※ 15개 공공기관 샘플조사(총 50,218명 중 27,256명<54.3%> 참여) 결과 근로자의 35.4%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을 희망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2015년 1,363개 → 2017년 2,800개) 하고, 컨설팅·직장교육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지원

-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서류 간소화 및 현장심사 최소화, 인증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신인도 가점 상향(現 1.7점 → 3점, 최고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2017년 ~)하고, 2020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1%(3,800개 사) 인증 추진

-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교육을 지원하고, 분야별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발표

- ※ 예를 들어 아빠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우수 기업 등
- 일·가정 양립 인사매뉴얼, 육아휴직자 복귀프로그램 보급 확대 및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캠페인 전개(CEO 참여 캠페인)
- ※ 5대 경제단체별 전담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대한상의 : 기업문화 개선, △경총 : 시간선택제, △전경련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추진(2016년 하반기)
- 보육·양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맞춤형 보육 등 보육서비스 개편(2016.7~)

③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법」으로 전부개정 추진
 - 생애주기별 커리어 지원프로그램* 및 직장교육(사업주, 근로자 대상) 등을 통해 여성근로자 경력유지 지원 강화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확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내실화 및 여성친화적 창업생태계 조성
 -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기술과정* 확대
 - ※ 전문기술 과정 : 슈즈디자이너, 문화콘텐츠 해외수출 및 교류 전문가, 3D프린팅 설계모델링, 국제통상전문가 양성, 연구개발(R&D) 관리 실무자 양성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과 협력해 창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컨설팅, 인큐베이팅,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 ※ 새일센터는 지역별 특성화된 창업아이템 발굴, 초기상담 및 훈련 실시, 창조센터·중기청은 컨설팅, 공간제공, 자금조달 지원
 - 청년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별 창업경진대회 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민간 협업) 운영
 - ※ 여성가족부, 여자대학(14개), 여성벤처협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협약(4월)

- (개선과제 발굴) 일자리, 돌봄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및 법령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 창업, 이공계 일자리사업, 출산·양육지원제도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2016년~)

④ 성격차지수(GGI) 지표의 통계적 문제 개선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출생성비, 중등 취학률, 유사업무 임금성비) 개선 추진(WEF 협의 중)
 - 출생성비는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음에도 낮게 측정
 - ➔ 자료원 변경 요청 : (변경 전) CIA → (변경 후) UN
 - 중등학교 취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남성보다 낮게 측정
 - ➔ 취학대상 인구 추계 문제 개선 추진
 - 유사업무 임금성비는 기업 CEO(100명) 대상 설문조사(KDI 실시)로 측정하여 과소평가 ➔ 설문방식 변경 또는 객관적 통계 활용토록 개선

2) 중장기과제

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확대(500인 → 300인 이상) 및 일정규모 이상 민간사업장 여성관리직 목표계획 수립·공표 검토
 - ※ (일본) 여성활약추진법(2015) : 국가 및 지자체, 상시고용 300명 초과 기업은 여성 관리직비율 현황과 목표를 공표하고 개선 계획을 후생노동 대신에게 신고
-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보직 배치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여성인력의 특정부서 편중 방지 등 보직관리 강화 방안 검토

②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 부모에게 각각 1년씩 부여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공동으로 24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중 3개월은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

※ 의무 기간(3개월) 미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에서 소멸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연장(3→5일)과 육아휴직기간 초기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

※ (한국) 월 통상임금의 40%(상한100만원) 지원,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 한해 두 번째 사용자 인센티브(아빠의달, 상한150만원) 지원
(일본) 일본의 경우, 최초 6개월은 소득대체율이 67%이고, 그 이후는 50%로 변경

-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장실, 수유실에 아빠와 영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의무화

③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및 재정지원사업 가점 지원, 우선권 제공 등 법제화 검토
- 기업 성과평가체계 과학화, 법정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포함) 등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제도개선 추진
-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어린이집 지속 확충
 - 대·중소기업 상생형, 자치단체 협업형, 대학, 산업단지 등 다양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모델을 확산하여 중소기업의 보육 수요 충족

④ 성별 직종분리, 임금 격차 실태 등 구조적 문제 개선

-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위해 남성 집중 직종 일자리에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 (해외사례) 미국의 여성 비전통직 지원 프로그램(WANTO) : 정부에서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 기업에서 기술교육 및 인턴십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
-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공시자료 등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별 남녀 임금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 (해외사례) 호주는 ‘직장내 양성평등법’을 제정(2012)하여 1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남녀 고용·임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보고서 미제출시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 참여 제한

국가 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143
2.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 정책의 연계	151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62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요약

2015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70.1)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2011년 이후 국가성평등지수 추이를 보면 2013년 68.4 그리고 2014년 68.9, 2015년 70.1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성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지수의 분야별 국가 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5년 기준 보건 분야가 9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93.4), 문화·정보 분야(87.1), 복지 분야(71.6)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이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로 25.4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 55.4, 가족 분야 70.0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가 71.5를 나타내었다.

성평등 수준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성평등지수 값이 10.4p 증가한 가족 분야이었고, 그 다음은 의사결정 분야로 동 기간에 지수 값이 6.3p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도 성평등지수 값이 각각 3.4p 증가하였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성평등 수준의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적게 개선된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문화·정보 분야로 지수 값이 1.9p와 3.0p 증가하였다. 그리고 안전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분야로 지수 값이 8.8p 하락하였다.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그 변화를 보면 가장 성평등 수준이 높은 영역은 2015년 기준 지수 값이 78.5인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었고, 그 다음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74.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3.4) 순이었다. 즉,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 성평등지수의 분야별로 지표 값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1) 성평등의식 및 문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71.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78.5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인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6번째로 낮은 분야

이다. 동 분야의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은 2011년 59.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2.8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66.7과 70.0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족 분야의 세부 지표는 아래와 같이 가사노동 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분야 세부 지표인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성 취업자의 경우 절대적인 시간은 적으나 소폭 증가하는 추이 (2004년 31분, 2015년 42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여성 취업자는 절대적인 시간이 남성보다 많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이 (2004년 2시간 36분, 2015년 2시간 29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남녀 가사노동의 변화 추이로 인해서 남녀 가사노동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절대적 시간의 남녀 차이로 인해 성불평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그 중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산정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93.4에서 2015년 94.5로 소폭 증가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2007년 115.7로 처음으로 110대로 진입하였고, 2010년 110.9 그리고 2015년에는 105.5으로 자연출생 성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지표 값은 거의 완전성평등 수준에 접근하였다.

가족 분야의 마지막 세부지표인 육아휴직을 보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05년 10,492명에서 82,467명으로 급증하였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2005년 208명에서 2015년 4,872명으로 급증하였으나, 여성과 비교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자 성비의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24.7에서 2015년, 59.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②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1년 84.1에서 2015년에는 87.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 지표는 아래와 같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 격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인 여가만족도 성비의 지표 값, 여가시간 성비 지표 값 그리고 성별정보화 격차 지표값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인 여가시간을 보면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남성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2004년 4시간 25분, 2015년 3시간 47분이었고, 여성취업자 여가시간은 2004년 3시간 41분, 2015년 3시간 13분이었다. 이에 따라 여가시간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76.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76.7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77.9, 78.5로 높아졌다. 즉, 남녀 여가시간의 성평등 정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도 지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여가만족도가 2010~2013년에는 상승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여가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성(2015년 27.1%)이 여성(2015년 24.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만족도 성비의 지수 값을 보면 2011년 87.0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91.4 그리고 2015년에는 91.9로, 2011년 대비 2015년에는 4.9p 증가하였다.

성별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보화 수준은⁶⁴⁾ 2010년 105.3%에서 2012년 106.0%로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2014년 103.6%로 하락한 뒤에 2015년에 다시 104.8%로 소폭 상승하였다.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0년 94.7%에서 2012년 94.0%까지 하락하고, 2014년 96.4%로 소폭 상승하지만 2015년 95.3%로 다시 하락하였다.

2) 여성의 인권·복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74.8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74.1이었다. 인권·복지 영역의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이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95.4를 기록하여,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보건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은 2011년에 92.0에서 2015년에는 95.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세부지표는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 분야 건강검진수검률 지표는 여성의 경우 1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수검 인원 비율은 2011년 71.0%에서 2015년 74.6%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

64) 통상적으로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 때 일반국민 대비 남성 혹은 여성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은 2011년 73.9%에서 2015년 77.5%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건강검진수검률의 남녀격차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동 지표 값도 2011년 96.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96.3을 기록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0년 0.931이었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12년에는 0.934로 상승했으나 2013년 0.929로 소폭 감소했고 2014년과 2015년에 다시 반등해 각각 0.934을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2010년 0.966을 보인 후, 2011년 0.962로 소폭 감소하였고,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2014년과 2015년 0.963을 기록했다.

보건 분야의 마지막 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여성비율이 2015년 32.1%인데 비해, 남성은 2015년 29.8%이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3.0에서 2015년 9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②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1년 68.2에서 2015년에는 71.6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성평등 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네 번째로 중간 정도 수준에 속했다. 복지 분야 세부지표는 비 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장애인고용률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 분야의 남녀가구주의 빈곤율을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가구의 빈곤율은 2011년 21.8%에서 2014년 17.3%로 감소한 후 2015년에 18.8%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남성가구의 빈곤율은 2011년 7.8%에서 2014년 8.2%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15년은 8.0%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비 빈곤가구주 비율의 지표 값이 2014년 90.1를 기록했으나, 2015년 88.3로 소폭 감소했다.

공적연금 가입률 추이를 보면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 중에서 남성 가입자 비율은 2010년 61.5%에서 2015년 56.9%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여성 가입자 비율은 2010년 38.5%에서 2015년 43.1%를 나타내었다. 즉, 2010~2015년 동안에 성별 가입률 현황을 보면 남성가입자 비율은 연평균 1.5% 감소한데 비해서, 여성은 연평균 2.3%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69.2에서 2013년 74.6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76.9, 79.4로 크게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률 지표를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010년 22.7%에서 2012년 21.8% 그리고 2014년에는 19.8%로 점진적으로 하락한 뒤에, 2015년 21.0%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2010년 45.4%에서 2012년 45.9%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4년 49.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고용률이 44.7%로 전년대비 4.7%p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률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50.7에서 2012년 47.5로 소폭 하락하고, 그 이후 2013년 44.6, 2014년 40.1으로 급감하였으나 2014년에는 47.0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③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11년 64.2이었으나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수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55.4로 급락하였다. 안전분야의 세부지표는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일곱 번째이었다.

안전 분야의 지표인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을 보면 분석대상 전체 기간 동안에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더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5년에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안전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자가 여성인 강력범죄 건수는 2010년 20,930건에서 2015년 29,617건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오히려 2010년 4,403건에서 2015년 3,528건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82.6%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12년 85.6%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9.1%, 89.4%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3) 성평등한 사회참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59.8에서 2015년 63.4로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의사결정 분야 지표 값이 2011년 19.1에서 2015년 25.4로 6.3p 증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어 2011년 68.9에서 2015년 71.5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8개 분야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에 속하는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직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분야 지표 중의 하나인 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66.0%에서 2009년 65.4%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0~2012년에 0.5%p, 2013~2015년 1.0%p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2010~2012년에 0.7%p, 2013~2015년 2.3%p로 남성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70.9에서 2014년 72.5, 2015년 73.7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중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남성근로자 평균 월급여총액은 2008년 2,265천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2,837천 원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 월급여총액을 보면 2008년 1,413천 원에서 2015년 1,781천 원으로 임금이 증가하여 남성보다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⁶⁵⁾ 이에 따라 성별임금격차를 보면 2008년 62.4%에서 2009년 62.3%로 전년에 비해 미미하게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 임금격차가 상당히 개선되어 2012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64.4%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다시 성별임금격차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보여 2015년에는 62.8%를 나타내었다.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세부지표인 상용직 비율을 보면, 여성 상용직 근로자는 2010년 3,421천 명에서 2015년 4,731천 명이었으나, 남성 상용직 근로자는 2008년 2010년 6,666천 명에서 2015년 7,85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용직 중 여성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72.5에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7.6, 77.9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②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91.5에서 2012년의 91.2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2014년 93.3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5년은 93.4로 상승하였다. 이에 2015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 높았으며, 2011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지표인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여성은 2005년 10.5년,

65)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인이상 사업체, 월급여총액 기준임.

2010년 10.9년 그리고 2015년 11.3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05년 12.1년, 2010년 12.4년 그리고 2015년 12.7년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 증가기간이 남성보다 약간 더 길었다. 성별로 구분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년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여성은 0.4년, 남성은 0.3년 증가하여,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 증가기간이 남성보다 약간 더 길었다. 이로 인해 평균 교육년수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8.1에서 2014년 88.8 그리고 2015년 89.0으로 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또 다른 세부지표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해당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율로 측정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은 최근 남녀 모두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남성 진학률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의 지표 값은 거의 완전평등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지표의 경우, 여성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낮았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의 남녀격차는 큰 차이가 없어서, 직업교육 훈련경험 비율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86.5에서 2013년 85.8 그리고 2015년 91.1로 증가하였다.

③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1년 19.1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 20.2에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3.9, 25.4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은 8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의사결정 분야 지표인 국회의원 성비 지표의 경우, 2010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 여성이 44명으로 여성의원비율은 14.7%이었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2008년 이후부터 보궐 선거 혹은 전국구 의원승계 등으로 인해 여성 비율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 여성 국회의원 수가 44명(14.7%)이었으나, 2014년 49명(16.3%) 그리고 2015년 49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성비 지표 값은 2011년 17.1에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8.9로 미미하나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의사결정 분야 지표인 4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11년 68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067명이었다. 남성은 2011년 7,422명에서 2015년 7,772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2015년 동안에 남녀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를 보면 남성은 동 기간에 연평균 1.2% 증가하였는데 비해, 여성

은 연평균 11.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지표 값을 보면 2011년 10.4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11.9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2.9, 14.0이었다.

의사결정 지표인 관리자를 보면 먼저 여성관리자 수는 2010년 53천 명에서 2015년 37천 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남성도 2010년 509천 명에서 2015년 316천 명까지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에 남성 관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2009년 8.6%에서 2013년 11.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서 관리자 성비 지표 값은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11년 15.8에서 2013년 17.8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여 2014년과 2015년 각각 17.2, 16.0이었다.

정부위원회 위원 지수에 의하면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수는 급증하는 반면에 남성위원은 등락은 보이나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전체 위원 중 여성비율은 2011년 24.8%에서 2015년에 34.5%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 성비의 지표 값은 2011년 33.0에서 2013년 38.3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6.4, 5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정부위원회의 위원비율의 경우 성평등수준은 지난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 정책의 연계⁶⁶⁾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평가와 함께 세부 지표 별로 관련성이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세부 사업과 연계해 살펴본다면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각 부처별 양성평등 정책을 세부 사업 수준에서 연계한 연계표를 제시하고 국가성평등지수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계를 위해 활용된 정책 목록은 <V-1>과 같으며, 정책연번은 기존에 적용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과제 번호와 동일하게 부여했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은 국정과제 번호를 표시했고, '9-9-9'는 여성가족부 이외 다른 행정부처의 여성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나타낸다. 2015년 보고서에서 변화된 점은 시기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정책을 「2016~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으로 변경한 것이다.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양성평등 정책 목록

양성평등 정책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6~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13~2017년)」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23, 인용 및 수정.

66) 본 절은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123-132 부분을 인용한 것이며, 기존 「2011~20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16~202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제3차(2011~20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으로 변경 재수정한 것임.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경제활동 참가율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성별 직업분리 개선
			여성 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여성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국정 65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성별 임금격차	9-9-9	일터 내에서의 임금차별 해소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 친화 경영 확대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 강화
상용근로자 비율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복지 지원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24, 인용 및 수정.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들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상용근로자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성별 임금격차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이라는 국정과제와 다양한 분야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상용근로자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일터 내 임금차별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착화된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직장으로 재취업이 이뤄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높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함께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이 더딘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을 강화하고 동일 직무에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국회의원 비율	4-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4-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국정 98	공직임용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9-9-9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지속 추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육성
	9-9-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9-9-9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관리직 비율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4-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9-9-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9-9-9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정부위원회 비율	4-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25, 인용 및 수정.

의사결정 분야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승 수준이 큰 분야이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이기도 하다. 개별 지표별로 살펴보면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나 관리직 비율은 하락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4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이 10%대로 절대적 수준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단 기간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

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V-3>의 의사결정 분야와 양성 평등정책 연계표를 살펴보면 향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특히, 정치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관리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평균 교육년수	국정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도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국정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1-1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9-9-9	여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사업주의 여성직업능력개발 강화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강화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26, 인용 및 수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남성이 더 길지만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 격차는 개선되고 있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여전히 여성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V-4>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양성평등정책과의 연계표로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높지만 세부사업별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은 특성 상 현

시점에서 불평등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성평등한 상황 점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생학습체계에서 성평등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여성직업능력개발 강화 정책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비 빈곤 가구주 비율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
	국정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빈곤위험계층까지 정책 대상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
	국정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기초연금제도 도입
	9-9-9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고용률	국정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국정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국정 98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고졸·지역인재·장애인 등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27, 인용 및 수정.

복지 분야의 경우 꾸준히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분야이다. 2011년 대비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3.0%p 감소했지만 남성은 0.2%p 증가해 지표상으로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남성가구주 대비 매우 높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의 여성가입자 수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컸고, 2011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에서 여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남성은 감소한 특징이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고용률

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5년은 여성이 소폭 상승하고 남성이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표 V-5>의 복지 분야와 양성평등정책 연계표를 위 결과와 함께 검토하면 먼저 여성가구주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은 복지정책이 대상별 맞춤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 여성가구주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남성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건강관련 삶의 질(EQ-5D)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건강검진 수검률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국정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로 개편
스트레스 인지율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28, 인용 및 수정.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높은 수준의 성평등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 지표별로는 여성의 지표값이 남성에 비해 나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관련 지표별 정책과제를 검토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 또한 남성이 더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성이 더 높다. 즉,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

만 지표별로는 완전 성평등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련 성평등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폭력방지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국정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격차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5-2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가정폭력 범죄 초기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국정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
	국정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국정 79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적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및 지원시스템 강화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29-130, 인용 및 수정.

안전 분야는 2012년까지 전년대비 성평등지수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남성은 감소했으나 여성은 증가했고,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201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V-7>의 안전 분야와 양성평등정책 연계표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정책과제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라는 세부사업을 관련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근절과 가정폭력 방지 정책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정책이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범죄피해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여성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과급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에서 여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되어야 한다.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실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9-9-9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포용적 가족관 형성
	9-9-9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국정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 마련
육아휴직자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9-9-9	공무원 출산, 양육지원	셋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연수에 반영 확대
	9-9-9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9-9-9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31, 인용 및 수정.

가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지만 가사노동 시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가 개선되면서 가족 분야 성평등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별로 살펴보면 성불평등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 시간은 격차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그 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이고 육아휴직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율은 5.6%로 여전히 매우 낮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 분야와 양성평등정책 연계표의 정책과제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핵심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육아의 공동부담으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줄이고, 남성이 육아에 당연히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곧 자연스러운 육아휴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과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여가시간 성비	국정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국정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문화향유 시설 접근성 확대
	국정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
	9-9-9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농촌축제 사업의 공동체 활성화 강화 및 여성 참여 유도
여성농업인 주도의 소규모 문화활동 (문화·예술·교양·스포츠강좌 등) 지원			
		농촌지역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 지원 강화 추진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포상 등 계획 수립	
여가만족도 성비	국정 107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행복지수 개발 및 문화향수실태조사 확대 실시
	국정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성별정보화격차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

출처: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321, 인용 및 수정.

문화·정보 분야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지표 별로 2011~2015년에 여가시간 성비는 개선되었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가시간이 더 길고 그 차이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전년대비 2015년 여가시간 증감률은 여성이 1.2% 감소하고 남성은 2.0%로 여성보다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여가시간 성비 지표 값은 소폭 증가하였다.

여가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고 성비는 소폭 개선됐다. 성별정보화 격차는 남성의 정보화점수는 소폭 하락하고 여성은 소폭 상승하는 추이가 지속되면서 격차가 줄어들었다.

관련 정책과의 연계표를 통해 살펴보면 여가시간 특히 여가와 관련된 정책은 스포츠, 문화참여, 문화격차와 같은 정책과제들과 연계된다. 문화격차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시설 접근성 확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정보 분야의 여가시간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여가시간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라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사노동 시간이 긴 여성의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 시간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과 여가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에 성별 수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여가만족도 또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정보화 격차가 다루는 도구의 소유 여부와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표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2015년을 전후하여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그리고 2016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지금부터는 기존 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강화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지표를 점검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표를 개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성평등지표와 지수의 개발과 활용을 단순히 성평등 수준의 국제 및 지역별 비교에만 활용하지 않고,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의 파악과 함께 국가 성평등전략을 수립,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국가전체, 사회 분야별, 지역단위별 성평등지수와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측정,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성평등 수준 달성에 필요한 지표(indicators)와 관련된 조치(actions)와 정책(policies)의 추진정도와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평가를 기초로 성평등지표 및 지수와 연동하여 중장기 국가 성평등전략(National Strategy for Gender Equality)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의 경우 각 지표별 성평등 성취수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현황, 여성의 인권 및 복지 현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현황, 그 밖의 성평등 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평등 수준이 부진한 분야와 지표에 대해서는 책임 및 협조 행정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네 번째,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성평등지수의 각 지표별 남녀

통계와 지표 값, 지표의 특성 등을 담은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성평등지수와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각 지표의 변화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지수 및 지표 DB는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 NGO 등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초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하여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와 정책연계표를 관련 행정부처의 정책 도입 및 변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 중에서 생산주기가 길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그리고 생산되고 있지 못하는 통계 등을 위한 생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혹은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통계 개선 및 생산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연도의 지표 값에 대한 대체(imputation)방법을 재점검하고, 해당 지표의 대체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09),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태홍·김영택·주재선·배호중(201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홍·전기택·주재선·정형욱(2011),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태홍·이택면·주재선(2011), 『성별 고용평등지표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전기택·문유경·주재선(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주재선(2014), 『한국의 성인지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김원홍·송치선·박건표(2013),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원홍·박건표·손현민(2014),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문유경·임연규(2014),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송치선(2013),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태홍·전기택(2012),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A. G. Dijkstra & L. C. Hanmer(2000), Measuring Socio-Economic Gender Inequality: Toward an Alternative to the UNDP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Feminist Economics*, 6:2, pp. 41-75.
- IMD(2014),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 OECD(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 OECD Development Center(2009), *The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Construction and Results*.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Sustaining Human Progress: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 World Economic Forum(201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World Economic Forum(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부 록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69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99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가. 경제활동****<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62.1	62.0	61.9	61.8	61.5	60.8	61.0	61.1	61.3	61.5	62.4	62.6
여성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49.9	50.2	51.3	51.8
남성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73.3	73.2	74.0	7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세 이상 인구.

<부표 1-2> 임금격차

(단위: 천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127	2,259	2,270	2,360	2,454	2,567	2,660	2,754	2,820
여성	1,582	1,681	1,693	1,772	1,862	1,958	2,033	2,092	2,119
남성	2,381	2,528	2,546	2,648	2,750	2,878	2,986	3,122	3,215
임금격차	66.4	66.5	66.5	66.9	67.7	68.0	68.1	67.0	65.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1)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

2) 임금격차=여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남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100.

<부표 1-3> 상용근로자

(단위: 천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7,917	8,204	8,620	9,007	9,390	10,086	10,661	11,097	11,713	12,156	12,588
여성	2,439	2,616	2,816	2,954	3,051	3,421	3,739	3,985	4,264	4,525	4,731
남성	5,479	5,588	5,804	6,053	6,338	6,666	6,922	7,112	7,449	7,630	7,8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단위: 천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9,486	9,894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13,041
여성	3,539	3,691	3,851	3,991	3,891	4,228	4,273	4,445	4,661	4,890	5,044
남성	5,947	6,204	6,328	6,667	6,833	7,134	7,242	7,377	7,634	7,809	7,997
여성비율	37.3	37.3	37.8	37.5	36.3	37.2	37.1	37.6	37.9	38.5	3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5> 고용률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0.2	60.3
여성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4	48.8	49.5	49.9
남성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0.8	70.8	71.4	7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6> 전문직 여성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597	3,840	4,050	4,382	4,426	4,571	4,686	4,791	4,966	5,123
여성	1,575	1,717	1,788	1,901	1,969	2,030	2,104	2,172	2,302	2,409
남성	2,022	2,124	2,262	2,481	2,457	2,542	2,581	2,619	2,664	2,714
여성비율	43.8	44.7	44.1	43.4	44.5	44.4	44.9	45.3	46.4	4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7> 30대 고용률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0대 전체	72.6	72.3	73.2	72.9	72.9	71.3	72.0	72.2	72.7	73.2	73.9	74.2
30대 여성	53.0	52.9	52.9	54.8	54.7	52.7	53.7	53.7	54.5	55.5	56.3	56.9
30대 남성	91.5	91.1	90.6	90.3	90.3	89.1	89.5	89.8	90.3	90.2	90.9	9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8> 대출자 실업률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9	2.7	2.9	2.6	2.7	3.1	3.1	2.8	2.9	3.0	3.3	3.4
여성	3.4	3.1	3.4	2.8	2.9	3.1	3.6	3.0	3.3	3.4	4.0	3.7
남성	2.7	2.6	2.7	2.6	2.5	3.1	2.9	2.6	2.7	2.9	2.9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4년제 이상 졸업자.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단위: 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9	5.8	5.8	5.9	5.9	6.2	6.2	6.1	6.2	6.4	6.0	6.2
여성	4.1	4.0	4.0	4.1	4.1	4.4	4.4	4.3	4.4	4.6	4.5	4.6
남성	6.6	6.6	6.7	6.7	6.7	7.1	7.0	7.0	7.1	7.3	6.9	7.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93.4	188.8	184.5	189.0	187.0	180.8	173.7	167.9	165.5	173.5
여성	185.3	182.9	178.3	182.9	181.2	174.0	166.4	159.9	157.1	165.0
남성	198.0	192.3	188.2	192.6	190.6	185.0	178.3	173.0	171.0	179.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층 전체	43.4	42.6	41.6	40.5	40.3	40.5	40.4	39.7	40.7	41.5
여성	44.3	43.7	43.0	41.8	42.0	42.1	42.0	41.3	42.5	43.2
남성	42.4	41.5	40.1	39.0	38.7	38.8	38.7	38.1	38.9	3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민연금	34.7	34.8	35.9	36.1	36.4	38.2	38.7	38.6	38.6	37.9
건강보험	35.1	35.9	36.9	39.7	38.3	41.3	42.0	43.1	42.6	42.7
고용보험	32.7	33.9	35.9	39.3	37.8	40.6	41.1	41.5	42.6	4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의무사업장 수	775	791	791	790	833	832	919	1,074	1,204	1,143
이행 사업장 수	365 (47.1%)	440 (55.6%)	476 (60.2%)	523 (66.2%)	578 (69.4%)	604 (72.6%)	683 (74.3%)	877 (81.7%)	903 (75.0%)	605 (52.9%)
어린이집 설치	199 (25.7%)	253 (32.0%)	269 (34.0%)	284 (35.9%)	312 (37.5%)	326 (39.2%)	359 (39.1%)	534 (49.7%)	635 (52.8%)	578 (50.5%)
수당	132 (17.0%)	147 (18.6%)	160 (20.2%)	195 (24.7%)	208 (25.0%)	231 (27.8%)	253 (27.5%)	242 (22.5%)	175 (14.5%)	-
위탁	34 (4.4%)	40 (5.0%)	47 (6.0%)	44 (5.6%)	58 (6.9%)	47 (5.6%)	71 (7.7%)	101 (9.4%)	93 (7.7%)	27 (2.4%)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단위: 개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장 유지율	67.5	67.3	67.6	69.0	71.2	74.6	76.4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	19,238	20,342	27,521	35,457	46,262	53,688	58,694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12,982	13,696	18,596	24,466	32,933	40,053	44,81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기준.

나. 의사결정

<부표 2-1> 국회의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4	2008	2012	2016
전체	299	299	300	300
여성	39	41	47	51
남성	260	258	253	249
여성비율	13.0	13.7	15.7	17.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2-2> 5급 이상 공무원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9,433	20,939	22,641	22,673	22,947	23,371	24,029	24,432	24,143	24,694
여성	1,535	1,874	2,230	2,392	2,644	2,896	3,239	3,635	3,762	4,146
남성	17,898	19,065	20,411	20,281	20,303	20,475	20,790	20,797	20,381	20,548
여성비율	7.9	8.9	9.8	10.5	11.5	12.4	13.5	14.9	15.6	16.8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주: 2005~2012년도는 일반직(1~5급), 2013년도는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으로 분류가 달라짐.

<부표 2-3> 관리직⁶⁷⁾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99	602	602	601	549	546	562	515	464	403	397	353
여성	42	47	52	53	52	47	53	52	51	46	44	37
남성	557	555	550	548	497	499	509	463	413	358	352	316
여성비율	7.0	7.8	8.6	8.8	9.5	8.6	9.4	10.1	11.0	11.4	11.1	1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세 이상 인구.

67) 통계청 제6차 표준직업분류체계의 정의에 의하면, 관리자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분류되며,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으로 구분됨.

<부표 2-4>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단위: 명)

구분	근로자 전체			관리직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5년 12월(1,000인 이상)	1,597,617	458,584	1,139,033	169,983	14,178	155,805
2006년 12월(1,000인 이상)	1,748,552	536,445	1,212,107	166,009	15,373	150,636
2007년 12월(500인 이상)	2,430,320	775,922	1,654,398	217,717	22,887	194,830
2008년 12월(500인 이상)	2,566,715	825,850	1,740,865	254,598	35,836	218,762
2009년 12월(500인 이상)	2,598,082	846,957	1,751,125	230,008	29,404	200,604
2010년 12월(500인 이상)	2,731,934	933,286	1,789,648	270,234	34,616	235,618
2011년 12월(500인 이상)	2,897,173	986,053	1,911,120	287,062	33,280	253,782
2012년 12월(500인 이상)	3,050,363	1,055,336	1,995,027	292,978	37,227	255,751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체).

<부표 2-5>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위촉위원수	7,743	7,206	9,205	9,462	9,867	8,875	7,647	7,585	6,873	8,305	7,632
여성위원수	2,163	2,132	2,473	2,558	2,428	1,983	1,900	1,949	1,902	2,630	2,633
여성위원비율	27.9	29.6	26.9	27.0	24.6	22.3	24.8	25.7	27.7	31.7	34.5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부표 2-6> 초·중·고등학교 교장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전체	5,614	5,695	5,710	5,761	5,791	5,818	5,830	5,855	5,875	5,897	5,934
	여성	490	531	589	653	747	832	895	977	1,095	1,299	1,701
	남성	5,124	5,164	5,121	5,108	5,044	4,986	4,935	4,878	4,780	4,598	4,233
	여성비율	8.7	9.3	10.3	11.3	12.9	14.3	15.4	16.7	18.6	22.0	28.7
중학교	전체	2,582	2,642	2,682	2,731	2,777	2,800	2,837	2,859	2,880	2,907	2,934
	여성	255	294	343	394	463	493	522	556	577	618	680
	남성	2,327	2,348	2,339	2,337	2,314	2,307	2,315	2,303	2,303	2,289	2,254
	여성비율	9.9	11.1	12.8	14.4	16.7	17.6	18.4	19.4	20.0	21.3	23.2
고등학교	전체	2,017	2,060	2,064	2,106	2,129	2,177	2,199	2,223	2,278	2,286	2,299
	여성	132	123	126	122	126	139	155	174	199	204	218
	남성	1,885	1,937	1,938	1,984	2,003	2,038	2,044	2,049	2,079	2,082	2,081
	여성비율	6.5	6.0	6.1	5.8	5.9	6.4	7.0	7.8	8.7	8.9	9.5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2-7> 대학 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64,847	66,846	68,062	69,975	70,464	71,954	75,674	78,211	86,656	88,163	90,215
	총(학)장	351	336	361	357	356	356	383	372	415	409	413
	교수	27,652	28,771	29,857	30,992	31,500	32,297	33,804	34,744	38,830	39,977	41,239
	부교수	15,509	15,615	15,526	16,158	16,212	16,447	17,398	17,804	19,971	19,924	20,013
	조교수	13,387	13,644	13,903	13,727	13,591	13,899	14,316	14,875	27,440	27,853	28,550
	전임강사	7,948	8,480	8,415	8,741	8,805	8,955	9,773	10,416	-	-	-
여성	계	11,700	12,528	13,104	13,878	14,479	15,393	16,605	17,774	20,018	20,947	21,984
	총(학)장	42	36	38	40	42	42	47	42	40	45	43
	교수	3,677	3,915	4,061	4,231	4,367	4,574	4,785	4,981	5,644	5,958	6,245
	부교수	2,577	2,616	2,694	2,938	3,134	3,289	3,594	3,887	4,505	4,689	4,864
	조교수	2,809	3,020	3,274	3,425	3,599	3,948	4,223	4,578	9,829	10,255	10,832
	전임강사	2,595	2,941	3,037	3,244	3,337	3,540	3,956	4,286	-	-	-
남성	계	53,147	54,318	54,958	56,097	55,985	56,561	59,069	60,437	66,638	67,216	68,231
	총(학)장	309	300	323	317	314	314	336	330	375	364	370
	교수	23,975	24,856	25,796	26,761	27,133	27,723	29,019	29,763	33,186	34,019	34,994
	부교수	12,932	12,999	12,832	13,220	13,078	13,158	13,804	13,917	15,466	15,235	15,149
	조교수	10,578	10,624	10,629	10,302	9,992	9,951	10,093	10,297	17,611	17,598	17,718
	전임강사	5,353	5,539	5,378	5,497	5,468	5,415	5,817	6,130	-	-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계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의 합.

2013년부터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조사됨.

<부표 2-8> 공무원 수

(단위: 명, %)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5	562,067	244,331	43.5	266,176	70,568	26.5
2006	582,837	255,202	43.8	272,584	75,608	27.2
2008	599,037	289,388	48.3	274,626	79,746	29.0
2010	622,737	293,917	47.2	341,421	110,791	32.4
2011	621,313	292,038	47.0	343,722	112,770	32.8
2012	622,424	299,539	48.1	347,165	116,441	33.5
2013	621,823	299,101	48.1	354,630	120,873	34.1
2014	634,051	310,860	49.0	357,492	126,483	35.4
2015	637,654	315,290	49.4	363,691	132,981	36.6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부표 2-9> 고위공무원단 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고위공무원단 전체	882	980	901	948	936	976	1,33	991	1,011	1,031
고위공무원단 여성 수	9	10	13	18	22	31	38	37	34	38
여성 비율	1.0	1.0	1.4	1.9	2.4	3.2	3.7	3.7	3.4	3.7

자료: 안정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주: 2014년부터 인사혁신처 자료를 활용함.

<부표 2-10> 여성장관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4	2015
전체	36	20	16	24	17	17
여성장관 수	2	1	2	3	2	1
여성 비율	5.6	5.0	12.5	12.5	11.8	5.9

자료: 안정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부표 2-11>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0.22	11.00	12.51	14.13	15.09	16.09	16.62	17.02	18.37
여성임원 비율	6.10	6.22	6.42	8.43	9.93	10.53	11.01	11.55	13.92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주: 전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

<부표 2-12> 여성 사업체 대표자

(단위: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189,890	3,204,809	3,226,589	3,262,925	3,264,782	3,355,470	3,470,034	3,602,476	3,676,876	3,812,820
여성	1,147,471	1,150,940	1,170,042	1,192,048	1,202,411	1,247,857	1,300,274	1,355,845	1,388,896	1,435,866
남성	2,042,419	2,053,869	2,056,527	2,070,877	2,062,371	2,107,613	2,169,760	2,246,631	2,287,980	2,376,954
여성비율	36.0	35.9	36.3	36.5	36.8	37.2	37.5	37.6	37.8	37.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다. 교육·직업훈련

<부표 3-1> 평균교육년수

(단위: 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9.5	10.3	10.5	11.2	11.6
여성	8.6	9.4	9.8	10.5	10.9
남성	10.6	11.2	11.5	12.1	12.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표 재분석.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3-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구분	계	여성	남성
2009	81.9	82.4	81.6
2010	79.0	80.5	77.6
2011	72.5	75.0	70.2
2012	71.3	74.3	68.6
2013	70.7	74.5	67.4
2014	70.9	74.6	67.6
2015	70.8	74.6	67.3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고등교육기관 진학자.

<부표 3-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A)	남성(B)	외국인	분류불능	여성비율 (A/(A+B))
2006	2,875,555	698,756	2,176,799	20,009	18,049	24.3
2008	3,987,065	1,151,546	2,835,519	19,314	270	28.9
2009	4,878,247	1,433,593	3,425,726	17,841	1,087	29.5
2010	4,208,310	1,404,051	2,791,245	13,005	9	33.5
2011	3,308,391	1,134,368	2,147,316	26,693	14	34.6
2012	3,419,898	1,154,786	2,239,825	25,282	5	34.0
2013	3,557,559	1,530,028	2,002,954	24,566	11	43.3
2014	3,399,908	1,554,207	1,845,298	-	403	45.7
2015	2,836,142	1,080,408	1,755,734	-	-	38.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분석.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주: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근로자능력개발지원(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부표 3-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00	52.5	47.5	57.2
2005	65.1	60.7	69.2
2010	67.5	65.9	68.8
2011	68.4	67.0	69.6
2012	68.3	67.2	69.3
2013	68.7	67.9	69.4
2014	68.1	59.7	77.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통계DB, 통계청 KOSIS.

- 주: 1) 적령 인구수: 만 18~21세.
 2) 취학률 = 적령학생수 / 적령인구수.

<부표 3-5>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79,059	280,341	293,967	298,883	294,952	301,606	322,413
여성	131,931	134,161	141,329	145,079	144,003	149,125	160,348
남성	147,128	146,180	152,638	153,804	150,949	152,481	162,065
비율	47.3	47.9	48.1	48.5	48.8	49.4	49.7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3-6>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2005	490	8.7	892	14.6	255	9.9	474	17.7	132	6.5	100	4.7
2006	531	9.3	996	16.0	294	11.1	523	19.0	123	6.0	116	5.3
2007	589	10.3	1,116	18.1	343	12.8	564	20.7	126	6.1	127	5.7
2008	653	11.3	1,207	19.8	394	14.4	594	22.2	122	5.8	120	5.5
2009	747	12.9	1,374	22.7	463	16.7	636	23.7	126	5.9	135	6.0
2010	832	14.3	1,623	26.9	493	17.6	687	25.6	139	6.4	174	7.6
2011	895	15.3	1,964	32.7	522	18.4	698	25.7	157	7.0	195	8.5
2012	978	16.7	2,382	39.3	556	19.4	713	26.2	176	7.8	205	8.9
2013	1,096	18.6	2,730	45.1	577	20.0	724	26.6	199	8.7	221	9.7
2014	1,299	22.0	2,981	49.2	618	21.3	763	28.1	204	8.9	235	10.3
2015	1,701	28.7	3,295	54.3	680	23.2	811	30.1	218	9.5	258	11.3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3-7>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2004	교수	13.1	18.0	5.5	8.3	16.8	30.4	23.8
	부교수	15.6	21.5	8.3	9.2	21.6	31.9	31.9
	조교수	20.7	25.1	13.6	10.9	29.9	32.9	39.9
2006	교수	13.5	20.1	5.7	8.4	17.0	31.3	26.1
	부교수	16.8	22.4	9.6	9.5	24.7	31.6	33.6
	조교수	22.4	27.7	15.4	13.0	29.7	32.5	42.9
2008	교수	13.6	20.6	6.6	8.7	17.2	31.6	27.8
	부교수	18.3	23.0	12.3	10.7	27.1	32.4	37.2
	조교수	25.0	31.1	19.5	15.5	31.9	32.5	47.1
2010	교수	13.9	20.5	7.2	8.5	18.3	31.8	28.9
	부교수	19.9	25.8	14.0	11.4	28.1	31.9	40.9
	조교수	28.2	34.0	24.9	16.3	34.1	36.6	48.2
2011	교수	13.9	20.3	7.6	8.2	18.8	31.8	30.1
	부교수	20.6	26.7	15.7	11.8	28.4	31.7	43.4
	조교수	29.4	35.8	26.0	17.1	35.9	36.9	49.8
2012	교수	14.1	20.7	7.9	8.4	19.0	31.8	30.9
	부교수	21.8	28.1	16.8	12.6	29.5	32.4	46.0
	조교수	30.7	37.3	27.4	17.8	39.0	36.6	50.7
2013	교수	14.5	21.2	8.4	8.6	19.7	32.1	33.1
	부교수	22.6	29.8	18.4	12.7	30.1	32.5	46.2
	조교수	35.8	40.0	30.8	20.9	50.4	36.9	54.0
2014	교수	14.9	21.5	8.7	8.8	20.5	32.6	32.9
	부교수	23.5	30.0	19.8	13.3	31.0	33.1	47.1
	조교수	36.8	40.7	30.9	21.1	53.2	38.4	54.6
2015	교수	15.1	22.3	9.2	9.0	20.8	32.8	33.2
	부교수	24.3	31.0	21.0	13.7	32.6	33.2	48.5
	조교수	37.9	42.1	31.8	21.5	55.9	38.6	54.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3-8>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단위: 천 원)

구분		교육비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계	222	227	234	197	240
	여성	221	228	227	202	243
	남성	223	226	239	192	237
2008	계	233	242	241	206	249
	여성	235	244	238	215	257
	남성	231	241	243	197	240
2009	계	242	245	260	217	269
	여성	243	243	252	234	282
	남성	241	248	267	204	257
2010	계	240	245	255	218	265
	여성	247	246	253	242	285
	남성	234	244	257	197	247
2011	계	240	241	262	218	259
	여성	247	246	253	242	281
	남성	234	236	269	197	240
2012	계	236	219	276	224	265
	여성	238	215	276	235	276
	남성	235	223	276	214	254
2013	계	239	232	267	223	262
	여성	243	233	271	233	268
	남성	235	230	264	214	257
2014	계	242	232	270	230	269
	여성	251	235	276	251	284
	남성	234	229	265	209	254
2015	계	244	231	275	236	276
	여성	250	229	282	252	286
	남성	239	233	269	221	267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부표 3-9>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계	여성														
2006	73.4	70.3	62.7	59.1	71.4	70.1	70.2	68.0	77.1	72.3	68.1	64.0	84.4	83.2	79.0	77.4
2008	73.4	70.1	63.3	59.3	72.2	70.6	65.7	64.2	77.7	73.3	69.3	64.5	85.4	84.4	79.3	77.8
2009	73.0	70.1	62.7	58.8	72.0	71.0	64.7	63.2	76.8	73.6	69.3	65.0	85.3	84.6	78.4	77.0
2010	55.0	51.9	44.3	43.6	54.8	55.2	52.9	55.4	64.7	59.8	52.5	49.4	72.2	71.4	36.1	33.3
2011	67.6	64.5	58.9	57.6	65.2	64.8	63.7	66.7	76.4	71.6	64.3	61.5	83.2	83.9	54.9	51.8
2012	68.1	65.7	59.7	59.1	65.0	64.8	66.3	69.1	76.0	71.3	64.6	62.6	82.0	82.5	58.6	56.4
2013	67.4	65.1	57.9	56.7	63.9	63.7	67.9	70.4	74.9	70.1	63.8	61.6	80.8	81.1	59.6	57.7
2014	67.0	65.2	57.3	56.4	63.9	63.4	68.6	70.8	73.1	68.7	63.6	61.5	80.8	81.4	59.6	57.8
2015	67.5	66.1	57.6	57.1	64.3	64.0	68.6	71.2	72.8	69.5	63.9	62.0	82.2	82.8	61.9	6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주: 전문대 및 교육대를 포함한 총괄임. 2010년 이후 취업률은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임.

<부표 3-10>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교육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05	3,881	850	21.9	182	18	9.9	727	71	9.8	2,972	761	25.6
2006	3,896	937	24.1	182	14	7.7	736	79	10.7	2,978	844	28.3
2007	3,945	1,012	25.7	180	14	7.8	752	88	11.7	3,013	910	30.2
2008	4,150	1,185	28.6	180	16	8.9	784	119	15.2	3,186	1,050	33.0
2009	4,173	1,278	30.6	181	17	9.4	788	119	15.1	3,204	1,142	35.6
2010	4,202	1,373	32.7	124	7	5.6	860	139	16.2	3,218	1,227	38.1
2011	4,196	1,491	35.5	132	17	12.9	852	157	19.4	3,212	1,317	41.0
2012	4,246	1,587	37.4	167	20	12.0	838	175	20.9	3,241	1,392	42.6
2013	-	-	-	-	-	-	866	178	20.6	3,239	1,444	44.6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공공도서관 및 기타 포함.

<부표 3-11> 평생학습 참여비율

(단위: %)

구분	1996	2000	200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9.0	17.2	21.6	27.6	26.4	28.0	30.5	32.4	35.6	30.2	36.8	40.6
여성	24.4	15.2	19.5	29.4	28.4	30.5	32.3	34.0	39.4	31.3	36.1	39.8
남성	33.8	19.4	23.8	25.7	24.4	25.5	28.7	30.7	31.8	29.1	37.5	4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07~2015년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각연도.

<부표 3-12> 기술사, 기능장 현황

(단위: 명, %)

구분	성별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모든 국가 기술 자격 증	전체	21,127,408	22,971,529	23,828,228	24,578,448	25,212,506	25,742,540	26,338,264	26,927,995
	여성	5,478,694	6,325,221	6,714,424	7,048,298	7,310,373	7,515,071	7,750,273	7,976,341
	남성	15,648,714	16,646,308	17,113,804	17,530,150	17,902,133	18,227,469	18,587,991	18,951,654
	여성 비율	25.9	27.5	28.2	28.7	29.0	29.2	29.4	29.6
기술사	전체	31,901	35,612	37,708	39,637	41,305	42,712	44,070	45,154
	여성	499	639	732	835	927	994	1,081	1,140
	남성	31,402	34,973	36,976	38,802	40,378	41,718	42,989	44,014
	여성 비율	1.6	1.8	1.9	2.1	2.2	2.3	2.5	2.5
기능장	전체	13,633	17,038	19,015	21,357	24,418	27,974	31,811	35,465
	여성	465	652	811	916	1,037	1,200	1,349	1,528
	남성	13,168	16,386	18,204	20,441	23,381	26,774	30,462	33,937
	여성 비율	3.4	3.8	4.3	4.3	4.2	4.3	4.2	4.3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주: 1975년부터 각 연도까지 각각 누적된 자격증 취득자수임.

<부표 3-13>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단위: 천 명, %)

구분	성별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직업훈련 참여자	참여비율
2007.3	전체	8,995	6,184	31.3
	여성	1,772	1,401	20.9
	남성	7,223	4,784	33.8
2008.3	전체	9,205	6,815	26.0
	여성	1,840	1,477	19.7
	남성	7,365	5,338	27.5
2009.3	전체	9,230	3,031	32.8
	여성	1,777	437	24.6
	남성	7,453	2,594	34.8
2010.3	전체	9,262	3,208	34.6
	여성	1,773	471	26.6
	남성	7,489	2,737	36.5
2011.3	전체	9,458	3,511	37.1
	여성	1,828	507	27.7
	남성	7,630	3,004	39.4
2012.3	전체	9,524	3,787	39.8
	여성	1,839	545	29.6
	남성	7,685	3,242	42.2
2013.3	전체	9,768	4,764	48.8
	여성	1,864	680	36.5
	남성	7,904	4,084	51.7
2014.3	전체	10,107	5,099	50.5
	여성	1,990	814	40.9
	남성	8,118	4,285	5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라. 복지

<부표 4-1> 빈곤 가구주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10.1	10.0	9.1	9.3	9.4
여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20.1	21.9	17.6	17.5	17.3
남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8.3	7.8	7.5	8.0	8.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 주: 1) 빈곤가구주 가구는 전가구(농어가가구 제외)의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빈곤율을 사용함.
 2) 빈곤선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가구 비율로 설정함.
 3) 1인 가구와 농어가 가구는 제외함.
 4)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추계한 것임.

<부표 4-2> 공적연금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14,432,362	14,597,002	14,881,086	15,448,960	16,317,211	16,999,768	17,518,908	18,432,294
	여성	5,144,778	5,305,735	5,556,287	5,951,043	6,497,813	6,970,843	7,282,238	7,938,292
	남성	9,287,584	9,291,267	9,324,799	9,497,937	9,819,398	10,028,925	10,236,670	10,494,002
국민연금*	계	13,159,939	13,309,906	13,571,581	14,129,092	14,986,354	15,663,881	16,169,339	17,056,789
	여성	4,637,367	4,780,656	5,014,961	5,397,122	5,931,615	6,395,846	6,692,641	7,315,852
	남성	8,522,572	8,529,250	8,556,620	8,731,970	9,054,739	9,268,035	9,476,698	9,740,937
공무원연금	계	1,021,771	1,030,256	1,047,897	1,052,407	1,057,958	1,064,472	1,072,610	1,081,147
	여성	396,414	408,547	420,966	428,179	435,467	445,641	454,954	468,031
	남성	625,357	621,709	626,931	624,228	622,491	618,831	617,656	613,116
사학연금	계	250,652	256,840	261,608	267,481	272,899	271,415	276,959	280,721
	여성	110,997	116,532	120,360	125,742	130,731	129,356	134,643	142,316
	남성	139,655	140,308	141,248	141,739	142,168	142,059	142,316	141,151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주: 국민연금가입자 내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제외.

<부표 4-3> 장애인 고용률

(단위: %)

구분	2008	2010	2011	2013	2014	2014	2015
계	37.7	36.0	35.5	36.0	36.6	37.0	34.8
여성	23.7	23.0	22.7	20.9	22.5	19.8	21.0
남성	47.6	45.6	44.8	46.9	46.9	49.4	4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주: 15세 이상 인구 기준.

<부표 4-4>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463,140	1,444,010	1,482,719	1,458,198	1,379,865	1,300,499	1,258,582	1,237,386	1,554,484
여성	622,400	617,015	638,061	626,798	594,955	562,115	547,324	543,391	854,262
남성	840,740	826,995	844,658	831,400	784,910	738,384	711,258	693,935	700,22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부표 4-5>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5	여성	53.7	28.9	9.1	6.3	2.0
	남성	18.8	31.6	18.3	21.8	9.5
	전체	35.1	30.3	14.0	14.6	6.0
2000	여성	39.4	31.7	10.4	14.4	4.1
	남성	13.4	30.0	16.0	28.8	11.6
	전체	23.5	30.7	13.9	23.3	8.7
2005	여성	29.1	35.5	13.4	16.9	5.1
	남성	7.8	27.7	18.7	31.3	14.4
	전체	16.5	30.8	16.6	25.5	10.6
2008	여성	28.9	38.4	11.8	16.4	4.6
	남성	7.8	29.2	18.8	30.1	14.1
	전체	16.5	33.0	15.9	24.4	10.2
2011	여성	22.1	40.2	15.1	16.6	5.9
	남성	4.4	27.5	20.6	31.0	16.5
	전체	11.8	32.9	18.3	25.0	12.0
2014	여성	21.0	36.8	14.2	19.3	8.6
	남성	4.7	23.0	17.7	34.5	20.2
	전체	11.6	28.8	16.2	28.1	1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주: 25세 이상 장애인.

<부표 4-6> 장애인 등록자 수

(단위: 명)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610,994	1,967,326	2,246,965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여성	563,432	743,682	901,408	1,048,979	1,052,781	1,050,669	1,047,506	1,045,582	1,043,464
남성	1,047,562	1,223,644	1,345,557	1,468,333	1,466,460	1,460,490	1,463,606	1,448,878	1,446,943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부표 4-7>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536,966	9,385,239	10,131,058	10,675,437	11,152,354	11,571,213	11,930,602	12,363,063
여성	2,960,097	3,374,119	3,820,635	4,105,637	4,367,654	4,599,514	4,815,795	5,064,769
남성	5,576,869	6,011,120	6,310,423	6,569,800	6,784,700	6,971,699	7,114,807	7,298,29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마. 보건

<부표 5-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격차(여성/남성)
2005	0.939	0.926	0.953	0.972
2007	0.931	0.909	0.952	0.953
2008	0.937	0.918	0.955	0.961
2009	0.948	0.931	0.964	0.975
2010	0.948	0.931	0.966	0.964
2011	0.947	0.932	0.962	0.969
2012	0.948	0.934	0.963	0.970
2013	0.945	0.929	0.962	0.966
2014	0.948	0.934	0.963	0.970
2015	0.950	0.940	0.962	0.97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9세 이상.

<부표 5-2>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1.6	55.7	60.0	65.3	66.0	68.2	72.6	72.9	72.1	74.8	76.1
여성	47.3	52.9	56.3	62.9	64.0	66.5	71.0	71.3	70.3	73.1	74.6
남성	55.1	57.9	63.0	67.3	67.8	69.6	73.9	74.2	73.7	76.2	77.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주 : 1) 수검률 = $\frac{\text{건강검진수검인원}}{\text{건강검진대상인원}} \times 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 = 1차건강검진대상인원.

<부표 5-3>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44.6	43.8	51.6	47.2	46.8	48.5	44.3	42.4	47.7
여성	39.0	42.9	46.7	44.7	42.6	41.4	40.2	39.0	43.7
남성	50.5	53.6	56.7	53.9	51.1	49.8	48.5	47.2	51.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분석.

<부표 5-4> 요양급여(청구)수급자

(단위: 건)

구분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5,922,751	6,609,448	8,506,065	9,322,539	10,452,402	11,062,559	11,981,351	-
여성	3,159,729	3,537,241	4,643,349	5,100,227	5,732,406	6,113,060	6,662,258	-
남성	2,763,022	3,072,207	3,862,721	4,222,312	4,719,996	4,949,499	5,319,09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부표 5-5>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단위: 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78.2	78.8	79.2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여성	81.6	82.1	82.5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남성	74.9	75.4	75.9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자료: 통계청, 「생명표」.

<부표 5-6> 모성사망비

(단위: 명, %)

구분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모성사망수	72	61	66	72	58	60	74	81	48	50	48	38
모성사망비	15	14	15	15	12	13.5	15.7	17.2	9.9	11.5	11.0	8.7
모성사망률	0.5	0.5	0.5	0.5	0.4	0.45	0.55	0.61	0.37	0.38	0.37	0.3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부표 5-7> 청소년 출산율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합계출산율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청소년 출산율	2.1	2.2	2.2	1.7	1.7	1.8	1.8	1.8	1.7	1.6	1.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부표 5-8>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01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9세 이상	34.6	35.1	27.1	31.0	29.8	27.9	27.0	23.8	25.5	29.6
	65세 이상	30.5	31.2	26.8	25.5	22.0	23.2	21.2	22.0	17.0	18.5
여성	19세 이상	34.6	35.2	30.3	33.3	31.4	30.4	30.3	25.7	27.2	30.5
	65세 이상	33.9	36.8	33.9	30.6	29.4	29.8	27.4	28.3	21.0	23.2
남성	19세 이상	34.6	35.0	23.7	28.6	25.1	25.4	23.5	21.8	23.6	28.6
	65세 이상	25.1	22.8	16.3	18.0	11.4	13.8	12.3	13.2	11.4	12.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주: 19세 이상 인구,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부표 5-9> 주요 암 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2		2013	
	여성	남성										
위	8,970	17,394	8,908	17,837	9,855	20,045	10,293	21,344	10,008	20,839	9,918	20,266
대장	7,621	10,630	8,695	12,697	10,022	15,228	10,955	17,157	11,543	17,445	11,025	16,593
간	3,743	11,418	3,922	11,518	4,069	11,999	4,274	12,189	4,102	12,152	4,087	12,105
유방	10,116	56	11,886	34	13,473	61	15,942	73	16,521	68	17,231	61
자궁 (경부, 체부)	5,238	-	5,146	-	5,557	-	5,717	-	5,616	-	5,845	-

자료: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부표 5-10> 만성질환 유병률(2015)

(단위: %)

구분	비만	고혈압	당뇨병 (30세 이상)	이상지혈증
전체	34.1	30.4	10.6	16.5
여성	28.8	26.9	9.4	22.1
남성	39.6	34.2	12.0	16.9
구분	폐쇄성폐질환 (40세 이상)	B형 간염 (10세 이상)	빈혈 (10세 이상)	만성콩팥병 (30세 이상)
전체	12.3	3.3	6.8	4.1
여성	4.9	2.9	10.4	3.9
남성	20.8	3.7	3.2	4.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5-11> 활동제한일수

(단위: 일)

구분	1999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0.9	0.8	0.8	0.7	0.6	0.6	0.7
여성	0.8	0.8	0.7	0.6	0.6	0.6	0.7
남성	1.0	0.9	0.8	0.8	0.6	0.6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0세 이상 인구, 평균와병일수.

<부표 5-12> 자살 생각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01	19.1	22.8	14.4
2005	18.5	23.0	13.9
2007	15.0	20.4	9.4
2008	17.4	22.9	11.8
2009	16.4	22.2	10.5
2010	15.0	20.3	9.5
2011	13.9	17.5	10.1
2012	13.3	17.2	9.4
2013	4.6	5.7	3.5
2015	5.1	6.3	3.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주: 1) 19세 이상.

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바. 안전

<부표 6-1>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전체	8.2	11.3	13.8	9.5
여성	7.2	9.2	11.4	7.4
남성	9.3	13.4	16.2	11.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6-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95	7,947	2,377	5,570	29.9
2000	8,765	6,245	2,520	71.2
2005	18,583	14,847	3,736	79.9
2010	25,333	20,930	4,403	82.6
2011	28,097	23,544	4,553	83.8
2012	26,135	22,381	3,754	85.6
2013	29,019	25,400	3,619	87.5
2014	24,959	21,722	3,237	87.0
2015	33,145	29,617	3,528	89.4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 2014년은 경찰청 자료.

주: 미상 제외.

<부표 6-3>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2004	11,105	10,220	22.9
2005	11,757	10,365	24.1
2006	13,573	12,501	27.7
2007	13,634	12,361	27.7
2008	15,094	13,577	30.5
2009	16,156	14,902	32.5
2010	19,939	17,652	39.8
2011	22,034	18,591	43.4
2012	21,346	17,892	41.9
2013	26,919	23,839	52.6
2014	29,863	28,420	58.2
2015	31,063	29,981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6-4> 가정폭력 처리인원 및 기소율

(단위: 건, %)

구분	처리인원	기소자	기소율
2004	17,294	2,429	14.0
2005	15,498	2,161	13.9
2006	13,531	1,972	14.6
2007	12,807	1,757	13.7
2008	13,370	1,841	13.8
2009	12,193	1,262	10.4
2011	6,227	1,103	17.7
2013	19,561	2,959	15.1

자료: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6-5> 가정폭력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83	100	100	159	327	312
남성 피해자	5	10	6	6	24	26
여성 피해자	78	90	94	153	303	286
여성 비율	94.0	90.0	94.0	96.2	92.7	91.7

자료: 법무부, 「법무부여성통계」.

주: 불상은 제외.

<부표 6-6>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 수	15,787	17,248	33,747	36,705	49,151	76,551	29,510	23,758	18,190	17,469
처 분 계	15,117	15,820	31,794	38,542	49,288	77,682	30,639	22,467	19,186	17,918
기 소	7,251	6,855	6,587	7,169	8,177	12,388	5,839	5,506	5,831	6,548
불 기 소	6,789	7,629	23,019	28,655	39,418	61,572	22,419	15,409	11,684	9,590
기 타	1,077	1,336	2,188	2,718	2,693	3,722	2,111	1,552	1,671	1,780

자료: 법무부, 「법무부여성통계」.

주: 2004. 9. 23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시행.

<부표 6-7>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3세 미만	1,007	1,180	1,057	1,127	1,172	1,208
13세~20세	5,200	6,218	6,883	7,834	8,719	8,322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주: 13세 미만은 13세미만자대상성폭력특별법 위반 건수임.

<부표 6-8>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성폭력	상담소	65	75	85	82	82	87	87	92	171
	지원보호시설	16	17	18	20	21	21	21	24	30
가정폭력	상담소	75	85	95	92	93	93	93	93	187
	지원보호시설	54	57	68	63	62	62	66	67	68
성매매	상담소	-	-	-	-	27	26	26	26	27
	지원보호시설	-	-	-	-	41	42	40	40	41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사. 가족

<부표 7-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3:44	1:22	3:38	1:24	3:30	1:27
여성	5:14	2:50	4:53	2:36	4:41	2:34	4:33	2:30
남성	0:54	0:27	0:55	0:31	1:04	0:36	1:08	0:4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20세 이상 인구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

<부표 7-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 명당)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41,450	42,114	45,913	44,333	41,862	49,932	51,644	50,596	45,234	43,712	42,500
여아	18,144	18,977	21,283	20,462	19,532	23,676	24,656	24,183	21,747	21,151	20,681
남아	23,306	23,137	24,630	23,871	22,330	26,256	26,988	26,413	23,487	22,561	21,819
성비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109.5	109.2	108.0	106.7	105.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7-3>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	56.1	54.8	55.7	54.6
여성	47.7	54.6	53.1	54.2	56.6
남성	53.1	57.7	56.6	58.2	53.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의 만족정도, 15세 이상 인구.

<부표 7-4> 육아휴직자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0,700	13,672	21,185	29,145	35,400	41,733	58,136	64,071	69,618	76,831	87,339
여성	10,492	13,442	20,875	28,790	34,898	40,914	56,734	62,281	67,325	73,410	82,467
남성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부표 7-5>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비 취업자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1	0:01	0:00	0:01	0:02	0:01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1
취업자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20세 이상 남녀 인구의 요일평균 노인부양 시간.

<부표 7-6>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단위: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전체가구	10,739,411	11,120,410	11,546,820
여성가구주	439,662	624,815	1,079,082
남성가구주	10,299,749	10,495,595	10,467,738
여성가구주 비율	4.1	5.6	9.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7-7>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09	어린이집수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아동수(현원)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이용률	79.3	88.5	77.8	80.4	78.1	78.5	84.4	75
2011	어린이집수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아동수(현원)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이용률	83.2	90.8	79.4	82.1	82	84.9	83.9	76.8
2012	어린이집수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아동수(현원)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이용률	86.4	91.8	80.3	83	84.9	90.9	83.5	77.8
2013	어린이집수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아동수(현원)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이용률	83.4	90.8	77.9	82.3	82.1	86	81.2	77
2014	어린이집수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아동수(현원)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이용률	83.1	88.5	76.3	80	81.9	87.1	80.6	76
2015	어린이집수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아동수(현원)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이용률	81.1	87.9	73.5	77.4	79.4	86.1	84.0	75.6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부표 7-8> 출산휴가 사용 건수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5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41,104	49,539	72,2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금액	46,041	90,886	166,631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아. 문화·정보

<부표 8-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미취업자	요일평균	6:59	7:01	6:45	6:13
	여성	6:12	6:17	6:03	5:38
	남성	8:46	8:42	8:23	7:33
취업자	요일평균	3:56	4:08	3:54	3:36
	여성	3:20	3:41	3:23	3:15
	남성	4:15	4:25	4:11	3:5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20세 이상 인구.

<부표 8-2> 여가 만족도

(단위: %)

구분	2004	2007	2009	2011	2013	2015
계	27.3	21.6	21.8	18.6	26.5	26.0
여성	26.1	20.7	20.4	17.5	25.3	24.8
남성	28.6	22.5	23.3	19.9	27.7	27.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8-3> 성별정보화격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	93.2	94.7	94.4	94.0	94.4	93.1	100.0
남성	106.9	105.3	105.8	106.0	105.6	103.6	104.8
여성/남성×100	87.2	89.9	89.2	88.7	89.4	89.9	95.4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주: 전체를 100.0으로 두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수준을 구함, 종합지수는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8-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구분	관람함	공연장 이용	음악· 연주회	연극·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전시장 관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2004	계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여성	51.0	91.5	26.2	24.4	2.9	89.1	35.3	75.5	57.9	10.9
	남성	51.0	83.2	18.9	16.5	1.8	91.2	28.6	80.5	49.5	28.5
2007	계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여성	55.0	90.2	29.0	29.6	3.1	84.4	39.1	73.0	59.8	10.8
	남성	53.6	83.2	23.8	21.9	1.8	85.8	33.9	78.4	53.0	26.6
2009	계	55.0	89.5	26.1	26.2	2.3	91.0	32.5	77.0	56.2	20.5
	여성	55.2	93.2	29.4	31.0	2.9	90.1	36.0	74.1	61.1	12.1
	남성	54.9	85.6	22.4	20.8	1.5	92.1	28.8	80.6	49.9	29.3
2011	계	58.6	-	25.2	25.0	2.6	81.8	-	26.4	20.7	24.3
	여성	59.2	-	28.7	30.2	3.3	85.5	-	28.4	24.4	14.9
	남성	58.0	-	21.4	19.6	1.9	77.8	-	24.3	16.8	34.2
2013	계	63.4	-	21.7	24.2	2.4	85.9	-	25.8	19.4	22.0
	여성	63.8	-	25.0	29.2	3.0	88.1	-	27.3	22.8	12.8
	남성	63.0	-	18.2	18.9	1.8	83.6	-	24.2	15.9	31.6
2015	계	66.8	-	20.6	22.4	1.8	88.1	-	26.6	19.1	21.1
	여성	67.7	-	23.5	27.1	2.2	90.2	-	28.4	22.3	12.8
	남성	65.8	-	17.6	17.4	1.2	85.8	-	24.7	15.7	3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2011년 이후 공연장 이용과 전시장 관람 변수 없음.

<부표 8-5>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단위: 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55,757	448,850	512,381	525,199	513,850	518,364	525,638	574,465
여성	180,963	198,781	216,106	220,938	207,041	208,959	231,832	245,281
남성	274,794	250,069	296,275	304,261	306,809	309,405	293,806	329,184
여성비율	39.7	44.3	42.2	42.1	40.3	40.3	44.1	4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부표 8-6>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구분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한달에 2~3번 정도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매일
2010	전체	41.5	4.4	8.8	9.5	11.7	5.2	6.6	2.9	5.6
	여성	40.5	2.9	4.8	8.3	12.7	4.9	6.8	2.9	4.9
	남성	42.5	5.9	12.7	10.7	10.7	5.5	6.5	2.9	6.2
2012	전체	35.0	5.0	8.3	7.4	10.6	4.2	6.4	2.3	4.0
	여성	34.9	3.0	5.1	6.4	11.5	4.1	6.7	2.1	4.1
	남성	35.1	7.0	11.5	8.5	9.7	4.3	6.1	2.6	3.9
2014	전체	43.5	10.8	11.2	10.2	12.7	5.2	5.9	4.0	5.5
	여성	43.9	7.9	8.2	9.2	14.4	5.3	6.2	3.8	5.0
	남성	43.2	13.7	14.3	11.2	11.0	5.1	5.7	4.3	6.0
2015	전체	45.3	9.6	10.6	10.4	12.7	6.0	6.5	2.5	7.2
	여성	46.7	6.1	7.2	10.8	14.0	5.7	6.9	2.2	7.1
	남성	44.0	13.2	14.1	10.1	11.5	6.4	6.1	2.7	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주: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

<부표 8-7>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컴퓨터 활용 여부	인터넷 활용 여부	인터넷 주 평균 사용시간
2005	전체	74.2	72.8	13.3
	여성	68.7	67.2	12.1
	남성	79.7	78.5	14.3
2010	전체	78.4	77.8	14.7
	여성	73.1	72.4	13.5
	남성	83.7	83.2	15.8
2012	전체	78.7	78.4	16.3
	여성	73.7	73.2	14.8
	남성	83.8	83.6	17.5
2013	전체	75.8	82.1	13.9
	여성	70.6	78.0	12.4
	남성	81.0	86.2	15.3
2014	전체	74.1	83.6	13.6
	여성	68.4	79.8	12.3
	남성	79.7	87.3	14.9
2015	전체	73.4	85.1	13.6
	여성	68.2	81.9	12.4
	남성	78.6	88.4	14.8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만 3세 이상, 단, 2006년 이전은 만 6세 이상.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① 경제 활동 분야 (21개)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비(여성/남성)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임금격차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의 성비(여성/남성)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자영 업자 제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	1년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 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정규직근로자의 비율	임금근로자 중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한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성별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부가 조사(근로형태별)」	반기별 (3월,8월)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유사업무에서의 남녀임금수준	동일직종 및 경력년수별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비율	고용노동부 *미생산	-
	전문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전문직 ※ 관리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30대 고용률	만 30대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대졸자 실업률	대졸 실업자가 대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 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평균 근속연수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대 상 기준일까지 근속한 평균 기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	1년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가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 배당금·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 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 의 합계에 대한 성별 격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5인 이상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성별 청년층 고용률	15~29세 경제활동인구수 중 취업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	결혼,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현재 취업자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년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고용노동부 *미생산	-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1년
	성별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수	시간제 선택이 자발적이고 임금, 승인, 4대 보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근로자 규모	고용노동부 *미생산	-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맞벌이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통계청 *미생산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현황	유형별(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재량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현황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중에서 의무이행률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년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당해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1년
② 의사 결정 분야 (13개)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DB」	1년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정부 고위 공무원단 여성의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여성장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급 중 여성비율	IPU	비주기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공식통계 없음	비주기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여성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년
③ 교육 직업 훈련 분야 (14개)	평균 교육년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여성/남성)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년 (5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포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 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통계DB 분석	1년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초대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비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재적학생수의 비율 ※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적령연령은 UNESCO에서 5년간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정의 되어 있어, 18~22세의 인구를 활용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여성비율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여성비율 혹은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초중고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중 여성 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대학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여교수 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초등학생 이상 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1년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대졸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외국인유학생)}]*100으로 계산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장,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비율	교육부, 내부자료	1년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학업성취도에서의 성별차이 ※ 학업성취도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부, 내부자료	-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25세 이상 인구 중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육강좌, 직업훈련, 각종 강좌, 기타 학습에 참여한 인구의 성별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실태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기술사 및 기능장의 성별 규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1년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기장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훈련생에 대한 성별 비율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④ 복지 분야 (7개)	비 빈곤 가구주 비율	전체 가구 중 비빈곤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비빈곤 가구주: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지 않는 가구(시장소득 기준이며 1인가구 제외)	통계청, 「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5~59세 인구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인구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합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3년 (1년)
	성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정도별 남녀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3년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전체 장애인중 등록장애인의 성별 수 ※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성별 규모,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⑤ 보건 분야 (12개)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여성/남성)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 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한 값(19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건강검진 대상자: 1차 및 2차 건강검진 대상 인원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주관적 건강상태	15세 이상 인구의 자신건강에 대한 주관적 상태 평가로 건강한 상태 비율(매우좋다+좋은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공단부담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의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년
	건강수명 성비	건강수명은 출생 시 기대수명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뉘었던 햇수를 뺀 기대수명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모성사망비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 10만 명당 수치로 계산 한 통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의 성별 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년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과거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앞으로 계속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별 환자 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성별 활동제한일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성별 일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성별 자살 생각률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⑥ 안전 분야 (9개)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5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사회안전: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교통사고,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범죄위험 *5개 척도: 안전(매우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불안(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가정폭력 즉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비율 ※ 가족폭력이란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성매매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비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또는 미검률	전체 성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발생된 성폭력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가정폭력 재범율	전체 가정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가정폭력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의 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⑦ 가족 분야 (9개)	가사노동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1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역수(남성/여성)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가족관계 만족도	만15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수의 성비 역수(남성/여성) *육아휴직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 성평등 기준으로 설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취업·비취업 상태별 부모 및 조부모 등 노인을 간호하거나 보살핀 남녀의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 비율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남녀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성별 생계책임 의식	가계비의 책임에 대한 성별 의식	공식통계 없음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설립주체별로 제공되는 보육시설 아동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출산휴가 사용 건수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산업 중 하나인 출산전후 휴가를 피보험자가 사용한 건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1년
⑧ 문화 정보 분야 (9개)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1주일 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여가만족도	15세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정보화격차	정보화 수준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정보화수준은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를 종합한 값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공연장(공연장, 음악, 연극, 마당극, 뮤지컬, 영화, 무용)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산업 10개 분야 사업체(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에 종사하는 남녀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1년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걷기, 헬스, 등산, 축구, 수영, 자전거, 싸이클 체조, 배드민턴, 농구, 줄넘기, 육상, 요가, 태권도, 테니스, 골프 등에 한 주 동안 참여하는 횟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2년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 (평소 1주일)	평소 1주일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이용한 남녀 수	공식통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구할 수 있음)	-
	성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시설 기관장의 성별 분포	공식통계 없음	-

Abstract

2016 Gender Equality Report in Korea

Tae-Hong Kim

Jae-Seon Joo

Geon-Pyo Park

Gender equality i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various research related gender. The World Bank has stated that rate of economic growth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ender equality. Also, countries with a higher level of gender inequality tend to demonstrate a higher level of poverty. Accordingl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targeting gender equality.

Korea has been making ongoing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However, according to gender equality indice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der equality in Korea stand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OECD countries, which indicates that customs and systems in Korea still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it appears necessary to identify the level of gender inequality, its sources, and the level of improvement in each sector of the society and in the nation as a whole. Therefore in 2009,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onducted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gender equality indicators which select in major fields carrying our gender equality policies, develop and measure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to review overall level of gender equality in Korea.

The value of the South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is designed to rise from '0.0' (perfectly unequal) to '100.0' (perfectly equal) as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mproves. According to this measure, the nation's Gender Equality Index stood at 67.4 in 2011, a sligh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index value continued to rise from 67.4 in 2011 to 68.9 in 2014.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gender equality of Korea has improved slightly 67.4 in 2011 to 70.1 in 2015.

In terms of sector, public health marked the highest level of gender equality(95.4) in 2015, followed b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93.4), culture and information(87.1), welfare(71.6), economic activity(71.5), and family(70.0). The decision-making(25.4) area showed the lowest level of gender equality, followed by safety(55.4). Compared to 2011, family sector made the greatest progress, decision-making, public health, welfare, culture and information, economic activity. Meanwhil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safety sector was aggravated. In addition, the scores of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ators are 63.4, 74.1 and 78.5 respectively in which the degree of gender-equal participation in society, awareness and culture of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elfare, etc., are included.

However, according to the trend in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South Korea has made constant progress in gender equality.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international ranking is little dropped. This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although the levels related to the gender equality indicators have improved overall, the pace of progress in reducing the gender gap is slow.

It is also due to severe inequality in certain areas, including decision-making sector, safety sector. As a result, South Korea's ranking is gradually progressing in the UNDP's GII. However, it remains within the low ranking group in the WEF's GGI of which only considers the gender gaps when estimat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restructured in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in July, 2015. And in order to make possible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the national level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develop and disseminat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which the degree of gender-equal participation in society, awareness and culture of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elfare, etc., are included. Furthermore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annually examine and publicly announce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which is developed to indicate the degree of national gender equality by utilizing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a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Therefore, in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existing indicators are changed and added new gender indicators, for example, sex ratio of 4th grade and over civil servant, sex ratio of Committee member for Government, sex ratio of Perceived Stress.

According to measurement results of 2015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it appears necessary to focus on a continuous and structural policy effort to reduce gender discrepancies in the areas of decision-making. And in terms of safety,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of serious crimes is rapidly increasing despite the efforts to prevent cases of aggravated felony such as murder, armed robbery, and sexual assault. In order to enhance gender equality in the safety sector,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structurally reduce the number of victims of serious crime.

연구보고 2016-94

2016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6년 12월 21일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 강 은 희

발행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